



11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11호

(루계 577)



◇◇◇◇◇◇◇◇◇◇

차 례

◇◇◇◇◇◇◇◇◇◇

작가들은 사회주의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4
장군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6
세월이 가도	7
한생을 걷다	8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도자의 후대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	9
날알의 무게	16
주 체.....	18
성스러운 산에 대한 추억.....	18
시대정신의 구현과 현실주제작품	
창작의 대강을 휘황히 밝혀준 불멸의 기치.....	19
영원한 배움터	23
소백수풀의 부루(상추).....	24
예지의 빛발은 불멸의 송가에도	26
사랑의 걸음	27
사업의욕	28
문앙리의 산당집이여!.....	30

병진년의 단군릉분향식	31
세월과 영생	35
불의 생애	37
벼이삭	38
이삭보다 먼저 익었어요	48
수령님 철학 (외 1 편)	49
단 풍 (외 1 편)	50
청춘에 대한 시	51
당 부	52
오소리굴앞에서	59
대지에 새기다	60
내 고향은 연백벌	65
시위서기의 마지막 하루	66
순희야	73
통일의 웨침	74
고향의 편지	77
우리 민족의 인사례법	78
평양-개성행렬차 (외 1 편)	79
교단에 서는 마음	80

작가들은 사회주의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끌어오르는 감격과 열정으로 받아안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힘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과 리론을 완성하고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불후의 사회주의총서이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의 진로를 명시한 위대한 전 투적기치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인민들이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사회주의사상을 영원히 새겨안도록 하시였다.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진리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지만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종말》**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과 지향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호하며 사회주의재생을 가로막기 위하여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처럼 떠들며 반사회주의적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실은 우리 작가들앞에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완성과정은 다름아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는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대중이다.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정권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수립과 그 성과적운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게 된다.

문학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당사상선전수단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의 성과적수행으로 힘있게 추동하는것, 이것이 바로 주체문학, 사회주의문학의 총적임무이고 기본사명이다.

현시기 주체문학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 큰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문학작품들에서 주체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측면들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훌륭히 구현되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이런 자주적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한 가장 리상적인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이다. 작가들은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현실을 뜨겁게 대하고 공감할 때 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 문학은 금지넘친 오늘의 현실을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유럽나라들의 비참한 현실과의 대조속에 뚜렷이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사는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궁지와 대조속에 뚜렷이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사는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궁지를 가지고 사회주의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날 라후와 빈궁에서 헤매이던 식민지 이 땅에 어떻게 인민의 새 세상,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섬으로써 현시기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인 악랄한 책동을 맞받아 끄떡없이 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 그 불패성과 생활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형상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업적과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예지와 령도업적을 문학작품들에 가장 품위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정책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어떤 분야의 생활을 묘사 대상으로 설정하더라도 거기서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형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해 관철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학이 인민대중이 주인된 우리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할수 있고 주체사상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그 생활력을 다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는것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기초이며 사회주의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사상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주의를 통해서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를 구현한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곧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다.

문학작품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한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잘 형상해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이것은 집단주의의 가장 높은 경지를 이룬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여기에 집단주의가 훌륭히 구현된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제도의 아름다운 현실을 립체적으로 감동깊게 그려야 한다.

그러자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감동적인 세계를 전면적으로 사상에술적높이에서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진짜배기 충신들을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참다운 삶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가정의 미풍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서슴없이 희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로 남먼저 달려나가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문학의 형상원천이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긍정하고 다면적으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함으로써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의 첫세대가 이룩하여놓은 고귀한 혁명전통이 철저히 구현되고 순결하게 이어지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의 공고성, 불패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것이다.

혁명전통은 사회주의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 이룩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곧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 불패성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총서 《불멸의 력사》와 같은 혁명전통주체의 작품들을 계속 활발히 창작하는것과 동시에 혁명전통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현실을 옹계 반영하는것이다.

혁명의 첫세대가 발휘한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희

생정신,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이 오늘 우리 사회 생활전반에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한별정신으로 빛나게 산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자기 정도자를 보위하는데서 총폭탄이 되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불같은 맹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

우리 작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이 내려치는 오늘의 이런 현실을 형상함으로써만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고수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오늘의 벽찬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변질은 계급적변질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온갖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사회주의를 계급적으로 변질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문학작품창작에서 계급적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작가들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반영하며 계급적원썹들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계급의 형상을 적극 창조하여 그들의 계급적 립장과 관점, 혁명성을 옹계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끝없

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옹계 반영해야 한다. 작가들은 경제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는 인간들의 생활을 취급하는 작품에서도 이런 각도에서 사색하고 형상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이 영예론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를 뜨겁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현실을 철학적으로 보는 정치적인안을 가지는것이다.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힘은 모든 생활, 구체적인 세부에 구현되어있다. 그런것만큼 작가들은 높은 정치적인안목으로 혁명과 건설 전반을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당의 사상에 민감한 작가, 사회주의사상에 투철한 작가만이 시대와 혁명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성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그에 옹은 해답을 주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의 밀친은 지식과 재능인것만큼 작가들은 피타는 노력을 하여 창작적기량을 높여야 한다.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당과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작품,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계속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가 사

장군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배정순

따스한 봄날과 같이 포근하고
풍요한 가을과 같이 너그러운
아 자애론 장군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하늘의 태양과 같이 따뜻하고
밤하늘의 달과 같이 밝고밝은

아 자애로 장군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오늘도 우리를 한품에 안고
래일도 영원히 안아주실
아 자애론 장군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세월이 가도

전계승

오실것만 같구나
만풍의 금나락 끝없이 설레이는
벼바다를 바라보아도
방금 오실것만 같구나
그날의 현지도의 자욱이 어린
포전길가를 더듬어보아도

구름넘어 산넘어
문득 기별도 없이 찾아오신 그날
반가움에 목메인 농장원들 마음 담아
어리광치는 풍년이삭 만져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아버이수령님

햇곡식밥을 지어 점심 대접하고픈
순박한 농장원들 간절한 소망
뜨겁게 사양하시며 다시금 달래시며
다음해 가을에 꼭 다시 오시겠다던
아아 우리 수령님

영영 우리결을 떠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눈물 젖은 꽃다발 눈물속에 드리면서도
믿어지지 않던 그 마음
무더기 장마에 벼 한포기 상할세라
배수문 모두 열고 지켜가던 그날에도
평양하늘 우러르며
수령님 생각

찌는듯 무더운 열과를 막아
은하수도 불려서 시원히 잠근
대동강물 쉬임없이 갈아대는 그밤에도
쪽잠이 들었던 꿈속에서도

풍년별 한복판에 환히 웃으실
수령님 생각

지난날 버림받던 인생을
제 나라 제 주권의 떳떳한
사회주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시고
누릴수록 행복에 목메이고
빛낼수록 희망에 가슴부푸는
세상의 천복, 만복 다 안겨주신
아아 우리 수령님

받아안은 그 사랑 하늘처럼 끝없어서
못다갚은 그 은덕 바다처럼 깊어서
일력을 번저도 달력을 번저도
언제나 떠나보낸 마음 아니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마중하는 마음이거니

그날엔 목란꽃도 두번 피면서
애도의 눈물 흘리던 산자락에
오늘은 살구꽃 다시 활짝 피어나
영생의 봄을 축복하는 강산이여 말하라
수령님 동상을 찾아와 못떠나던
백로도 나래를 대공에 펴고
훨훨 날아에는 만풍의 강산이여 노래하라

아버이수령님 유혼 깊이 새기시고
당과 인민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 따라 우리 인민 나아가기에
하늘처럼 희망찬 그 마음속에
만풍의 바다처럼 설레이는 마음속에
아 수령님은 수령님은 살아계신다
태양처럼 웃으시며 영생하신다

한생을 걷다

박 철

땅아닌 땅을 밟는듯
하늘아닌 하늘을 머리에 인듯
걸음걸음
참으로... 생각은 많다
여기 금수산기념궁전 성지에선

생각에 생각이 얹혀진다
그러지 말자고 해도... 그러지 말자고 해도
핑- 어리는 눈물
아버이수령님 한평생이
그 뜨거운 눈물속에 젖어온다

경건히 옮겨짚는것은
다듬어 짚은 하얀 화강석인가
우리 수령님
이 조국을 안으시고 한평생 맞으신
그 차거운 눈송이 눈이 깔린것이다

엄숙히 서있는 전나무들이
발걸음 붙잡는다 이 마음 세운다
저기- 성벽처럼 길게 뻗어간
키높은 포도넝쿨들이
생각깊은 가슴에 생각을 더해준다

들린다, 머리들어 바라보는 아득한 창공에서
만경대 그 잊지 못할 고향집의 자장가소리
보인다, 흰구름 넘어넘어

백두산 산협에 타오르던 우등불
오늘로 오늘로 휘날려온 붉은기

수령님 한평생 맞고보내신
낮과 밤이 여기에 다 있다
수령님 한평생 헤치고헤치신
비바람 눈바람이 여기에 다 있다
땅으로 펼쳐져 하늘로 열려져

그리도 열렬히 그리도 불같이
80여성상을
인민에 조국에
다 바치시고
수령님 영생의 태양으로 빛나시는 성지여

걸어걸어 수령님 뵈는 이 길은
한시간 두시간을 걷던가
수령님 한평생을 생각하고 생각해
20세기를 다 걸어보는
세기와 같이 긴긴 시간!

아, 금수산기념궁전
어제가 놓인 길이다
래일이 놓인 길이다
수령님 받들어 수령님 유훈지켜
영원토록 충직할 나의 한생
여기서 다 걸어본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

-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를 놓고 -

최길상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김일성상》계판인 명준섭 작)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후대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우리 식 서사시의 대표작이다.

서사시는 위대한 인간과 위대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탐구와 미학적파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행복관, 미래관을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가장 진실하고 감동깊게 칭송하였다.

이것은 수령형상 서사시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하나의 사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에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사람들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우리 문학의 본도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생동한 서사시적형상으로 높이 구가하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수령의 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가도록 사상정서적으로 공감하게 하고 심장을 끓게 하고있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가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인간들의 위대한 생활속에서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종자를 잡고 그것을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운데 있다.

아, 아이들이 없이
한시도 못사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없이는
순간도 못사는 우리 아이들
이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이며라

서사시의 한련을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아이들 없이 한시도 못사시며 우리 아이들 역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없이는 순간도 살지 못한다는것이 이 서사시에 심어진 사상적알맹이이다.

작가의 심장에 창조의 불씨를 지피주고 창조적열정을 불리일키며 정서적체험세계에 이끌려주고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달아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야 작품의 종자로 될수 있다.

이 서사시의 종자는 작가가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탐구하는 과정에 력사적인 사변, 충격적인 생활계기에서 찾아낸 작품의 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세월 혁명투쟁을 하여오시는 과정에 조국의 미래이며 꽃봉오리인 우리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고계셨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학날인 9월 초하루가 되면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안겨 새학년도의 첫등교를 하는 조국의 미래, 후대들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현실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젖는다.

이 감정은 이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체험하고 간직하고있으며 보편적인것이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인민적인 감정속에는 작품의 핵으로 될수 있는 가치있는 종자가 많이 내포되어있다. 그러나 작품에 담아야 할 종자는 저절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생활현실속에 체현되어있는 되여있다. 그러나 작품에 담아야 할 종자는 저절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생활현실속에 체현되어있는 본질을 파고드는 과정에 거기에서 어떤 인간문제를 찾아낼수 있겠는가 하는 작가적인 탐구에 의하여 발견될수 있다. 이런 발견은 이마 찾아낸 생활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심장한 생활현상이나 충격적인 계기에 접했을 때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생활의 본질을 파악하고있다고 하여 저절로 탐구되고 발견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섬광처럼 발견될수도 있으며 또한 작가가 아직 모르고있던 생활의 본질이 어떤 현상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사색을 깊이하는 과정에 잡아질수도 있다.

얼핏 보기에는 서사시의 이 종자는 너무도 모든 사람들속에서 생활화되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된 레사로운 일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것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삼고 형상을 무트익혀나갔다.

작가가 종자를 잡을수 있게 한 새로운 변화된 생활의 흐름은 무엇이며 사람들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은 무엇이었는가. 그 어떤 충격이, 바로 이 레사로운 사실이 서사시를 탄생시킬수 있게 한 종자로 될수 있게 하였으며 작가를 흥분시키고 창조적령감의 세계로 이끌어주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서사시의 머리가 충분히 말해주고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그해 9월의 아침에 배움의 첫 대문에 들어섰던 서정적주인공-시인은 해마다 9월이 오면 생각이 깊어진다.

파편조각을 쥐었던 손에 꿀벌연필을 쥐여주며 채더미를 털고 제일선참 일떠선 2층집 정다운 새 교실에 들어서게 하신분은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의 학부형인 아버지수령님이시다.

년년이 맞는 이 나라의 9월 1일은 민족의 번영과 창창한 미래가 열린 사랑의 첫기슭이었으니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제는 서정적주인공의 아들딸들이 9월의 대문을 열고 배움의 전당으로 들어선다. 변함없는 이 생활의 흐름속에 충격의 파동이 생겼다.

아, 수령님 아니계신 9월
내 목메여 부르며
그리움의 바다를 기올여
시를 더치노라

수령님 한평생
그리도 기쁘게 맞으시던
9월 1일이여!

온 나라 아이들의 학부형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맞게 되는 9월이여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속에 시인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것은 피바다 불바다 만리를 헤치시는 그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고 그 미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셨기에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개척해오실수 있는 우리 수령님의 미래관, 행복관이였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 수령님의 후대관이라는것을 체감하였다. 그래서 수령님은 아이들이

없이는 한시도 못사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또한 우리 후대들은 온 나라의 학부형이신 아버지수령님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는 혼연일체인것이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가지였으니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갈수 있겠는가. 학부형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배움의 넓은 길을 제바로 걸어갈수 있단말인가.

이에 대하여 서사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를 믿는것
그것은 미래에 사는것
그것은 미래를 키우는것

그렇더라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뿌리를 둔 사랑
차넘치는 승리의 신심에
뿌리내린 사랑

하여 그 사랑으로 미래를 키우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내 온 세상에 소리높이 칭송하나니

서사시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똑같은 미래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지니신 온 나라의 학부형이시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을 뿌리며 비애에 잠겨있던 그 나날 텔레비죤화면에서 축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나아린 소녀는 장군님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몸이시라고, 밥도 제때에 꼭꼭 잡수시고 잠도 꼭꼭 주무시라고 진정을 아뢰이는것이다.

수령님 없이는 못사는 아이들이
수령님과 똑같은 우리 장군님께
간절한 심정을 아뢰인 이 편지
이름없는 한 작은 마을에서
소문없이 부친 편지이건만
그것이 어찌
기차나 우편차에 실려온 글발일것인가

아, 장군님 계시여 마음이 든든하고
장군님 계시여
우리 수령님 영생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마음을 거쳐

평양으로 당중앙으로 전해진
우리 인민의 진심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시형상은 아이들이 없이는 잠시도 못사시는 우리 수령님은 곧 우리 장군님이시고 이분들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후대들이라는 작품의 종자에서 꽃핀것이다. 이로부터 서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수령님과 똑같은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분이시며 그러기에 수령님은 영생하시며 우리 후대들은 **김일성**민족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수령님의 품속에서 밝은 미래를 안고 9월의 대문을 들어서리라는 사상적주장을 진정의 울림으로 확신시키고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해마다 맞는 9월 1일 개학날이라는 생활현상을 그저 관찰하는데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 이해에 맞게 되는 개학날에 대하여 철학적사색과 탐구를 깊이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전폭적으로 노래할수 있는 뜻깊고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있었다! 이 가치있는 예술적발견은 위대하고 격동적인 우리 시대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난 작가의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종자를 바로 잡았다고 하여 좋은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종자의 발견은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적인것이다.

작가는 종자를 골라진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형상요소를 집중시키고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여야 한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뜻깊고 의의있게 찾아낸 종자를 기본형상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작품은 사상적의도가 뚜렷하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생활의 긴 여운을 주는 가치있는 형상으로 되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을 철학적인 심오한 형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전반을 놓고 말하든 어느 한 세부나 대사에 대하여 말하든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다는 의미와 작가가 발견한 생활의 진리가 매우 심오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의 진리이다.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졌을 때 철학성을 담보할수 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새 세대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의 미래, 아이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위인이시며 그것은 곧 《이민위천》의 혁명철학의 정확이라는것을 드높이 구가하고있으며 우리 후대들과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삶의 심오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서사시는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후대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후대관과의 혼연일체속에서 매우 감동깊고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님은 곧 장군님이시고 장군님과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서사시는 여기에서 대담한 형상구조도와 환상을 통하여 두분의 위인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더우기 서사시의 1장에서 시적정황으로 제시된 개학날을 앞둔 그 밤에 당중앙집무실에서 사색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인것은 위인들의 숭고한 세계를 한껏 부각한 매우 정서깊은 형상세계이다.

뜻깊은 9월 1일의 새벽을 기다려 깊이 잠든 수도의 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창가에서만 불빛이 흘러나오고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9월의 새아침이 밝아오련만 그이께서는 온 나라 학교길을 다 돌아보시고 온 나라 아이들을 만나보고오신듯 집무실을 떠나실줄 모르시며 사색을 거듭하신다.

아이들이 없이는 못사시던
수령님 생각 그리도 간절하시여
이 시각에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려가시는 마음이어

아이들을 두고
개학날을 두고
얼마나 마음속 하많은 이야기들
이밤 수령님과 나누고계시는가

어버이수령님
이 나라 방방곡곡에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주신 그날로부터
반세기 돌기돌기
9월의 빛나는 년륜을 감으며
혁명의 미래를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색, 내면세계속에 투영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가장 위대한 인간의 한평생이다. 전쟁의 포연속에서도, 전후의 재더미속에서도 9월의 개학날만은 어김없이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을 만나보시는 이 9월 1일을 제일 기쁘시고 행복한 날로 여기시었다. 하기에 온 나라 아이들의 교복과 학용품, 학교갈 차비를 다 마련해주시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학교길도 걸으시며 배움의 첫 걸음마를 떼어주신다. 그 귀염둥이들을 못보시면 한시도 못사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자신의 생신날에도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보고싶어 힘든 길,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시며 《나에게 일생을 좌우한 행복관이 있다면 어린이들속에 있을 때》라고 언제나 말씀하신다.

서사시는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이의 정서적체험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행복관, 미래관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시적환상을 대담하게 펼치고 생활과 사건을 중형무진으로 소급하면서 서정적주인공의 직접적인 주장토로, 역사적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시적개괄과 정론적분석, 극성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절세의 위인들의 세계관을 미학적으로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서사시의 제2장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시점을 통하여 준엄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광란하는 눈보라를 헤치시며 대오를 이끌어가시는 수령님의 품에 열두명의 철부지들이 오롱조롱 안겨있는 사실에 대한 서사시적형상은 매우 감동적이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빙설천지에 버리고간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운명의 기로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아이들을 군복자락에 감싸안으시고 눈속에 쓰러지셨다가는 또 일어나시며 피의 자욱자욱을 이어가신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중하가 참아내기 어렵게 어깨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만은 내려놓지 않으신다.

황막한 세상에 헤매이던
어린 생명을 안아주신
수령님의 그 따사로운 품
그것은 아이들의 집이었고
요람이었다
자애로운 어머니였고
정다운 삼천리강토였고

서사시는 이렇게 절세의 위인의 후대관을 영원무궁할 혁명의 미래, 조국의 미래로 감수하여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생리에 맞게 유기적으로 밀착시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사상정서적주장의 철학적의미를 더욱 부각해주고있다. 여기에서 금수산의사당의 주단과 집무탁사건, 어느 유자녀학원의 모포사건에 대한 극적형상은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복관, 미래관을 서사시의 생리에 맞게 뜨겁게 부각한 감동깊은 대목이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작전대열에 부모없는 네살짜리 어린애를 두시고 손수 토장국을 끓여먹이시며 돌보시였고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새집을 세울 때에도 제일 먼저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시고 아이들의 궁전을 제일 화려하게 꾸려주시었다. 백두의 그날로부터 한평생 아이들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우에 단 한치도 높이 서실 줄 모르시고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총복으로 낮추시었다. 너무도 소박하게 생활해오신 우리 수령님을 생각하여 일군들이 그이께서 현지지도를 떠나신 어느 한 날에 주단도 책상도 새것으로 바꾸어드렸다. 그것은 한평생 인민 위한 험한 길만 걸으신 수령님께서 집무실에서나마 폭신한 주단우를 걸으시게 하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너무도 소박한 념원에서였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사건이 될줄이야...

...

-누가 이렇게 했는가
의사당청사를 찌렁찌렁 울리는
그이의 노하신 음성

-책벌을 주라...

그이를 보좌해드리는 일군들은 아직 이렇게 노하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뵈운적이 없었다.

생각해보라
동무들은 자기 가정에서
어디다 돈을 쓰는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쓸 때
제일 기쁘지 않던가

나는 이 나라의 학부형이다

이런 책상과 주단을 마련할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을
하나라도 더 마련해주라
이것이 나의 재산관이다!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일을 하고
김정일동지가
하루에 한두시간씩 자면서 일하는것이
다 누구를 위하자는것인가
모든것을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내 생활의 철학이다
이것은 또한
김정일장군의 필생의 의지다

이 세개의 시련에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의 후대관, 인민관, 혁명관이 집약되어있다.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의 장군님의 숭고한 생활철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곱이치고있다.

서사시는 바로 이와 똑같은 철학적심도와 생활적진실, 높은 미학적경지에서 당중앙의 집무실에서 있는 일을 극적형상으로 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유자녀학원의 실태를 료해하시는 문건에 밑줄을 그으시다가 가슴저려움을 금할수 없으신다. 벌써 바꾸어주었어야 할 모포를 아직까지 유자녀들에게 덮어주고있다니... 그이의 심중엔 때아닌 마안산의 눈보라가 이는듯,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은들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자신께서 덮으셨던 한장의 모포마저 아이들에게 덮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회억되어 그이께서는 더욱 가슴이 아프시였다. -동무들이 어떻게 자란 사람들이기에, 부모없고 해메이던 동무들을, 누가 안아키워주었기에, 벌써 지난날의 처지를 잊었는가, 가슴이 아파도, 이보다야 더 아프겠는가-

이 걱정적인 장면은 금수산의사당의 주단과 책상사건과 형상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생활철학을 박력있게 부각해주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날로 보내준 사랑의 새 모포를 금수산기념궁전의 주단과 책상과 함께 눈물속에 안아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아버지수령님의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수령님에 대한 충효성에 바탕을 두고 력점을 찍어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서사시는 후대들에게 기울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천이라면 그 천을 다 안고 꽃피

워가시면서도 끝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넘치는 사랑의 세계에 독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장군님께서 걸으신 그 사랑의 자욱자욱을 심장에 새겨준다. 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진 사랑의 놀이터와 외진산촌의 은정다리로부터 산원의 눈부신 보석주단, 만경대학 생소년궁전 등 이 땅우에 새 세대를 위하여 베풀어진 위대한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라는것을 격찬하고있다.

아, 수령님의 기쁨으로
수령님의 행복으로
수령님의 희망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의 장군님이시기에 수령님께서 언제나 후대들의 글소리 들으시며 즐거우시라고 금수산의사당도 **김일성**종합대학 바로 그옆에 세워주신것이라고 서사시는 확신에 넘쳐 노래하는것이다.

서사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의 밑뿌리에서 이루어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지나간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시적일반화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시점에서 더욱 승화시켜 매우 뜨겁고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생의 마지막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남기신것도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다 해입히시여 모두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 력사의 7월 6일이였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성에 의하여 더욱 돈아어지는 숭고한 품모를 객관적인 사실 그자체를 전개해설하거나 사건, 사실들 속에 시인자신의 서정적체험을 평면화하여 라렬하는것으로 보여준것이 아니라 대상 그자체에 의해 시인의 정서가 더욱 승화되고 풍부화되고 매혹적인 생동성을 띤 시형상을 통하여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다시 말하여 빛나는 사적에 대한 평범한 설명이 아니라 격동된 감정의 표현으로 그것이 내포하고있는 철학적의미를 정서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아시는가
아이들이 없으면
잠시도 못사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들속에서
아이들속에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온 우주가 가득차게
뿌리시던 그 미소 아니었던가

위대한 태양의 그 미소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듣지 않았던가
김정일장군의 품에 혁명의 미래를 맡겼으니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다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하시던 수령님의 그 말씀

서사시의 종자가 알차게 무르익고있는 이 시련
들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으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자애로운 미소, 이 나라의
거리와 마을, 가는곳마다 빛나고있는 그 해빛같은
미소는 바로 우리 혁명의 미래, 아이들을 보
시면 그리도 기쁘하시며 지으시던 태양의 미소이
다. 그것은 바로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시는 그 미소,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우
리 혁명의 미래를 맡기시었으니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다는 위대한 태양이 지은 위대한 신념의
미소이다.

참으로 여기에는 수령과 정도자와 혁명의 미래
에 대한 심오한 혁명철학-위대한 수령의 모든 자
질과 품모를 그대로 체현한 수령의 후계자를 맞
이했을 때 혁명의 미래는 전도양양하며 따라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
명의 진리가 맥박치고있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가장 빛나는 귀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
한 형상을 위인의 품모에 맞게 다면적으로 창조
하고있다.

서사시의 5장에서 노래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
영소를 현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형상은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담력과 기질, 숭고
한 감정과 정서를 깊이있게 보여준 빛나는 대목
이다. 여기에서는 류레없이 참여하고 격동하는
우리의 현실을 압축된 극적박력과 진한 서정의
추구로서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장의 위인상, 인
민형의 정도자, 실력가형의 정도자의 모습을 유
감없이 부각하고있다.

제국주의원썬들이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나라에

대한 마지막 포위진을 좁히며 핵구름을 몰아오
던 그 준엄한 나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최
고사령부의 작전대를 떠나시여 우리의 장군님께
서 가신곳은 그 어느 야전 지휘소도 군함도 비행
장도 아닌, 넓고 푸른 동해의 백사장에 새로 일
떠선 국제소년단야영소였다. 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계가 우려하며 인류가 시시각각 지켜보고있던
그 시각에 우리의 장군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무
엇이었는가.

-각 도당책임비서동무들
모든 도들에
이런 야영소들을 새로 잘 지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선물합시다

이 집약된 형상속에 인민형의 위대한 령도자,
실력가형의 령도자로서의 우리의 장군님의 혁명
철학, 담력과 기질, 숭고한 품모가 뜨겁게 체현되
여있다. 서사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모를 시적
으로 강조하며 그 어떤 전쟁의 포고도 핵탄의 공
격도 이보다 더 놀랍게 세계를 진감시킬수 있었
으라고 반문하면서 《그이께서 이 한마디의 명령
으로 우리를 향해 추켜든 무수한 살륙의 포신들
을 순간에 땅우에 떨어놓으시고 살인장군들의
눈을 멀게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
래하고있다.

모든것을 아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앞자리는 어린이들에게!
이것이 이 나라의 국가시책
이것이 우리 당의 최고정책

그렇다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이 서사시의 종자가 형상으로 무르익어 주정으
로 강조된 이 대목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관
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가 아로새겨져있다. 하여 독자들은 지금까지
시 전반을 통하여 감수해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작품에 제기한 종자의 해명과 함께 철
학적으로 깊이 체득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의 위대성을 예
술적으로 형상함에 있어서 서사시는 단순히 아이
들에 대한 위인들의 후대관 그자체에만 머문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관이라는것을 형상생리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후대들에 대한 사상은 곧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며 그것은 곧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행복한 삶을 담보해주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있게 노래한 여기에 또한 이 서사시의 철학성이 있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흐르고있다는것을 형상체계전반에 정서적으로 체현시키고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하여 아이들속에,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아이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흠모의 감정을 곧 인민의 감정으로 밀착시켜 노래하기도 한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만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겨살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새 세대들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뜨거운 흠모와 매혹된 정서로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깊은 감동을 준다.

이에 있어서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체험하시는 내면세계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이,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기 수령과 령도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7월의 그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 가셨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팔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험한 령을 넘어 평양으로 달려오는 량강땅의 아이들, 쏟아지는 폭우에 화환이 젖을가봐 몸으로 가리우는 우리의 새 세대들의 그 진정, 장군님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는 나라 인민의 몸이라고 아뢰이며 아버지의 안녕을 축원하는 아홉살 소녀의 그 편지 ...장군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인민들의 이 진정을 체험하시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신다. 하기에 서사시에서 **《장군님이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고 참다운 조국도 없고 오늘도 래일도 없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웨치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의 그 신념의 목소리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의지로 힘있게 메아리치며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데는것이다.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철학적무게가 있는 종자를 심고 형상을 무르익힘에

있어서 우리 식 서사시의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서사시는 웅당 우리의 위대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야 하며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서사시는 시대와 현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구현하여 위인들의 위대한 인간상, 거대한 사회적사변들을 응축된 서사적화폭의 창조를 통하여 능숙하게 시화하여 보여주고있으며 서사성과 서정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하여 거창하고 격동적인 서사적화폭이 진한 서정으로 채색되어 정서의 물결이 파동치게 하고있다.

특히 머리시와 맺음시, 3장에서 미래에 대한 시인의 주정이 토로된 부분을 비롯하여 사건이 정면에 드러나는 대목들에서조차도 하나의 서정시를 련상케 하는 시형상으로 되고있다. 서사시는 날개돋혀 날아오르는 심오한 감정들을 다면적인 체험과 리지적분석속에서 환상과 사색, 상징들속에 전달하고있으며 그것은 매혹적이고 개성적인 시적표현들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에 강한 정서적 흥분과 감동이 물결치게 한다.

서사시에서 특히 개학날을 앞둔 그밤으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의 몇시간에 펼쳐지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색의 세계속에 거대한 력사적사변과 그에 체현되어있는 심오한 의미를 미학적으로 분석하여 시화한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모든것은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가 앞서 발표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주체적인 서사시문학의 모범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지금처럼 우리 시대의 격동하는 현실, 웅장한 서사시적화폭을 압축된 극적박력과 진한 서정으로 시화하여 노래하는 서사시가 요구되는 때가 없다.

우리 작가들은 서사시의 결구가 신념과 열정의 분화구를 터쳐놓은것처럼

《주체의 영원한 태양

아버지수령님과 더불어 만발하리라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김일성조국의 미래는

영원무궁하리라!》는 노래가 20세기를 이어 희망찬 21세기로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날알의 무게

리 빈

누가 나를 들길로 불러냈던가?

일망무제한 황금파도의 장쾌한 정서인가, 한창 벌어지고있는 벼가울의 흥겨운 모습인가. 아니면 논고에 오골거리는 봉어새끼를 잡느라 학교갈 생각마저 잊었던 그 시절의 추억인가.

아니다. 그전날에는 그래서였을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니다.

풍년나라이 무겁게 실린 황금의 벼바다를 바라볼수록 농사를 두고, 아니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던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간절해진다. 해마다 농장벌을 찾으시여 거름장만과 실어내기,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마련,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비료치기, 병충해막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농사의 모든 공정을 논머리에서 친히 돌보시느라 봄내 여름내 따가운 해볕과 찬바람 찬비를 다 맞으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었던가.

그 사랑의 손길을 못잊어 올해에도 대지는 황금나락을 무겁게 실었거니 풍년을 안아오신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이 그리워, 그 사랑을 못잊어 거룩한 자옥을 따라 내 지금 걷는다.

다리에 휘감기는 벼이삭들, 숨이 가쁘도록 떠도는 벼냄새...

진정 걸음을 떼사료이 옮길수 없었다. 발길이 닿는 포전마다 수령님 들리셨던 포전인듯, 무겁게 머리숙인 벼이삭들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쓸어보시였던 그 벼이삭들인듯만 싶으며 구수하게 떠도는 들판의 향기, 그이를 맞아 풍기던 향기갈기만 하여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 해마다 몇차례씩 이 들판에서 뵈옵던 수령님, 여기에 오시여 풍년든 들판을 바라보시며 래년에 다시 오시겠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받들어 농사를 잘 지으라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벼도 잘되고 두렁콩도 잘되었다고 인민들이 더 잘살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며 환한 웃음을 황금들판 가득히 뿌리시며 포전을 떠나실줄 모르시더니...

나는 걸잡을길 없이 솟구치는 눈물을 벼이삭우에 뿌리며 가슴을 두드렸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까지 농사를 두고 심려하신 수령님, 아 여복하시었으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그렇듯 심려속에 손수 가꾸신 날알이었다. 그것은 어느때처럼 자라서 여문 어제날의 그 나라과 같을수 없다, 깊이 고개숙인 나락들, 그것은

수령님의 간곡한 뜻이 보다 깊이 어렸기에 그로하여 더 큰 무게가 실려있는것이다. 정녕 곡식들에게 생각이 있다면 저들이 받아안은 은덕을 못잊어 눈물 지으며 더욱 알찬 열매로 보답하고저 뿌리마다 깊이깊이 뻗어가리니. 이 열매 어찌 어제날의 열매들과 무게가 같겠는가.

하기에 들길을 걷는 내 마음 나락들과 더불어 무거워지고 걸음마다 그리움에 가슴이 란다.

질어가는 생각과 더불어 점차 떠지던 나의 걸음은 한논머리에 이르러 못박혀버렸다. 싸리로 엮은 아름드리바구니가 발목을 붙든것이였다. 바구니에 그득한 벼이삭들, 순간 솟구치는 뜨거운 충격!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이것은 풍년바구니입니다.》

... 여러해전 어느 가을이였다.

들길을 걸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빈 논판에 떨어진 벼이삭들을 손수 주으시였다.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날알인데 우연히 흘러진 한이삭의 벼에서도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던 그이께서는 논 서너배미를 건너 저쪽 논둑우에 놓인 어떤 물체에 주의를 돌리시였다. 농장일군들과 수행원들의 눈에는 그것이 나무단만한 크기의 짙검불무지로 범상히 안겨왔다. 가을이 끝난 어느 논판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였다. 누군가가 돼지깃을 주려고 모았을수도 있고 한철찰 깔고앉기 위해 무저놓았을수도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리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앞에는 물길이가로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물길뚝을 따라 멀리 에도시여 바투 다가가시였다. 수행일군들은 놀랐다. 걱정도 컸다. 한순간이 천금같은 수령님께서 한갓 그런것을 위해 품을 놓으시다니?! 그이께서는 싸리로 곱게 엮은 바구니앞에 멈추시였다. 바구니에는 모지라지거나 허리꺾인 벼이삭들이 무득히 넘쳐나고있었다. 농장원들이 오고가는길에 떨어진 이삭이 보이는족족 하나둘 주어다가 여기에 모은것이였다.

철늦은 메썩순이 바구니씨날 틈사이로 뚫고들 어간것을 미루어 이 바구니가 여기에 자리잡은지는 퍼그나 여러날이 잘되는가보았다. 가을 첫시작과 함께 나타났던지도 몰랐다.

그것을 더욱더욱 내려다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보시오. 우리 농장원들의 일숨씨를, 알뜰한 주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쌀독을 맡고있기에 나는 마음이 든든합니다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아,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 흠어진 이삭을 주어넣는 하나의 바구니에서 그 사람들의 가룩한 정성을 읽으시는 우리 아버지.

어찌다 떨어진 이삭을 줍기는 지극히 레사로운 일이어서 조만해서는 남의 눈에 띄우지도 않는 일이 아닌가.

곡식을 자래우는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건만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이삭 한개에서 그것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야리시는 우리 수령님.

이 바구니는 풍년바구니이라고 거듭 대견해하시며 어느 일꾼도 눈길을 돌리지 않는 농장원들의 소박한 소행에 커다란 표창을 안겨주시지 않았던가. 그것은 비록 흠어진 이삭 하나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만이 만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믿으시였기에 그 가룩한 마음을 높이 사주시며 그토록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던것이다.

이삭주이는 옛날에는 궁여지책으로 하던 일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거두는 만풍에 비겨 그것은 참으로 옛말로 되어 버렸으니 떨어진 이삭쯤 안중에 두지 않아도 로적더미는 우뚝우뚝 하늘로 솟아오른다. 하거늘 그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여 탓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가벼운 이삭을 주어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도 무겁게 생각되시여 그리도 대견해하시었던것이라.

수령님께서는 친히 주으셨던 이삭을 《풍년바구니》에 보태시고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이 사랑 이 믿음 온 나라 농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충성의 불길을 지펴올렸던가. 이 소식을 듣고 현지로 달려간 나는 거룩한 자옥우에서 열정의 불을 날려 그들을 고무하는 여러편의 글을 썼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했건만 우리 나라 모든 농장원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가슴속에서는 《풍년바구니》가 사라질줄 몰랐다.

바로 여기 연백벌에서 그 《풍년바구니》와 마주친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멀고도 먼 현지지도의 길에 그 바구니를 보시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 불현듯 대지우에 차넘치는듯싶고 아버이의 크나큰 그 믿음을 영원히 변함없이 받들어 나라의 쌀독을 채우기 위해 한알두알 알뜰히도 거두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렇다. 수령님의 그 믿음을 안고 농사를 짓기에 이땅에는 세세년년 풍년이 들며 농민들은 자기의 열정과 힘으로 풍년나락을 안아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믿음은 곧 모든 농장원들의 숨결이고 대지이며 만곡을 자래우는 해빛이거니.

농사를 위해 인민을 위해 평생의 로고를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사랑속에 무르익은 곡식들은 무겁게 고개숙이고 그옥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만주광야의 혈전속에 첫 인민정권을 세우실 때 먼저 농민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헤아려보시였고 해방후에도 맨처음 퍼신 정치가 토지개혁 아니였던가. 전화의 나날에도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르시며 녀성보잡이군들을 만나 주신 수령님.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협동화를 이룩하시교 농촌테제의 꽃을 피우시려 걷고걸으신 자옥 온 나라 밭이랑, 논배미마다에 어리여 있지 않는가.

이렇듯 일생을 바치시여 온 나라 농촌을 락원으로 꾸려주시고도 농민들의 그 자그마한 소행마저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기에 그이께서는 그 자그마한 소행을 《풍년바구니》로 대견해 하시였고 바로 그 마음들에 받들려 로적가리는 하늘높이 솟아오르리라 믿어주신것이였다.

이 나라 농민들은 하늘같은 그 믿음을 숨결로 삼아 세세년년 억척같이 농업전선을 떠밀어왔다.

하나하나의 이삭마다에 아버지 믿음이 깃들어 있기에, 그 하나를 잃으면 배신으로 되기에 오로지 충효로만 보답하고저...

전전해 이 벌에 오시여 다음해 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연백벌 농민들의 충효의 마음 받아주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울고만 있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며 힘차게 일어섰다. 그이께 바치는 충성으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길이 받들 열망에 불탔다.

아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 나라 아버이가 되시여 온 나라 농사를 돌보신다.

이 철의 신념 만년이 가도 변치 않을것이다.

이삭 하나를 아끼는 마음들이 그리도 소중하시여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하늘같은 그 믿음을 심장에 새긴 농업근로자들이 있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농사근심 놓으시라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효자들이 이 땅을 지켜가기에 풍년은 세세년년 찾아올것이며 《풍년바구니》는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을것이다.

날알의 무게 - 이것은 지구중력이 산생시킨 물리학개념이 결코 아니다.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믿음이 날알 하나하나를 이루었거니 그 심혈과 믿음을 떠난 날알은 무게가 없다.

한줄기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금파만경이 바다처럼 설레인다. 나는 그 파도처럼 굽히는 황금물결속을 헤치며 끝없는 생각에 잠겨 걷고 또 걸었다.

주체

알렉세이 프베트코브

주체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매 발자욱
나무있도 주체의 진리를
속삭여주는듯
가없는 하늘도 탁월한 이 사상의
불멸성을 말하여주는듯

아이들의 노래속에
철길우의 기적소리속에
기계의 동음속에
어디서나 울린다- 주체
저 높은 산도 이 빛나는 사상의

위대성을 말하여주는듯
아침과 저녁도 낮과 밤도
형님과 누이도 아들과 딸도
노래의 가사도 시의 구절도
모두다 주체를 칭송한다
주체의 위업은 승리한다고
주체의 불길은 영원하다고

(필자는 로씨야 모스크바 청년주체사상연구
협회성원임)

성스러운 산에 대한 추억

움베르토 주아우 고메스

성스러운 산에 대한
추억 더듬으면
심장속에 아름다운 꽃 피어나네
혈전속에 **김정일** 각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바로 거기였어라
승리의 함성 울린곳
애국의 아름다움 피어난곳
행복의 그 별 빛을 뿌려
천하를 설레이게 한곳

우러러 그 영상 바라보니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고
조선인민의 머리우엔

따사로운 빛발 뿌러지누나
영광 영광이여라
그 별 솟아오른 성산에서
어둠이 가셔지고
온 세상이 광명을 받았으니

그이의 뜻으로
인민은 뭉치고
정의와 진리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노라

(필자는 포르투갈시인임)

시대정신의 구현과 현실주제작품창작의 대강을 휘황히 밝혀준 불멸의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 35 돛을 맞으며-

리창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우리 식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이 개화발전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우리 식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5천년 민족사와 인류문화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이러한 경이적인 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내놓으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적문예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현실주제작품창작의 방향과 방도들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1950년대말~1960년대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벽찬 투쟁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으로 불리우는 대중운동이 발생,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운동의 위력한 형태이며 방법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고 이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사회주의물질기술적대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급속한 속도와 현실속에서 배출되는 천리마운동선구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 그들에 대한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이 시기 문학에 새로운 사상미학적원천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문학은 천리마시대정신을 민감하게 잘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시대 인간들의 지향과 생활감정을 뚜렷이 형상하지 못함으로써 약동하는 천리마현실의 요구수준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의 이런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1960년 11월 27일 력사적인 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시대정신을 힘있게 구현하며 약동하는 현실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과 새 시대 인간전형창조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천리마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생활에 깊이 들어가는 문제 등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작품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혁명문학의 생명이며 주체적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그것은 시대정신을 힘있게 구현한 문학예술작품만이 혁명투쟁의 무기,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으며 시대정신을 떠나서는 문학의 생명과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작가들이 현실에 낯을 돌리며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는 우리 나라 현실의 혁명적발전과정을 본질적으로 천명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는 새것, 아름답고 숭고한것의 싹을 제때에 발견하며 그것을 열렬히 긍정하고 심오히 일반화하는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인민들에게 시대정신과 생활의 진리를

더 잘 밝혀줄수 있으며 작품의 가치도 더욱 커진다는 현대성의 미학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변천하는 현실에 대한 탐구와 시대정신의 구현으로 우리 작가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힘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현실의 혁명적발전과정을 깊이있게 천명하며 이를 위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전형적인 인간관계와 갈등으로 그려내며 그것을 철저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밝히는 견지에서 그림에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천리마의 대고조는 전진을 막아나서는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발단되고 양양되었다. 천리마의 대고조는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벌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는 새로운 사회계급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천리마의 정신을 작품에 구현하려면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그려야 함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로작에서 천리마시대를 특징짓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시대정신을 옹계 찾을데 대하여 밝혀주심으로써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실주제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는 관건적고리를 틀어쥐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다음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으로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할데 대한 미학실천적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문학에서 형상한 생산혁신자의 전형들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천리마기수전형의 특질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천리마기수형상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시었다. 특히 수령님께서서는 생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며 위대한 생활이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극성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관점에서 생활을 그림에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천리마기수의 형상창조에서 주도적특질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단주의적사상관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천리마기수들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인간성격의 소유자라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천리마기수의 성격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미학적해명으로 되었다.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사람이 끊임없는 노

력과 수양으로 혁신적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마는 생활과정을 잘 그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천리마기수의 영웅적성격을 평범한것과의 통일속에서 생활적인 발전과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그림에 대하여 깨우쳐주었으며 성격의 생활적타당성과 설득력, 견인력과 감화력을 보장한 중요한 방도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또한 문학작품에서 애정틀리를 건전하게 형상하고 자연주의적경향을 배격하며 류사성과 모방을 극복하는 문제, 가요 문학의 사상성을 높일데 대한 일련의 창작실천상문제들을 제기하시교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래는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지어야 한다시며 노래《천리마행진곡》과 같이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사상성이 높은 좋은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결함의 제반 원인들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며 이 부분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든 우리 당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는 작가들이 아니고서는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된 우리 시대의 약동하는 현실을 느낄수도, 그려낼수도 없다는 진리를 밝혀준것으로써 작가들의 관점과 립장을 당적작가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혁명하는 시대와 더불어 문학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게 한 혁명적문예사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을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현실에 적극 침투하여 새형의 인간들을 깊이 연구파악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의 기본목표는 현실속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새형의 인간들을 찾아내며 그들의 생활을 잘 연구하는데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한다는것은 벽찬 현실의 투쟁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며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을 때까지 심화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체험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천리마시대의 새 인간들과 창작가들이 혼연일체가 될것을 요구하는 현실체험의 높은 경지를 밝혀주었으며 시대적전형을 창조하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끝으로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며 창작과 지도에서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시대

의 기풍에 맞게 문학사업을 행정실무적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사업방법으로 지도하며 작품창작과 합평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작품창작에서 신비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군중속에 문학통신원을 많이 두고 로동자, 농민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풍만하게 개화발전시키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새로운 시대, 천리마의 시대 정신을 안고 새롭게 발전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도를 제시해준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천리마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탁월한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문학에서 현실주제작품창작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이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문학에서 현실주제작품창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시대정신의 구현과 시대적주인공의 전형창조문제, 그 해결방도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사업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심오하고 독창적인 해답을 주었다.

이 고전적로작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문학을 령도함에 있어서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시대정신을 투철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주제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현실주제작품창작에 큰힘을 넣으며 사회주의현실이 배출하는 긍정적주인공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전형성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하여 환히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문학의 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문학이 주제문제에서 자연생장성에 빠져 명확한 선을 세우지 못하고있었으며 성격의 리상화와 도식성을 반대한다는 미명밑에 주인공의 전형성을 약화시키고있던 조건에서 혁명문학의 원칙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2

문학작품에서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는 높은 정치적안목과 자질을 소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들어가 시대와 함께 숨쉬고 앞장서나가는 긍정적주인공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여야 하며 자질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준 이 강령적과업은 비단 이 시기 천리마기수의 형상창조에서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태어난 긍정적주인공-주체형

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창조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대강이며 항구적지침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현실주제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확인하며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천리마시대만을 고찰해보아도 이 시기 천리마현실을 반영한 시, 소설, 희곡, 영화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이 그전시기 현실주제작품에 비해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발전을 이루었다.

그것은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령복땅》,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는다》, 희곡 《붉은 선동원》, 영화문학 《정방공》, 《붉은꽃》, 가요 《천리마 달린다》, 《천리마 대진군의 노래》 등의 많은 작품들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창작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 작품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발휘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영웅적투쟁에 의해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고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질풍같이 달리는 천리마시대 영웅적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그려져있고 그속에 천리마기수들의 성격도 뚜렷하게 안겨온다.

작가들은 그 이후에도 주제적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속으로 들어가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보람차고 영웅적인 생활에서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포착하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계속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그것은 서정시 《어머니》, 《나의 조국》, 장편소설 《평양시간》, 《생명수》, 《로동가정》, 《탄부》, 《뜨거운 심장》, 《철의 신념》, 《빈터우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1~6부) 등 많은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된데서 알수 있다.

또한 창작에서 집체적지혜를 발동하는 새로운 사업체계가 나오고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창작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의 믿음직한 신진작가들이 련속 배출되어 우리 작가대렬은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제시된 혁명적문예사상과 강력적지침의 거대한 생활력을 잘 림증해주고있다.

지난 70년대이후 우리 문학에서는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선 3대혁명전위외의 형상창조문제가

새롭게 보충되었다. 또한 지난 80년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보수도 바림이 없이 누가 보건 말건, 누가 알아주건 말건 한생을 맡은 혁명업무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형상창조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미공선구자로 이름지어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긍정적주인공-주체형의 인간형상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우리 시대가 낳은 이 모든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은 주도적인 특질에 있어서 천리마기수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는바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업무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집단주의적생명관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핵을 이루고있다.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이러한 주체형의 새 인간전형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그려내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절박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주체형의 인간, 우리 시대의 전형을 찾아내고 새로운 인간문제를 찾아내어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창작해내야 한다.

창작실천은 우리 작가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과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우리 당의 의도를 제때에 알아내며 이를 문학작품의 기본내용으로, 종자로 골라잡고 실력전을 벌릴 때 창작에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비약을 일으킬수 있으며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작들을 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창작될수 있는것은 이 작품의 작가들이 매 시기 제기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과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의 의도를 제때에 민감히 받아들였으며 자기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쌓아올린 창작기량과 풍부하고 박식한 실력으로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린데 있다.

창작실천은 또한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현실주체의 작품들은 레외없이 작가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진지하

게 하고 새로운 인간문제를 탐구한 결과로 써여졌음을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체험의 진가는 작가가 현실을 아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것은 들끓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안목으로 인간문제를 포착하는데 있다. 아무리 현실에 들어간다 하여도 자질이 낮고 문학적소양이 부족한 작가는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창작과 떼어놓을수 없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들어가되 인민대중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생활속에서 새로운 인간문제를 탐구할 높은 정치적인안목과 창작적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은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신도덕적특질인 수령에 대한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을 품위있고 진실하게 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렇게 하자면 장중편소설이나 장막희곡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이야기줄거리도 수령에 대한 주인공의 충실성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엮고 전개하여야 하며 서정시나 단편소설, 단막희곡 등 작은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시대정신이 힘차게 발현되는 생활단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부화하여 주인공의 참다운 충실성의 표징가운데서 그의 성격적특징이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되고있는 생활을 파고들어 형태상, 양식상 특성에 맞게 그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충신, 효자들인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충실성을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감명깊게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사람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서 잘 형상하되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 파고들어 아름답고 숭고한 미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우리 시대의 영웅을 형상하는데서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기상천외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출신의 근로자이며 가정과 직장에서 남들처럼 살며 일하는 보통인간임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면 값 높은 위훈을 세울수 있고 영웅이 될수 있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인민들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옹계 그리는것

이다. 날에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대를 장식하는 우리의 1990년대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도의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혁명적 의리와 본분으로 여기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1990년대 인간들이 지닌 삶의 철학이 있고 주체적미관이 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삶과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끊임없이 찾으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뵈옵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의 미래도 찬란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대, 만대를 두고 영생하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위

업수행에 한결같이 펼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미관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생겨난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1세대와 2세대에 의하여 형성되고 고수되어왔으며 앞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될 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나라에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그려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길에서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영원한 배움터

원흥식

수림속 맑은 이슬도 억만구슬인양
아침해살 어려 반짝이고
온갖 새들 날아와 목청 가다듬어
고운 노래 펼치는 청봉

한포기 풀
한그루 나무
길가의 조약돌 하나에도
투사들의 숭고한 녀 깃들어있어
걸음걸음 마음도 뜨거워라

샘터지나 밟짓던 자리
칼도마앞에 조용히 다가서니
숲속 어디선가 혁명군녀전사
물 묻은손 그대로 귀밑머리 쓰다듬으며
정겨운 미소 안고 나라날것만 같아

하루밤 쉬고 갔다기엔 믿기 어려워
우등불 솟무지에 손을 얹으면
따스한 온기 그대로 감촉되니
여기서 정들어 몇십년을 살다가
방금 떠나간 흔적이런듯

이제 산마루에 달려오르면

대오앞에 나뭇기는 붉은기가 보일듯
두주먹 부르짖고 뛰어내리면
나도 그 대오의 맨뒤에 따라설듯

하루밤 쉬여간 숙영지에도
세월의 눈비에 씻기지 않고
사나운 폭풍에도 날리지 않은
생활의 참된 자옥 빛나거니

청봉이여
아름드리나무의 구호문헌 글발도
투사들의 웨침으로 이 가슴 울려주는
력사의 빛나는 성지여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된 영광
신념과 의리를 빛내려거든
백두의 생활방식 그대로 살라고
그대는 말없이 가르치고있나니

아, 청봉숙영지
그대는 혁명의 3세, 4세만이 아니라
먼후날 태어날 세대들도
대를 이어 따라배울
투쟁과 생활의 영원한 배움터여라

소백수굴의 부루(상추)

항간에서 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 수령님께서는 부루로 씹을 싸서 잡수시는것을 몹시 즐기셨다고 한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유격대원들은 이것을 알고 혹시 부루가 생기면 장군님께 대접해드리곤하였는데 그이께서는 그것을 매번 대원들과 함께 잡수시었다고 한다.

당시 산속에서 부루는 몹시 구하기 힘든 남새로서 귀물로 여기고있었다.

늘 전장터에 있는 몸이라 부루를 심어 가꿀수도 없었고 혹 근거지안에서 심으려 해도 종자가 부족한데다가 그것마저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에 와계실때는 부루쌈을 자주 잡수시었다고 한다.

어떻게 해발 1,500미터가 훨씬 넘는 소백산의 깊은 수림속에서 부루를 구할수 있었을까?

한 항일투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대로 전설이다.

소백수굴에 밀영을 지은 초시기,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경위대원들은 가까운곳에 자그마한 남새밭을 일구었다.

여기가 고산지대라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였으나 조국땅에 처음 비밀근거지를 세운 그들은 혹시 무우나 배추, 부루 같은 남새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들은 배추와 부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종자들을 구해다가 조금씩 심어보았다.

씨앗을 뿌린후 경위대원들은 매일아침 밭에 나가보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씨앗에서는 싹이 트지 않았다.

대개가 얼어죽었거나 말라죽었고 몇개 싹이 튼것마저 인차 사그라들고말았다.

《여기도 고산지대가 돼서 남새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한 젊은 경위대원이 나이지숙한 대원에게 말하였다.

《글쎄, 그래도 한번 더 심어보지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또다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었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물도 주고 저녁마다 밭에 섰을 덮어 추위도 막아주면서 갓난아이처럼 애지

중지 돌봐주었다.

그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씨앗에서는 움이 트더니 땅위로 일제히 뿔뿔뿔 싹이 내돋기 시작하였다.

경위대원들은 너무 기뻐서 노상 남새밭에 나가 살았다. 남새밭에서는 김 한대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새모 몇포기가 노랗게 되면서 잎이 가드라들었다. 그것은 배추모들이었다.

이어 무우모들도 노랗게 되더니 얼마후엔 모두 죽어버리었다.

그래도 부루모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나중엔 그것마저 죽었다.

정말 여기선 남새를 키울수 없단 말인가?

부루만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경위대원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였다.

부루만이라도 심어 가꾸어서 장군님께 대접해드리고싶었다.

그들은 멀리 인가에 내려가 추위에 잘 견딘다는 새로운 부루종자를 얻어왔다.

밭을 두지고 씨앗을 뿌린 그들은 또다시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섰을 덮어주면서 정성을 다해 가꾸었다.

며칠이 지나 씨앗에서는 움이 트더니 다시 뿔뿔뿔 싹이 자라올랐다.

부루모는 점점 자라더니 애잎우에 진한 물색의 새잎이 돋아나고 그 새잎은 제법 돈잎만해졌다.

《야!- 부루가 새잎이 돋았다!》

경위대원들은 기뻐서 아이들처럼 정충정충 뛰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부루쌈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등 기쁘기만했던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변덕스러운 백두산날씨는 그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주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려 자라오던 부루를 모두 얼구어죽였던것이다.

경위대원들의 가슴은 몹시도 아팠으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하공작원들을 통하여 남새 가꾸는 기술에 대한 책들도 얻어오고 지어는 남새농사를 잘 짓는다는 로인을 찾아가 그 경험을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 그들은

밭에 또다시 내한성이 강한 부루종자를 얻어다가 심었다.

이번엔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하나하나 따져 가며 정성을 다해서인지 부루는 애잎우에 새잎이 돌아나고 그것이 어느덧 어린 아이 손바닥만해졌다.

부루잎이 커지는것과 함께 경위대원들의 기쁨도 컸다.

그런데 이번 역시 또 부루농사를 망치고말았다.

웬일인지 애기손바닥만하던 부루잎이 더 크지 않고 나른해지더니 말라죽고말았다. 아무리 물을 뿌려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인젠 부루심는것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봄이었다.

밀영에 계시던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이 부루를 심다가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아시고 친히 밭으로 나가시여 호미로 다시 땅을 일구시였다.

경위대원들이 김정숙동지께 일기조건때문에 부루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거듭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한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고 하시면서 밭을 다 일구어놓으시였다.

조금 있더니 김정숙동지께서는 귀틀집에 들어가셨다가 어리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다시 밭에 나오시였다.

어리신 그이의 손에는 자그마한 봉투가 들려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 드릴 부루인데 네가 씨를 뿌려라.》

김정숙동지께서 친애하는 그이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 제가 뿌리겠어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봉투에 든 부루씨를 이랑을 따라가며 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 일구어놓은 밭에 부루를 다 심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한 경위대원이 밭에 나갔다가 부루가 파릇파릇 돌아난것을 보고 소리쳤다.

《부루가 나왔다!-》

모두 밭으로 달려가보았다.

붉은빛풀색의 부루는 여러개의 새잎이 꽃잎처럼 돌아났는데 눈으로 보기에에도 전에 나오던 부루와 확연히 달랐다.

하루이틀이 지나자 부루잎은 돈잎만해지고 사흘이 되자 애기손바닥만해졌다.

경위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기들이 심었을 때엔 며칠 못가서 죽고말았는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씨앗을 뿌리신 부루는 푸르싱싱 잘 자라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날씨도 전과 같이 번덕스러워 눈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어 기온이 떨어져 땅이 얼기까지 하였으나 부루밭에서는 붉은빛풀색의 부루잎이 이들이들하게 자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 넓은 부루잎을 따서 샘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경애하는 장군님의 진지상에 놓아드리시였다.

부루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이 부루가 어디서 났소?》 하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농사를 지은것이라고 말씀드리시였다.

《소백수풀에 부루가 이렇게 잘되오? 참 희한한 일이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루쌈을 맛있게 잡수시였다.

경위대원들은 기뻐하면서도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에도 한해에 몇번씩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부루를 심어 가꾸시였다.

그때부터 소백수풀에서는 부루농사가 잘되었는데 이상한것은 그후엔 경위대원들이나 다른 유격대원들이 부루를 심어도 죽지 않고 잘 자랐던것이다.

지금도 백두산밀영답사숙영소나 새로 생긴 소백수 마을에서는 터밭에 부루를 심곤하는데 매우 잘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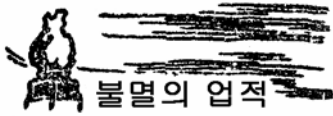
식물학적으로 볼 때 국화과에 속하는 부루는 기본뿌리와 곁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나 땅에 얹게 뻗고 잎넓이가 크기때문에 가물에 견디는 성질이 매우 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소백수풀과 같이 고산지대에서, 그것도 매우 일기조건이 불순한곳에 부루가 잘 자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몇해전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백수풀에 다른 남새는 안돼도 부루농사만은 잘된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 부루를 심어 가꾸시던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소백수풀에 심으신 부루가 각별히 잘된것은 장군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의 마음이 일으킨 조화가 아닐가?

오늘도 백두산밀영을 찾은 답사자들은 숙영소의 식탁에 오른 부루를 보면서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어한다.



예지의 빛발은 불멸의 송가에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김일성**민족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음악사에 가장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오늘의 이 시대를 노래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영상이 어려오고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만년 받들어 모시려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울려나오는 명가사며 승엄한 격정에 잠겨들게 하는 폭이 있고 장중한 선율로 하여 노래는 송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있다.

세계가 경탄속에 부르며 만민의 아버이를 칭송하는 이 송가도 시대의 모든 명곡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손길아래서 세기를 두고 불리워질 국보적인 가요로 태어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시대의 걸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신 내 나라의 어디서나 세찬 격정을 일으키며 하늘 땅에 메아리쳐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창작가들은 시대를 담고있는 이 전인민적송가창작에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예지의 손길을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겨보군한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험난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신 우리 수령님. 인민이 주인된 력사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업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

아버이수령님의 태양의 품속에서 살며 자라난 우리 인민은 자나깨나 수령님을 잊지 못해하며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꿈속에서도 수령님의 그 품을 부르며 찾고 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바쳐간다.

세월이 갈수록 인민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그리움은 곧 수령님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이고 불변의 의지이며 그것은 이 나라 어디에나 흐르고있는 하나의 사상감정으로 되었다.

언제나 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안으시고 세기를 밝혀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 바치는 인민들의 열렬한 충효의 마음이

장엄한 현실을 이룬 이 시대를 노래에 담도록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었다.

시대를 노래하고자 흥분해있던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그이의 높은 뜻을 안고 송가를 창작하는 사업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과 수령님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한자한자의 글줄에 담으며 지혜를 모았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속에 깔려있는 요점을 바로 세우지 못한채 서둘러 가사를 내놓았다

1995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창작가들이 만들어올린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를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노래를 오늘날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영원할 인민적송가로 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세심히 보아주시었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새겨보시며 먼 후날에도 인민들이 지니게 될 사상감정을 오늘의 시대정신에서 그려보신 그이께서는 가사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었다.

한평생 인민 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가사에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라는 글줄에 친히 밑줄을 그어주시고 방점은 여기에 있다고 가사의 종자를 부각시켜주시었다. 그러시면서 2절을 반복하여 3절을 다시한번 더 부르게 할데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시대의 사상감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은 작가들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그이의 필적이 스며있는 가사에서 자신들의 안목이 얼마나 협소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시대의 가장 깊은곳에서 흐르고있는 주도적감

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을 자나깨나 잊지 못해하며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한 인민의 수령으로 모셔갈 철의 의지를 안고있다.

그 신념과 의지에 받들리어 어버이수령님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억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변치 않을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세월과 더불어 더더욱 강렬해질 시대의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쳐주신 대목을 되새겨보며 노래의 전반내용을 음미해볼수록 노래가 담고있는 거대한 폭과 깊이가 더욱 심오해지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뚜렷이 안겨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노래가 담고있는 사상감정에 맞게 제목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고쳐주시였다.

하여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수령님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격앙된 감정이 차오르고 주체의 내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무궁토록 빛날것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력력히 느껴진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노래를 제목에서부터 종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여 완성시켜주시였고 작가들의 친근한 스승이 되시여 그들이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찾아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이 노래를 여러 차례 들어주시면서 노래가 명실공히 시대의 명곡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노래로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심혈을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현실에서 작가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노래를 완성시켜주시고도 곡과 가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모두 창작가들에게 안겨주시였으니 더더욱 목이 메는 그들이였다.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들을수록 좋고 더 듣고싶은 노래라고, 노래가 장중하면서도 친근한 감을 준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이 노래는 완전히 성공한 노래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신 어버이장군님.

가사에 들어있는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 오늘도 그 꿈을 찾네》라는 구절이 좋다고 작가들을 치하해주시며 당가 갈기도 하고 국가 갈기도 한 무게를 가지는 노래로 그 가치를 여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접하였을 때 그들은 위대한 스승의 품에 안겨 시대를 구가하는 인민의 나팔수가 된 무한한 걱정으로 하여 가슴은 세차게 뚫어번졌다.

하기에 그들은 지금 한결같이 이렇게 웨치고있는것이다.

《문학예술의 거장이시고 우리 창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품이 있어 시대를 빛내이는 명곡들이 태어나며 시대를 안은 작가들의 웨침이 울려나올수 있다》고.

가사

사랑의 걸음

김웅희

한걸음 걸으시여도 인민을 찾고
또 한걸음 걸으시여도 초소들 찾네
조국의 운명안고 인민의 행복안고
장군님 걸으시는 걸음걸음은
아 사랑의 사랑의 걸음

한걸음 걸으시여도 수령님 생각
또 한걸음 걸으시여도 인민들 생각
조국의 운명안고 인민의 행복안고

장군님 걸으시는 걸음걸음은
아 사랑의 사랑의 걸음

눈비가 내리여도 헤쳐가시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이어가시네
조국의 운명안고 인민의 행복안고
장군님 걸으시는 걸음걸음은
아 사랑의 사랑의 걸음



사업의욕

위대한 정열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기질적특징의 하나는 무한정한 사업의욕이다. 다시말하여 일욕심이 많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일욕심이 많으셔도 보통으로 많지 않으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년시절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회상에 의하면 그이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일욕심이 남다르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같은 또래의 동무들에게 사람이 물건이나 돈을 놓고 욕심을 부리는것은 나쁘지만 일을 놓고 욕심을 부리는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은 일욕심이 있어야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양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꽃밭가꾸기며 트랙을 거두는 일을 도맡아하달십이 하셨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무한대의 사업의욕은 이처럼 벌써 어리신 시절부터 몸에 배고 성장과 더불어 굳어진 천성적인 성품이었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오늘도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하시고 또 사업하시고도 만족을 모르시고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아쉬워하시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자신께서는 일이 곧 휴식이며 손에 일감을 잡아야 마음도 편하고 기운도 더 솟는다고 하신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넘려하여 휴식을 권유하는 일군들보다도 일감을 많이 가져다주는 일군들을 더 좋아하신다.

한 일군이 《일감》때문에 떼뒀던 《점수》를 《일감》으로 되찾았다는 일화도 그러한 레들중의 하나이다.

1976년 4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어느 한 설계집단을 책임지고있는 이름있는 설계가인 그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그무렵 일군들의 간청으로 얼마동안 집무실을 떠나 어느 한곳에서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계시었다.

많은 사업을 안으시고 불철주야로 사업하시기에 그무렵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더는 안정하지 않으면 안될 극도의 파로상태에 처하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경애하는 그이께 다문 며칠만이라도 안정하실것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 애원이 어찌나 절절하고 간곡한지 그이께서는 어쩔수 없이 수락하시게 되었던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시고도 집무실에 게실 때나 다름없이 사업만은 잠시도 중단하지

않으시었다. 다만 연줄로 걸어오군하던 전화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군하던 일군들의 출입이 좀 드물어졌을따름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설계일군은 그이께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으므로 어떤 《일감》을 가지고 갈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에 따라 준비하고있는 여러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보시고 결론을 주셔야 할 도면과 문건들은 여러건 있었다.

그러나 생각끝에 그는 아무 도면도 문건도 가지고가지 않기로 하였다.

이미 올린 도면도 있는데다가 그이께 무리한 부담을 드릴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그가 오기를 기다리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빈손으로 왔다는것을 아시고는 여간만 서운해하지 않으시었다.

《원, 빈손으로 오다니.》

그이께서는 《휴식》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면서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데 있는가, 나는 동무가 그렇게까지 《린색》한 사람인줄 미처 몰랐다고 말씀하시었다.

릉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기대에 어긋난데 대한 질책이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실줄 몰랐던 설계일군은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며 말씀을 드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여기에 계시는 기간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이없으신듯 소리내여 웃으시었다.

《...동무는 정말 고지식합니다. ...동무는 그렇게 고지식하다보니 <아침> 할줄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응접탁에 두무지로 갈라 무드기 쌓아놓은 여러가지 문건들을 가리키시며 오늘아침에 아무개와 아무개가 보내온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대식가는 먹을것을 가져다주어야 좋아하고 물욕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찢러주어야 좋아하며 일욕심이 있는 사람은 일감을 안겨주어야 좋아합니다. 나는 아침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감을 안겨주는 그런 <아침> 이라면 아무때나 기꺼이 받아줍니다.》

여전히 롱조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만에야 쌓여있는 문건무지를 바라보

며 말씀드렸다.

《다문 며칠동안만이라도 모든것을 잊으시고 쉬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도 정색을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손에서 일감을 놓으면 몸살이 나서 못견딜것만 같습니다.》

이때 한 일군이 문건은 안고 들어왔다.

그 일군이 드리는 문건을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언제까지 봐주면 되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급히 결론을 받아야 할 문건인것 같았으나 차마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듯 그 일군은 머뭇거리었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그럼 좀 기다리라고, 저때 봐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저 문건을 다 보시고 결론까지 주시자면 퍼그나 시간이 걸리겠구나.)

설계일군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그 부피많은 문건을 다 보시고 결론을 주시기까지는 불과 몇분이었다.

그 일군이 나가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저 동무는 언제 봐도 일욕심이 많다, 나는 저렇게 일욕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는 오늘 나를 생각해서 도면을 안가져왔다는데 그 때문에 도리어 나한테서 《점수》를 떼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 일군이 얼마전에 이미 올린 도면은 다 보아주시고났을 때는 벌써 오전 한것이 다 지나가고있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도면을 가지고 왔더라면 더 볼수 있는것을 그랬다고 거듭 서운해하시면서 완성된 도면이 있으면 아무때고 가져오라고 이리시었다.

그때로부터 이틀후였다.

이날 그 설계일군은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이의 구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여러 중요건설 대상들에 대한 설계도면을 봐주시겠다는 련락이였다.

전날의 《실책》을 잊지 않은 그는 무려 10여건이나 되는 도면을 안고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많은 《일감》을 안고간 그를 보시자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그가 가지고간 도면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가르치심을 주시고났을 때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간 뒤였다.

그는 그이께 너무 무리한 부담을 드린데 대한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절절히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오늘은 더 사업하지 마

시고 쉬셔야 합니다.》

《또 그 소리입니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상냥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하고싶어 하는 일은 힘들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나에게는 일하는것이 휴식입니다. 나는 일을 하여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이 밀릴 때에는 힘든줄 모르다가도 어쩌다 일감이 떨어질 때가 있으면 마음이 별로 불안스럽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동무가 가져온 설계도면을 보면서 휴식을 좀 하였습니다. 나는 설계도면을 보면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머리로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그러시고는 전날에는 도면없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점수》를 떼웠는데 오늘은 일감을 안고 왔기때문에 떼웠던 《점수》를 봉창했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일감》때문에 떼운 《점수》를 《일감》으로 되찾았다는 이야기인즉 이리하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이처럼 사업의 욕이 왕성한분입니다.

이런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시고 하루를 시간으로, 시간을 다시 분과 초로 쪼개가시며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시는것이다.

낮이면 낮대로 수많은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고 여러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도 지도하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밤이면 밤대로 아래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사업보고들과 당보의 사론설, 작품원고에 이르기까지 손수 검토가필하시면서 동트는 새벽을 그대로 사업으로 맞이하시는 그이이다.

그러시면서도 그이께서는 하신 일이 성차지 않으신듯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셔도 회의장에 가서도 언제나 두툼한 가방에 문건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며 달리는 차안에서도 보시고 회의장휴게실에서도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문건이 나날이 많아짐에 따라 가방을 네번이나 크게 다시 지어드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방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이런 일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데 가실 때면 꼭 가방을 가지고 떠나시는데 자크를 채울수 없으리만큼 가방이 불룩해야 흠족해하신다.

물론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 가방이 차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이께서는 세상에 빈 가방을 들고다니는것보다 더 멋진 일이 없다고 하시며 여러 부서에 채근하시어 《일감》을 모아서 기어이 가방을 채워가지고셔야 길을 떠나시었다.

한번은 하루사이에 다녀오셔야 할 매우 긴장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면서도 차크를 채우지 못하리만큼 많은 문건이 찬 가방을 들고나오시는 그이께 한 일군이 지난밤에도 꼬박 밝히셨는데 달리는 차안에서까지 쉬지 못하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아예 가방을 두고 떠나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가방을 차안에 건사하시며 어떤 사람들은 길떠날 때 도중식사를 넉넉히 준비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방이 불룩해야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룡담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의미가 심장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일욕심이 많은 신분이시다.

일욕심을 천성적인 기질로 간직하셨기에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평도하시여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고도 그에 조금도 만족을 모르시고 오늘도 하많은 사업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것이다.

문앙리의 산당집이여!

서진명

산굽이를 돌고돌아 몇백굽이던가
령너머 막다른 골안 언덕말기의 집
어둡던 그 세월 산그늘에 가리워
세상을 등지고 외로이 서있던 집
오늘은 만사람이 찾아드는 력사의 집이여

심산유곡을 울리는 물소리와
산당지기 내외의 억눌린 한숨소리
등잔불에 그슬려 더욱 거뭇던 살창문에
문노니 그 언제부러나
광휘로운 삶의 햇빛 비쳐든 그날은...

홍안의 청년 김형권동지
무명바지 저고리 옷차림은 수수해도
보는이의 마음까지 꿰뚫어보실듯
정의로 불타는 눈에 높은 뜻 어려있어
대뜸 귀한 손님으로 반겨맞은 집

안방에는 오늘도 놓여있구나
칠바랜 소반과 그우에 그릇가지들
파말리의 총성으로 일제를 전술케 한
혁명군어른을 맞는 감격은 커도
궁색한 살림이라 귀밀과 감자뿐
소반을 차리며 얼굴 붉히던

주인아낙의 후더운 진정 어려있는 집이여!

배덕골과 대바위골
찾으시는곳마다
숫구리로동자들의 가슴에 백두산을 안겨주시고
갈길 몰라 헤매던 겨레의 마음속에
광복의 려명을 비껴주시며
이 집에 계신 나날은 그 몇날

아 집집마다 창문은 있어도
밝은 햇빛이 비길줄 모르던 민족수난의 그날
하많은 집들중에 맨 처음

김일성장군님 밝혀주신 광복의 려명을
살창문 환하도록 비껴안았기에
리원 문앙사적지의 산당집이여
너는 오늘 외진곳에 홀로 있지 않구나

행복한 오늘 위해
혁명의 초행길을 피로 헤치신
김형권동지의 불굴한 그 모습으로
흐르는 세월을 거슬러
너는 우리들의 마음속가까이
솟아 높이 솟아 빛나고있구나

병진년의 단군릉분향식

김정설

병진년인 1916년 10월 3일 이른새벽이었다.

새벽이 반짝이는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올 무렵 강동군 고비리 불당골마을에서 뻗어나온 큰 길로 한 로인이 걸어나오고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었으나 흰 두루마기와 감투차림을 한 로인의 허우대는 퍼그나 강대해보였다.

가을철이라 쌀쌀한 새벽바람은 로인의 흰수염 발과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었다.

한동안 걸던 로인은 메산자로 짚어진 자그마한 등짐을 한손을 돌려 어루만져보며 허구프게 웃었다. 방금 지치여 넣은 지짐당지깨에서 내배이는 따스한 온기가 잔등에 스며들자 그것을 싸넣어주며 하던 로친네의 푸념이 되살아나서였다.

이 로인의 성은 김씨라고 하는데 오늘이 개천 날이어서 단군릉에 참배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 길차비로 옷을 빨아 다듬질을 한다, 제사음식을 만든다 온밤을 지새운 그의 로친은 정작 로인을 떠내보내는 이 새벽에 끝내 또 한마디 붙이고야말았다.

《인젠 다산 몸인데두 왜 이리 해마다 더 부득 부득 극성인지… 원.》

《또 푸념인가? 백성의 도리라지 않아.》

《그게 우습지 않수. 나라두 없다구 한탄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제 혼자 백성의 도리, 도리하니 말이웨다.》

《남의 속내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거나 해.》

김로인은 이렇게 통명스레 씩붙이고 사립문밖으로 나왔던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로친의 푸념이건만 자기를 그 처럼 위해주는 로친네까지도 이제와서 단군릉에 찾아가는 자기를 마다한다고 생각하니 야속스러웠다.

김로인이 개천날마다 어김없이 단군릉에 찾아가는것은 즐겁고 기뻐서가 아니었다.

로친네 말과 같이 나라두 없구 누구도 관심치 않아 외로워져만 가는 배달민족의 시조인 단군성제께 참배하러 가는 길은 김로인에게서 가슴쓰라리고 피로운 길이었던것이다.

김로인이 처음으로 단군릉에 참배하러 가게 된것은 옛날 할아버지에게 업혀 동네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였고 그후 혼자서 매해 빠짐없이 찾기 시작하게 된것은 조선군사로 서울에서 복무하다가 1882년 《군인폭동》때 부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뒤였다.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단군릉에 찾아가던 때는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것이다. 그때에

는 이날이 오면 마을 유지들과 백성들이 제사음식들을 실어다 분향식을 진행하였다. 그때 우리 배달민족에게 혼을 주고 살곳을 주고 문화를 주신 단군성제께서 돌보아 반만년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번성한다고 축문을 읽거나 빌 때면 김로인은 서울에서 조선군사로 복무할 때 일제의 교관과 군사들에게 받은 민족의 치욕과 수치로 멧진 마음을 어느정도 풀어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뒤 개천날마다 단군릉을 찾아오는 김로인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나라가 망하였으므로 이곳 마을의 몇몇 늙은 농사군들에 의하여 지내는 분향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롱지기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퇴락되는 룡과 허물어져가는 수호전은 김로인의 마음을 쓰리게 하였다.

김로인은 바로 이런 쓰라림과 통탄으로 하여 이날도 로친네의 지청구도 마다하며 또 길을 떠난것이다. 김로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들길을 지나 내물도 건느면서 강동으로 뻗은 누런 신작로로 들어섰을 때는 어느덧 동녘에 해가 솟아 누리를 밝게 비치고있었다.

아직 이른아침이어서 누런 신작로에는 얼씬하는 사람이 없었다. 김로인은 다리쉬임을 하려 길옆에 앉았다.

얼마간 땀을 들이며 앉아있을 때였다.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나더니 몇몇 젊은이들이 큰길에 나타났다. 모두 흰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20대의 꼴꼴한 젊은이들이었다.

젊은이들을 한번 힐끔 바라본 김로인은 슬며시 돌아앉았다.

그러나 로인은 그들이 바로 단군릉을 찾아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을 모시고가는 젊은이들이라는것을 알리 없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날을 맞으시기 위하여 이해봄에 벌써 각계각층의 젊은이들에게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으로 온 민족을 하나의 민족의 얼로 묶어세우는데서 《단군릉분향식》이 가지는 의의를 늘 말씀하셨고 성천군 룡중면 창의리에 있는 윤병겸의 형제를 찾으시여 그 진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치시였을뿐아니라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을 또다시 만나시여 단군릉분향식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오늘은 젊은이 몇명과 같이 단군릉으로 향하시는 길이였다.

언제나 다심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길가에 쉬고있는 김로인을 보시고 그냥 지나지 않으셨

다.

《로인님은 어데 가시기에 이렇게 새벽길에 오르셨습니까?》

그러나 김로인은 심드렁해서 대답했다.

《오늘이 개천날이니까.》

김로인이 젊은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좀 알고다니라는 충고의 뜻으로 한 대답이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 단군성제릉에 찾아가는 길입니다.》

《뭐라구?》

김로인은 뜻밖의 말에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근래에 와서 젊은이들이 단군릉에 찾아간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게 정말인가?》

김로인은 흰칠한 키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신 인정미 넘치는 김형직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로인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가십시오. 여럿이 걸으면 길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며 가느라면 걸음도 한결 가벼우실것입니다.》

《고마우이.》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일어나려는 김로인의 팔을 부축하시었다.

《단군성제릉에 찾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니 기쁘구만.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런 걸음을 하게 되었나?》

《배달민족의 젊은이들로서 응당한 도리가 아닙니까?》

《하긴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그런 도리를 지키지 못하지.》

《어째서요?》

《지금 살판치며 돌아치는 왜놈들이 단군성제릉엘 찾아다니는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일세.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시조를 섬기는데 극성스럽던 량반부자들이 얼씬하는줄 아나?》

《하지만 로인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나야 이젠 다산 몸이야. 그간놈들이 곱게 보나 밋게 보나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리구 제 땅 두 없이 호미 한가락밖에 없는 나같은 신세가 이상 더 달라질게 뭐가 있겠나. 그러니 나같은 사람까지 찾아가 참뵈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단군성제님의 일이 아예 끊어지고말것이 아닌가.》

《로인님, 참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나라는 망했어도 백성들이야 제 시조조상의 얼은 잊지 말아야지.》

《옳습니다. 오늘엔 한두사람이라 할지라도 래일엔 이삼백이 되구 다음엔 이삼천으로 늘어 모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민족의 시조가 있구 우리의 력사가 있구 우리의 말이 있다

는 긍지를 지니여간다면 민족의 얼은 이어갈것이 구 민족의 얼이 드높아지면 진정한 우리 나라도 다시 광복될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허나 그런 날을 내 생전에 어찌 볼텐고.》

《그날이 그리 멀겠습니까?》

《하긴 멀지 말아야지. 하하.》

호탕하게 웃던 김로인은 어느 한 마을이 나타나는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벌써 예까지 왔다. 자네들과의 말장단에 정말 어느새 길이 줄었군그래. 이젠 단군성제릉까지 거의 다왔네. 여기서 자네들 먼저 가게.》

《왜요?》

《저 마을에 내 동생이 있네. 데리고 가야겠네.》

《그럼 들렀다 오십시오.》

마을길로 들어서던 로인은 돌아서며 소리쳤다.

《가만 인차 따라가겠으니 같이 제살 지내세.》

《네. 기다리겠습니다.》

김로인은 동생의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재촉했다.

《다 준비됐나?》

《네.》

《그럼 어서 가자.》

《아니 형님, 다리쉽도 안하시구요?》

《그럴 사이 없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다.》

《누구길래요?》

《이자 오다 만난 젊은이인데 단군릉분향식에 오는 길이야. 젊은이로서 단군성제릉에 오는것만 두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됨됨이 여간이 아니드라.》

《어데 사람인데요?》

《어데 사람인가구? 글썄 그건 또 미처 물어보지 못했구나.》

《이름은 뭐랍디까?》

《이름? 그건 알아 뭘하겠니. 이제 만나겠는데.》

《참 형님두, 주소성명두 모르구 만나자구 했수?》

《아니 개천날에 젊은이들이 몇이나 온다구 못 찾겠니.》

《그럼 떠납시다.》

김로인은 동생과 함께 제사음식을 한짐씩 지고 집을 나섰다.

《너 이제 그 젊은이를 만나보아라. 들을 말도 많거니와 배울 점도 많더라. 그리구 신심도 생기구. 아마 오늘 그 젊은이와 제사를 지내면 쓸쓸하구 괴롭던 마음도 다 없어질게다.》

김로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산기슭을 돌아 단군릉 서쪽에 있는 단군호근방으로 왔을 때였다.

그들은 여기서 한눈에 안겨오는 단군릉이 있는 큰 함지같은 분지를 바라보다가 놀랐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분비고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시우?》

《그러게말이다.》

김로인형제는 놀라운 광경을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바라보고있었다.

지난번 개천날만해도 몇몇 사람들이 단군릉 주변에 도는것이 보이고 백마문과 비석거리는 한적하여 흰비석들이 뿌리는 찬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한산하게 하여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단군릉앞공지뿐만아니라 백마문과 비석거리 주변에도 가득찼고 남쪽 수정천가에도 사람들로 덮여있었다.

《아니 이거 오늘은 나라에서 개천절을 쇠는게 아니우?》

《아니 나라가 어디 있기에 개천절을 쇠단 말이냐?》

《그럼 왜 저리 사람들로 꽉 찼겠수?》

《하여튼 오늘 무슨 변이 있긴 있는가부다. 어서 가보자.》

김로인형제는 반달음으로 백마문가에 이르러서는 비석거리에서 서성대고있는 젊은이들한테로 갔다.

《여보게 말좀 묻게나. 오늘 이게 웬일인가?》

《오늘 분향식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온 나라 젊은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조직하셨습니다.》

《뭐라구? 김형직선생님께서? 그분은 서울에서 오셨나?》

《아닙니다. 평양에서 오셨습니다.》

《평양에서? 무슨 벼슬을 하시는분인가?》

젊은이들은 웃고나서 대답했다.

《그분은 만경대가 고향이신데 지금은 봉화리에 오시여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계십니다.》

《그래 그분도 오늘 분향식에 참가하신단가?》

《예. 이자 방금 오시여 각 지역 대표들을 만나시고있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가리킨곳은 단군릉공지에 수백명의 사람들로 에워싸인곳이었다.

김로인과 동생은 그리로 발길이 옮겨졌다.

세상이 바뀌운듯 개천날을 이처럼 들끓게 만들어놓은분이 과연 어떤분일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김로인이 동생과 함께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갈때 김형직선생님께서 단군릉을 돌아보고계시였다.

단군릉과 그 주변은 며칠전부터 이곳에 와 분향식준비를 하던 젊은이들에 의하여 말끔히 거두어져있었다.

물을 뿌리고 말끔히 벌초된 룡봉분과 주변의 잔디는 누런 주단으로 덮어놓은듯 정결했고 룡양의 상돌과 그 량귀앞에 놓여있는 돌사자도 해빛에 드러났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대표들과 함께 룡을 다 돌

아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여러분, 나는 오늘 새벽길로 이곳으로 오다가 우연히 단군릉분향식에 찾아오시는 한 로인을 만났습니다. 로인님은 단군릉분향식이 쇠락되어서 이 땅에 배달민족의 일이 사그러져가는것 같아 가슴아파 통탄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로인님께서서는 꺼져가는 민족의 일을 이어보자구 호미 한 자루밖에 없는 살림이고 허리굽은 늙으신 몸이었으나 매해 빠짐없이 단군릉분향식을 치르어왔으며 오늘은 신새벽에 이곳으로 오시고계셨습니다. 나는 이 로인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일이 살아있는것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이때 나는 오늘 우리들의 발기로 단군릉분향식을 젊은이들로 말아하자는것이 우리 민족과 시대의 요구였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되였습니다.》

《아니 형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시우?》

김로인동생은 김로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김로인은 긴장해진 얼굴, 휘둥그레진 놀란 눈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저분이야. 바로 저분이...》

《정말이예요?》

《틀림없어. 그 젊은이가 이런분일줄이야.》

김로인의 형제가 놀라면서 김형직선생님을 바라보고있을 때 한 젊은이가 김형직선생님께 다가갔다.

《이젠 올 사람이 다왔으니 분향식을 시작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시작합시다. 그런데 이자 내가 말한 그 로인이 우리와 같이 분향식을 하자고 약속을 하였으니 좀 찾아봅시다.》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에 김로인은 그자리에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었다.

《여기... 왔수...다.》

김로인은 이렇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헤집고 나섰으나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수 없어 그만 김형직선생님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아니 로인님, 벌써 오셨군요.》

김형직선생님은 두팔을 벌리고 김로인에게로 다가오시였다.

《김선생!...》

김로인은 김형직선생님의 두팔에 몸을 맡기고 안기며 흐느끼였다.

《왜 이러십니까?》

《...내 생전에... 이런 개천날을 보지 못할줄로 알았는데 김선생님께 의하여 보게 되었으니 인연이 없소이다.》

김로인은 김형직선생님의 품에 안겨 오래도록 흐느낌을 그칠줄 몰랐다.

얼마후에 분향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병진년 개천일 단군성제께 분향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자 드디어 단군릉분향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분향식은 단군릉분향식 준비성원들에 의

하여 나이많은 로인들과 젊은이들의 배합으로 찬례자, 집사자, 향피우는 사람, 축문읽는 사람, 첫째잔, 둘째잔, 셋째잔을 드리는 사람들을 다 정하여 옛격식대로 진행하였다.

《제상을 물리시오.》

찬례자의 이 웨침으로 분향식의 절차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줄 모르고 서있었다.

엄정한 절차로 진행한 분향식의례식에서 승엄해진 그들은 그 여운을 쉬이 가실수 없었다. 김로인에게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전날처럼 통한권구석에 구경군격으로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한복판에서 치르게 되는 김로인의 가슴은 그 어느때도 느껴보지 못한 승엄한 감정으로 들먹이었다.

(과시 옳구나. 배달민족의 시조가 있으니 우리에게 반만년 력사가 있는게구. 왜놈이 이 땅에 비록 살판치더라도 우리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제사를 지내니 어찌 우리 민족이 망했다구할수 있더냐.)

김로인은 오늘 새삼스레 가슴뜨거워지는 이런 느낌에 다시 눈곱이 젖어올라 자리를 뜨지 못해하였다.

《자, 음복상이 다 차례졌습시다.》

장내를 울리는 찬례자의 목소리에 김로인은 생각에서 깨어나 눈곱을 훔치며 단군롱앞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젊은이들이 단군롱앞 너른공지에 명석들을 길게 이어 퍼놓고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았던것이다.

《자, 다들 오서 제사음식을 드시다.》

찬례자가 이렇게 권했으나 누구 하나 감히 선뜻 자리에 들어가앉지 못했다.

이때 김형직선생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여러분, 이런 좌석일수록 경로심이 있어야 하니 로인님들이 먼저 드시고 다음은 우리 젊은이들이 들도록 합시다.》

《옳습시다.》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든 젊은이들이 일시에 로인들을 이끌고 음복상에 앉히였다. 김로인도 한 젊은이한테 이끌리어 음복상에 앉게 되었다.

《자, 어서 드십시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로인들에게 권했으나 로인들은 차마 들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김로인은 이 순간 더 앉아있을수 없었다.

단군롱분향식이 생겨 처음 보는 이 광경도 오직 김형직선생님같은신분이 있기에 마련된것이라는 느낌에 김로인은 불쑥 일어섰다.

《여러 로인네들, 우리 그럼 먼저 드시다. 이것두 배달민족의 유풍이 아니겠수. 그러나 음복의 첫잔만은 오늘 이처럼 성대한 분향식을 복귀하여 주시고 이런 유풍도 펼쳐주신 김형직선생님께 드림이 어떠하시오.》

《옳수다.》

모든 로인들의 찬동속에 김로인은 발이 달린 큰 은술잔에 술을 부어가지고 김형직선생님께 올리였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좌석에서 젊은 사람이 첫잔을 받으면 저 단군성제 할아버님께서 욕을 하십니다. 버릇없는 젊은이라고 말입니다.》

김형직선생님은 사양하시였으나 김로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 선생님은 젊은분이오나 우리 배달민족의 대들보이옵니다. 서까래같은 우리모두를 이끌어 배달민족의 든든한 대들보로 부디 되여주소이다.》

무릎을 꿇고 잔을 받들고있는 김로인의 얼굴에는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김형직선생님은 어쩔수 없으시여 잔을 받으시자 이를 지켜보고있던 로인들이 모두 옆드리어 절을 하였다.

《대들보가 되여주소이다.》

로인들의 이 목소리들은 지심에서 울려나오듯 김형직선생님과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에 울려왔다.

《여러분, 그럼 모두 같이 드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 젊은이들이 로인들에게 술을 부어올리였다.

이러기를 기다리고계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라를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우리 가슴속에 민족의 열이 있고 민족의 력사와 민족의 말을 지켜가면서 민족이 하나로 뭉쳐나아간다면 나라는 반드시 광복될것이옵니다. 자 그날을 위하여 우리모두 드시다.》

로인들은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눈물이 떨어져 찰랑거리는 맑은 술을 마시였다.

그것은 민족의 넋을 재생시켜주는 부활주로 그들의 온몸을 뜨겁히였다.

세월과 영생

방정강

강물과 같이 유유히 흐르는 세월은 차거운 눈비를 퍼부으며 그리고 황갈색의 락엽들을 년년이 무수히 덮어버리며 이 땅위의 모든것을 변모시킨다.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으며 아랑곳하지 않는 세월은 삼라만상만이 아닌 인간이 채로 쳐 기록한 력사의 서고에도 어망청하게 달려들어 종이장들을 변색시키며 활자화된 글자들마저 희미하게 지워버리기도 한다. 참으로 세월은 엄격하고 사정이 없는것이다.

하지만 정녕 이러할가? 과연 세월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일까? 그러나 아니, 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하다. 옛 사람들이 《무정한 세월》이라고 규정되었지만 실은 세월도 제 나름의 가슴이 있는상싶다. 참한 세월은 길이 지나안고 영원히 전해가야 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 주인으로 존대하며 년륜에 고스란히 새겨두는 듯도 하다. 이것은 내가 요즘 남달리 품고있는 속마음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요즘은 나 온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동지가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쓴 자기의 수기에서 철없던 소년시절에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를 풍산땅의 수집명의 군중들속에서 우러러보았고 그이의 반일연설을 격동된 심정을 안고 들었다고 한 구절을 읽은 때부터이다.

그 순간 나의 가슴은 견잡을수 없이 설레이었다.

(아, 세상에 이런 희한한 소식도 있담. 저 어두운 남녘,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악법이 란무하는 감방에서 34년간의 모진 옥고를 치른 사람의 입에서 어찌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을 치는 반가운 소식이였다.

우리 인민모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그날의 모습으로 뵈옵는것처럼 기쁨에 잠겨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가슴뜨겁게 입안소리로 나직이 뇌이였다.

(세월이 잊지 않았어. 세월이 감출수 없어 눈물겹게 추억한거야!)

하여 나는 그날저녁 집으로 돌아와 냇나간 사람처럼 서고를 뒤지였다. 나는 한참 신고하여 보풀이 일고 퇴색된 자료집들가운데서 하나의 자료 발굴노트를 찾아들었다. 그 노트로 말하면 내가 스물다섯해전 고향 북청땅에서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사적자료조에 망라되어 발굴정리한 초고류음이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적사업을 하여온 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이름만 얼핏 들어도 귀가 번쩍 뜨이며 송엄한 감정에 휩싸이곤하는터이다. 두툼한 책갈피를 부리나케 번지며 나는 두눈에 초롱불을 켜다. 하얀 종이장들은 어느새 세월이 그 빛을 락엽처럼 누르끼레하게 만들었다. 우리 글로, 가끔은 필요에 따라 한자로 쓰군한 글자들이 습기를 받아서인지 잉크가 피어있었다. 하긴 20대에 쓴 글이고 보면 그럴법도 하다. 가슴이 흥분으로 하여 비방울을 맞듯 후둑후둑 뿔었다. 나는 다급히 김형권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임무를 받고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1930년 8월중순경 풍산땅에서 활동하신 사적자료들을 찾아내였다. 당시의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1930년대의 신문들에서 보고 복사해온 국한문 혼용의 자료들이며 연고자들을 만나 수집 정리한 회상담들...

책갈피에는 김형권동지께서 풍산군 파발리주재소에 이르시어 권총을 뽑아드시고 무장소조원들을 의심하며 몸수색을 하려들던 악질경관인 《오빠시》순사부장 마쑤야마눔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안기는 통쾌한 모습을 그린 사진도 한장 붙어있었다.

사진에서는 금방 야무진 총소리가 울려나올듯 싶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놈을 처단해버린 다음 총소리를 듣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군중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우리는... 일본놈들과 직접 싸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을 못살게 굴던 〈오빠시〉란놈을 방금 처단하였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철모르는 아이들까지 무서워했겠습니까... 조선인민은 우리 강토에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마음한 뜻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불같이신 웨침이 금시 귀가에 들리는듯싶다. 두주먹이 불끈 쥐여진다. 나의 눈앞으로는 그날의 화폭이 방불히 그러지였다. 모여든 군중들속에 끼여 온통 격정에 넘쳐 김형권동지를 우러렸을 리인모동지의 모습도 눈가에 어른든다. 아마 그 연설의 자자구구를 리인모동지는 죄다 외우다싶이 했을것이였다. 모름지기 리인모동지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연설에서 신념의 첫 넋을 받아안은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리인모동지의 회상자료들을 노트의 여백에 또박또박 써넣었다. 그러자 대번에 책갈피들이 본래의 흰 색깔을 찾고 글자들이 부각되어 안겨

오는것만 같았다. 마음이 절로 흐뭇하여지며 혁명사적을 수집정리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세월의 눈비가 그 아무리 덮어버리려고 하여도 감히 가리울수 없는 소중한 발자취! 력사의 이끼가 그 아무리 끼려고 해도 털어버리고 더더욱 생동한 자료들로 보충되어 빛나는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모습!

참으로 린색한 세월도 무색할 모습이었다. 나는 책갈피를 번지며 추억에 잠기었다. 생각은 모양 한뼘으로 줄달음친다. 어찌하여 리인모동지도 포함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처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어제 있는 일처럼 오래전의 일들을 낱알이 죄다 기억하며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는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피바다에 잠긴 조국을 구원하려는 광복의 총소리를 피타는 열망으로 바라왔기때문이며 바로 너와 나 따로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하여 푸른 눈동자들에 길이 비껴담고 잊지말아야 할 절규로 심장에 새기었던 까닭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적자료수집성원들은 하루에도 수십리길을 걸었고 사진기를 메고 다니며 사적물들을 사진도 찍었다.

평양의 대동강반의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살던 항일의 로투사며 풍산, 북청, 리원, 단천, 홍원, 원산 등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책갈피의 이름자우에서 어른거린다. 항일의 로투사는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로정을 오솔길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놓치지 않고 짚어주었다.

《그렇지, 바로 이 소나무요. 이 소나무의 가지에 김형권동지께서는 적삼과 농민모를 벗어 허수아비를 만들어 걸어놓고 유인기습의 기묘한 전술로 놈들의 뒤통수를 들이쳤지요. 북청대덕산전투는 참 불만한 전투였다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 다음날 30리길을 줄창 걸어 남대천기슭의 참외밭에 들리시었다. 우리는 여러달만에 끈적지게 달라붙어 그 옛적의 그 참외밭주인을 만났었다.

나이 칠순이 다 된 그는 김형권동지의 모습을 그려보는듯 이윽도록 눈귀를 좁히고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참외가 무엇이길래 그처럼 이목구비가 웅한 그분께서... 내가 잘 익은 참외를 골라따서 드리니 협낭에서 돈을 꺼내어 굳이 내 손에 쥐여주는 게 아니겠수다. 일제놈들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고 하시며 이제 왜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고 잘살 때가 온다고 허허허... 그때 다시 또 참외값을 톡톡히 갚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시고는 저기 남대천쪽으로 활개치며 씨엥씨엥 걸어갈데 참 흥길동이 왔다 울고가겠습니다.》

참외밭주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옛이야기처럼

퍼그나 구수하고 흥미있었다.

그날 남대천을 건너 북청군과 신포시며 홍원군의 경계를 이루는 부동리의 농가집에 이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인집 어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손수 《동틀날이》 노래수첩을 쥐여주시고 노래를 한소절한소절 배워주시었다. 소년은 이제 머지 않아 우리 나라가 광복된다시며 동이를 조선의 새날을 선히 그려주시는 김형권동지가 고마와 다음날 아침 이슬길을 헤치며 홍원쪽으로 가는 길안내를 맡아하였다.

참으로 김형권동지께서 헤쳐가신 길은 간난신고어린, 걸음마다 원썩들이 뒤따르는 길이었다. 하지만 김형권동지께서는 림기응변의 전술로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시었다.

하지만 홍원군 방동리 절부암부근에서의 갑자기 맞닥든 일제경찰놈들과의 필사적인 치렬한 전투후 홍원으로 진출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의 앞잡이가 된 변절자의 밀고로 그만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되시었다. 그 어떤 고문과 박해, 회유와 기만으로써도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무장소조원들을 굴복시키지 못한 일제는 1930년 9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살인재판을 벌리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재판장에서 《혁명가》를 높이 부르시며 놈들과 맞서 싸우시었고 재판을 받을것은 도리어 일제놈들이라고 추상같이 웨치며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었다.

서울 마포형무소에 이송된후에도 완강히 조직전개하신 단식투쟁, 옥내선전투쟁... 어찌 다 말하랴.

한몸 찢겨 가루된다 하더라도 천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신 그 불굴의 기개!

하기에 세월은 김형권동지의 고결한 녀이 어린 투쟁의 자욱자욱을 한점 이끼로도, 한잎 락엽으로도 결코 가리울수 없었다. 나는 사적자료집노트에서 눈길을 이윽도록 떼지 못했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께서 한생의 총화이듯이 수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물기에 뿌옇해진 눈앞으로 금문자로 어러들었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실 승리의 그 날을 미소지으시며 그려보시였을 김형권동지의 영생의 그 모습이 눈앞으로 림림히 안겨든다.

아, 하관이 긴 얼굴, 흰칠한 이마며 검은 눈섭 밑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의 밝은 정기!

그처럼 림림한 모습은 그 어디에 두시고 수인복을 입으신 피골이 상점한 얼굴의 사진만 한장 남겼는가. 참으로 가슴미여질듯이 안타까웁다. 하

기에 우리 인민들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못잊어 그이의 불굴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홍원땅에 동상을 세우고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있다.

참으로 김형권동지께서는 청춘의 나이 31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였어도 이 세상 그 어느 혁명투사도 비기지 못할 가장 고결한 송죽같은 절개, 불굴의 투쟁정신을 력사와 인민 앞에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이 세상 해와 달이 천만년 흘러간대도 그 빛나는 한생을 어이 잊으랴. 그이는 우리에게 불은 불이 되신분이시였다. 희망의 표대를 붉은기로 여기시고 일제원췌와의 투쟁에서 한결

음도 물러서지 않으신 불굴의 투사이시였다.

아, 정녕 김형권동지는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사랑도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세월이 머릿속일 영생을 지니신것이리라.

그렇다. 세월과 영생은 가를수 없는법. 력사의 갈피속에, 인민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진 투사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속에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더더욱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우리 세월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영생의 모습을 깊이 새겨안고 영원무궁하리라.

불의 생애

량덕모

조용히 그 이름 부르면

황황히 타오르는 불이 되여

눈앞에 다가서는 그 모습

아, 김형권동지!

백년을 살아도

이 땅에 온기 한점 남기지 못한

그런 생이 아니였다

너무 일찍 철창속에 청춘을 묻었어도

우리를 불붙여간 불의 생애

불이라도 광복의 려명으로 타오른 불

억눌린 인민의 가슴에 비쳐든

그 불빛은 얼마나 강렬했던가

그 불빛 안고 혁명에 뛰여든이

천으로 만으로 헤아리라

의지의 화신으로 세상을 놀래운이도 있었으니

불이라도 혁명의 불씨로 이글거린 불

발길이 닿는곳마다 조적을 무어

투쟁의 불길을 일으키고

설레는 한그루 소나무에도

만대를 이어 불붙이는 구호를 새겼으니

칭칭 드리운 압제의 철쇄를 마스리라

암흑에 덮인 강토를 불붙이며

줄기차게 내닫던 불,

불이라도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불이였다

차디찬 감방

원췌들의 모진 고문에도 식지 않고

철창속 동지들의 가슴에도

백두산에 타오른

항일의 불길을 이어준 불굴의 심장

그 심장의 뜨거움을 다 말해주는

불의 생애우에

무정한 세월이 눈비를 뿌린들

그것은 한낱 가랑잎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는 내 나라

혁명의 열화속에 세차게만 타번지는 불

아, 김형권동지!

그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세월이 흐를수록

기발처럼 해불처럼 우리를 부르노라!

벼이삭

리래운

1

세현은 언젠가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적 있었다.

《가까운 사람한테서 뺨을 맞으면 더 아픈 법이다.》

그때 그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었다. 그런데 진작 아버지로 인해 영예를 놓치고 이런 망신까지 당하고보니 그 아픔이란 각별한것이였다.

여기는 관리위원장실이다. 너털청한 방안에는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빼곡이 들어차있다. 세현은 그 가운데 전보대처럼 혼자 우뚝 서있었다.

《저 사람 이제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구 자식이 커서 일을 하게 되면 조반도 안먹이구 일터로 마구 내몰게야.》

꾸중에 열이 오른 관리위원장의 입에서는 못나오는 소리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관리위원장의 신명을 더 돋구는것 같았다.

《이보라구. 분조장, 임잔 암만봐두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모내기 및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에서 세현이네 분조가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책망끝에 하는 소리였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아버지를 닮지 않은것두 비판대상인가?)

잔뜩 불어난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가장저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어머니를 닮았겠지요 뭐.》

목소가 터졌다. 관리위원장도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제끼며 하하 웃었다. 창문가 복숭아나무가지에 앉아 방안을 가울가울 들여다보며 짹짹거리던 참새 두마리가 혼이 나서 날아나버렸다.

그속에 서서 그는 씩씩거리다 훌쩍 주저앉아버렸다. 열결에 속심의 말을 뱉아놓기는 했으나 율화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기도 하다. 형수가 어디서 그 말을 듣고와서 저녁을 먹다가 호호 웃으며 외우는바람에 집안은 또 한번 웃음판이 되었다. 모내기를 끝낸 휴식전날 저녁이라 따끈하게 데운 약주 한잔을 기분 좋게 들던 아버지도 얼굴이 불깃해서 웃었다.

《거 말 잘했구나. 하긴 초라니같은 이 애비를 닮았으면 어쩔뻔했니. 그렇지? 새애기야.》

아버지한테서 이런 통담을 듣는다는건 수탉이 알을 낳은것만치나 희한한 일이다.

형수는 얼굴이 빨개서 얼른 덧국을 뜨러 가는 척하면서 부엌으로 나가고 어머니는 웃음을 채 거두지 못한 눈으로 아버지를 흘겨보았다. 세현이만이 고개를 수긏하고 앉아 말없이 후룩후룩 국물을 떠먹었다. 숟가락을 담글 때마다 사발굽에서 일렁거리는 잔물결이 어쩐지 그날의 아버지가 갈아번지던 밭이랑을 연상시켰다. 서글픈 눈매로 자기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던 개탄의 목소리도 들리는듯싶다.

《아침밥, 점심밥 꼭꼭 찾아먹는 녀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쫓쫓.》

(아버지, 아버지의 그 고집이 아들에게 어떤 수치를 주었는지 알기나 하고 웃으십니까?)

닷새전 한낮이였다. 소형트랙포르로 밭을 갈던 아버지가 그를 손짓해불렀다. 관리위원장과 나란히 강냉이영양단지를 묻어나가던 그는 얼른 아버지곁으로 뛰어갔다. 집에 들어가서는 간혹 우뚝거리도 밖에 나와서는 여간 곰상곳지 않은 세현이였다.

《아무래두 두엄이 모자랄것 같구나.》

아버지는 방금 지어놓은 밭이랑에 쭈그리고앉으며 근심스레 말했다.

《알고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혼연히 웃으며 자기가 쓰고있던 초물모자를 아버지의 낡은 모자와 바꾸어드렸다. 색이 바래고 전이 축 처진 모자를 벗겨버리니 아버지의 모색이 한결 젊어보였다. 그 젊어진 얼굴에서 작고 세모진 눈이 아들을 의아쩍게 쳐다보았다. 그는 태연하게 아버지의 시선을 받으며 눈부리 아득한 분조포전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보나 푸른 일색이다. 검붉은, 아직은 푸른 옷을 입지 못한 땅은 넓은 대지의 한귀퉁이로 압축되었다. 오색기가 주련이 꽃힌 최독너머 저쪽, 물안개가 뽕얇게 밀려다니고 제비떼 날아에는 논판에서는 모내는 기계가 물매미처럼 떠다녔다.

이틀만! 하고 그는 큰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틀만 바깥 다그치면 분조는 농장적으로 맨 선참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끝내게 된다. 그래서 관리위원장도 노상 자기네 분조에 나와산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혼자생각에 음해있던 그는 트랙포르가 통탕거리며 후진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가

프락포르를 뒤로 뽑아내고있었다.

《아 어찌자구?... 아버지!》

소리쳤으나 아버지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분조원들이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그 속에서 관리위원장을 발견한 그는 온몸이 줄어드는 듯했다.

(망신하는구나!)

지난해까지만해도 이곳 분조의 분조장이던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면 지금도 곧잘 아들을 훈계했다. 허나 밖에 나와서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머리에 프락포르를 세우고 뛰여내리어 나직이 타일렀다.

《때때추 먹어야 힘을 쓰는건 사람이나 곡식이나 마찬가지야. 난 너를 밥굶겨서 일나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번번한 발가운데 말뚝처럼 우뚝 서서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머리에서 아버지와 무슨 얘긴가를 몇마디 나눈 관리위원장은 작업중지를 선언했다. 그 시각부터 그의 분조는 전원이 분토생산에 들어갔다. 결국 1등의 영예는 남의것이 되었다.

세현은 지금 그것을 아쉬워하는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팽담성이 가슴아팠다. 아버지의 휘방으로 놓쳐버린 영예!

(아버지, 난 한생을 아버지처럼 빗발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의 아버지 강운필은 농장에서는 물론 군적으로도 농사 잘 짓는 분조장으로 이름이 났었다. 그렇다고 큼직한 훈장들이 가슴벌게 빛나는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외할머니가 아버지 몸보신에 쓰라고 닭곰을 해가지고와서 외가집동네 옥이 아버지가 농업대회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였다.

두리반을 퍼놓고 작업일지를 정리하던 아버지가 그 말에 빙그레 웃었다.

《참, 그런델 꼭 가야 맞인가. 나라의 국장에 벼이삭을 새겨주지 않았소. 농사군한테 그거면 되지 뭘 더 바라오.》

그 말을 들으며 세현은 아버지의 영농일지 첫머리에 붙어있는 공화국국장을 생각했다. 아직 어릴적에 그는 아버지가 늘 옆구리에 소중히 끼고 다니는 그 책이 호기심나서 몰래 옷방에서 들춰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형이 들어와 무슨 나쁜짓을 하는가고 책을 잡아당기는바람에 책뚜껑과 국장이 붙은장이 툭 떨어져나갔다. 그날저녁 아버지는 두 아들 엉덩짝을 호되게 답새겨주었다.

《이 덜때먹은 녀석들, 철이 없어두 분수가 있지. 이젠 나라이구 목숨이야. 영, 그런데 이걸 이 모양 만들어놓다니...》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성난것을 처음 보았다. 그날은 웬일인지 어머니도 눈을 내리칸채 아무

말도 안했다. 그게 더 서러워 껴끼이 울며 저녁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 엎드린채 있다가 잠들어버렸던 세현이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방안을 들었다놓는 천둥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아버지는 어데 갔는지 보이지 않는데 저쪽으로 돌아왔은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뭇가 골똥히 하고있었다. 그는 슬며시 머리를 쳐들어보았다. 첫눈에 뜨인것이 국장이었다. 둥그런 원안에 별과 산과 발전소가 있는데 붉은 댕기로 소중히 감싸 시누런 벼이삭이 그 모든것을 량팔처럼 단단히 보듬어안고있었다. 어머니는 떨어진 책장을 다시 잘 맞붙여가지고 지금 한창 다리미로 다리고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슬며시 일어난 어머니는 가마목에 보자기를 씌워놓았던 쟁반을 아들앞에 옮겨놔주었다. 세현은 배가 고파있던지라 숟가락모가지가 부러지게 밥을 흠뻑흠뻑 떠넣었다. 그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문득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맛있니?》

이 뜻밖의 애무는 매를 맞고 잔뜩 주눅이 들었던 그의 마음속에 왈각 설음을 복돋아주었다. 그는 끝내 눈물을 떨구고야말았다.

《됐다, 그만해라. 잘못은 고치면 되는거구.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보렴, 아버지는 이 깊은 밤에두 농사일이 걱정돼서 벌에 나가시지 않았니. 논물이 넘어 비료물이 빠질가봐. 아까운 비료물이 빠지면 벼이삭에 쭈정이가 생길게구 그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못먹게 돼. 그런데 넌 밥맛은 아는 애가 그 쌀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조금도 생각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그걸... 그걸 가르치고싶어서...》

어머니는 끝내 말끝을 맺지 못했다.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채 지나쳐 버렸던것 이다.

세월은 흘렀다. 아버지는 지난해에 그에게 분조장자리를 넘겨주었다. 그날저녁 아버지는 그의 새 영농일지 첫머리에 레의 그 국장을 오려서 정히 붙여주었다. 이제는 뽕얇게 보풀이 일고 색깔도 퍼그나 바랜 그 국장을 넘겨받는 순간 그는 웬일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늙은 아버지께 대한련민의 정이라 할가. 국장을 쓸어보는 아버지의 악마디진 손도 가늘게 떨렸다.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구나. 이 국장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때가...》

낮으나 잘 울리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좀 갈려있었다. 그는 고개를 수긏하고 아버지앞에 앉아있었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해 가을이었다. 밖에 나갔던 너의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서는 길로 마당에 쌓아놓았던 현물세가마니들을 와락와락 풀어

헤치더라. 그러더니 전부 다시 까불리자는거야. 여라문살밖에 안되던 나는 말할것두 없구 아직 젊은 색시던 너의 할머니두 못마땅해하는 기색이더라. 얼마나 정성들여 마련한 난알이라구 이제 또 까불린단 말이나.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겠지. 좁전에 리인민위원회앞에서 우리 나라 기발과 국장이라는걸 봤는데 그 국장에 벼이삭이 새겨져있더라구.

〈얼마나 호합진 벼이삭이겠소. 벼알은 또 얼마나 잘 여물구. 위원장한테 물어보니 그게 우리 나라 표적이라는데 글썽 그 소중한 보물에 벼이삭을 새겨주지 않았소. 그러구보면 난알루 나라를 받들구 난알루 나라를 지키라는 소리겠는데 허, 나같은 무지렁이 농사꾼이 무슨 수로 글썽… 장군님 뜻이 그러하시다니 난 도무지 송구스러워서…〉

나는 그달음으로 그 국장이라는것이 나불었다는 리인민위원회로 달려갔다. 정말 거기에는 기발과 함께 국장이 붙어있더라. 방금 아버지의 말을 듣고와서 그런지 그 굉장한 그림속에 있는 벼이삭이 여간 희한해보이지 않더구나. 우리는 온 집안식구가 달라붙어 그 많은 벼를 다시 키로 까불리구 손으로 골라 쫓정이 한알 없는걸 나라에 바쳤다. 다음날 읍에서 돌아오는 할아버지의 손에 바로 이 국장이 들려있었다…

이제는 네 차례가 되었다. 너는 알아야 한다. 난알은 결코 땅이나 농사꾼의 손끝에서만 영그는 게 아니라는걸, 그리구 우리 장씨 집안에는 대대로 쫓정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걸.》

《알겠어요, 아버지.》

그때에야 세현은 기억에도 생생한 비내리던 그 날밤 어머니가 그에게 하고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니였을가 하고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다.

허나 안다는것이 곧 실천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었다. 그는 애써 잘하느라 했으나 아버지는 빈번히 못마땅해하였다. 아니 그자신이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해서 그는 늘 웅색하였고 조롱속에 든 새마냥 푸른 창공이 그리웠다. 오늘일까지 겪고보니 아버지의 그 지켜보는듯한 눈길이 더욱 지겨웠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위원장이나 그 누구에게 여사여사하니 아버지를 다른 데로 돌려주시오 할수도 없지 않는가.

《왜 맛이 없는게구나.》

어머니의 다심한 목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새파란 부루임사귀에 고추장을 듬뿍 발라 밥을 싸든 어머니가 두손을 내밀고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불이 미여지게 우물우물 씹으며 싱긋 웃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의 인자함이 반만이라도 있었으면…

《곤하겠다. 일찍 자렴. 래일두…》

《래일은 읍엘 다녀와야겠어요. 도서관에.》

그 순간 세현은 순화의 얼굴을 상기했다. 복성스러운 얼굴, 방싯 웃는 미소, 그때마다 입귀에 반짝 드러나는 덧이… 그는 세현의 대학통신 동창생이었다. 못본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옷방에 올라온 그는 미닫이너머로 두런두런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를 들었다. 외할머니의 해소병이 또 도졌다는 걱정이었다. 자기 들으라는 소리일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걱정마세요. 어머니, 제가 외할머니한테 들려보겠어요.》 하고 말해야 한다. 그가 막 그 말을 하려는데 지금껏 잠자코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좀 준비해놓구려. 내가 가보지.》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래일은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양보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무엇하러 가실가?

2

어둑새벽에 일어난 세현은 자전거부터 마당에 꺼내놓았다. 타는이 없이 오래동안 헛간구석에 박아두었던 자전거였다.

소를 먹이러 나갔는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전년방에서는 재봉기 돌아가는 소리가 달달거린다. 농장 양복점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늘 사람단련에 눈코뜰새 없다. 부엌에서는 밥지으며 부르는 형수의 코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위는 교요에 잠기고 동녘하늘은 불그레 밝아오는데 나직이 탁탁거리는 장작불 튀는 소리에 섞여 가느다랗게 흥얼거리는 코노래소리는 꿈을 부르는 자장가소리마냥 유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닥지 않은 인물에 나이까지 들어서 사람마다 걱정하는걸 아버지가 만머느리로 데려왔다. 그때 굉장했다. 어머니는 하필 고르고골라 그런 처녀를 데려올건 뭐냐고 야단을 쳤고 아버지는 사람이 속이 곱지 길이 고운가고 고집을 썼다.

《생각해보오. 우리 마을에 그애만한 실농군이 누가 또 있소. 난 그애가 말아보는 벼모판을 돌아보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소. 그런 처녀를 남한테 주기야 아깝지.》

모든것을 농사위주로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것을 생활위주로 생각하는 어머니. 견해상차이란 이처럼 심각한것인가 하고 세현은 그때 그야말로 심각한 사색에 잠겨보았다.

그의 집은 대체로 안주인의 주장이 센 집안이었다. 어머니가 《올해엔 마늘이 귀할것 같아요.》

하면 터발에 마늘면적을 늘려야 하고 《토끼고기가 사람몸에 그렇게 좋대요.》 하면 닭을 위주로 하던 가내축산은 토끼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머느리를 맞는 문제에서만은 아버지의 고집이 의의로 썼다.

그는 생각했다. 물론 아버지의 말이 옳다. 하지

만 어머니의 주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시 먹는 떡도 곱게 빚는다는데 같은 값이면 집안에 곱게 생긴 녀자가 들어와 나쁘게 없지 않는가. 우리 형제들만 봐도 그렇다. 밖에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너희집 애들은 외락을 해서 깨끗하게 잘 생기고 머리들이 좋다고 한다. 부모 못났다고 탓하는 자식없다지만 아니 할 말로 아버지는 잘 생겼다는 말듣기는 힘든 사람이다. 자그마한 키에 온몸이 꼬장꼬장 강마르고 이목구비가 다 자름처럼 해서 번듯한데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 처녀시절의 어머니사진을 볼 때면 세현은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졌다. 어느해 봄날 읍에 있는 피복공장에서 농장에 모내기지원을 나왔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말을 하면서 옆집 학수아저씨는 《도시처녀가 시집온다는 영화있지? 갈데없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애기 그대루야. 헤- 오혜연이 녹았지. 강운필이야 볼게 있으니.》 하였다.

《강운필이가 어쩔다는거예요. 학수아저씨보다 열짜 낫지요. 키나 꺾두룩했지 아저씨 뭘 볼게 있어요.》

그담부터 그는 학수를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도 노상 의견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왜 알잡아보이는가.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킬줄 아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라고 세현은 굳이 믿고있었다. 겸손, 그것은 물론 미덕이다. 하지만 자기의 공적을 웅당하게 평가받는것도 그에 못지 않은 미덕일것이다.

어느해엔가 아버지네 본조에 정말 땅이 꺼지게 대풍이 들었었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세현은 논머리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손에는 큼직한 벼이삭이 들려있었다. 바지가랑이를 무릎까지 벉쩍 걷어올린 아버지는 불꺼진 담배를 입에 문채 어딘가 먼곳, 하늘과 땅이 맞붙은 아득한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햇빛도 누르고 대지도 누린 가을날의 한낮이였다.

그는 살며시 다가가 아버지의 목을 등뒤로부터 그러안았다. 아버지의 턱은 구두솔처럼 꺾꺾했다.

《둘째냐?》

아버지는 장난질에 험해진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서 집에 가렴. 엄마가 기다리겠다.》

《아버진 여기서 뭘해요? 벌판구경하나요?》

《그래 벌판구경하지.》

《벌판이 그렇게 곱나요?》

《그럼, 곱구말구. 세상에서 제일 고운게 이 벌판이란다.》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 칭찬했어요. 군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구.》

《…》

《그러면서 래일 글짓기시간까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오라구 했어요. 난 농사 잘 지은 아버지자랑을 할테야.》

《아서라, 아버지인 아직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

《헐, 그럼 뭘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했나?》

《아… 아니다. 그런데 아니래두.》

아버지는 어쩔줄 몰라 허둥거리더니 황급히 저고리주머니를 더듬어 영농일지를 꺼내들었다. 뚜껑을 번지자 색깔 선명한 국장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그 국장결에 여직껏 손에 들고있던 벼이삭을 가져다댔다.

《자, 보렴. 이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에는 쪽정이가 한알두 없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가 가꾼 벼이삭에는 아직두 이런 쪽정이가 없어지지 않고 있구나. 세현아, 네가 어서 커서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렴. 아무래두 난… 난…》

온몸을 짓누르는 시름에 어깨마져 좁아진듯한 아버지, 자식들이나 집일때문에는 한번도 시름에 잠겨본적 없는 아버지가 벼이삭에 간혹 섞인 쪽정이에때문에 이처럼 깊은 시름에 잠겼다는것이 그에게는 여간 이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사람들이 말하는것과 같은 그런 대단한 농사꾼은 못되는 모양이구나.)

자기 불만에 잠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기에는 아직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었다. 허나 그것을 알게 된 지금에도 어머니에 대한 믿음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니 어머니는 그만큼 무슨 일이나 자신만만했던것이다. 따라서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리당으로, 관리위원회로 뛰어다닌것도 어머니였다. 하여 대학통신생이 된 그는 지난 겨울 첫 등교수업을 떠났고 거기서 순화와도 알게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결혼문제에서 세대주의 대를 세우려는 아버지의 고집은 어덴가 우습강스러운데가 있었다. 이번에는 또 아들의 영예(비록 하찮은것이지만)를 놓고 그러루한 고집을 부렸다. 그것은 결코 웃음으로만 스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보다 심중한 그 무엇이 있을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세현은 하는수없이 먼저 밥을 먹고 마당을 나섰다. 아버지를 위해 알른알른하게 닦달질한 자전거는 토방아래 제일 눈에 갈 뜨이는곳에 세워놓았다.

어머니는 대문밖에까지 따라나와 그의 옷차림을 보살펴주었다. 새 옷에 새 구두를 신고 관리위원장한테서 빌려온 새 자전거까지 타고보니 천하가 눈아래 굵어보였다.

세현은 날듯한 기분으로 읍까지 30리길을 달렸다. 순화는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세현을 위해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도서를 두

권이나 따로 건사하고있었다. 대출실뒤 조용한 방으로 그를 안내한 순화는 얼른 뛰어가더니 비닐그릇에 얼음과자를 가득 담아들고 돌아왔다.

처녀는 점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나가버렸다. 그는 얼음과자의 시원한 맛을 즐기며 책을 뒤적거렸다. 하지만 웬일인지 글줄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꺼낸 창살그림자가 천천히 책상우를 기어가고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처럼 갑갑하고 지루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대학입학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다. 타향에서는 한고장사람이라는것만으로도 가까와지기에 충분했다. 알고보니 그는 군당책임비서의 딸이었다. 그는 군당책임비서의 딸이 농사일을 배운다는데는 별로 놀라지 않았지만 도서관 사서가 농업대학을 지망했다는데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것을 깨달은것은 첫 등교수업때였다.

춡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날 마침내 눈이 내렸다. 함박눈이었다. 강의를 마친 세현은 거리로 달려나갔다. 순화가 그뒤를 따랐다. 너무 좋아 두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꺾꺾거리는 그를 처녀는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좋아요?》

《좋아, 눈이 내리지 않소. 밀보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소.》

저녁무렵의 거리는 류달리 흥성거렸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려갔다. 어디를 둘러보나 고층살림집과 포장한 길, 공원뿐인 도시한복판에서 높이 울린 이 한마디 말은 처녀를 무척 감동시킨듯 싶었다.

처녀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난 맘만해두... 나한테두 그런 사랑이 생길 때가 있을가요?》

《??》

《이렇게면 궁지라 할가. 난 동무의 그 궁지가 부러워요.》

말이 적고 사색적인데가 있어 대하기가 좀 어렵던 처녀의 이 한마디 말에 그는 대뜸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는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중학생 마냥 두눈을 내리깔고 어줍어하며 더듬거렸다.

《나라구 뭐 특별히... 나는 다만...》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벼이삭이 수놓아진 우리나라 국장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건 나라이고 목숨이라고 부르짖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싶었다. 허나 그는 차마 국장에 대한 말을 입에 담지는 못했다. 멋스럽기는 한데 입에 실었던 것이다. 남의 옷이란 아무리 좋아도 몸에 붙지 않기마련인가보다.

그날 순화는 처음으로 많은 말을 했다. 자기가 농업대학을 지망하게 된 동기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오랜 땅일군이였지만 할머니는 여전

히 고향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다는것이였다. 남편을 전선에 떠나보낸후 홀몸이 된 할머니는 기어이 고향을 뜨려 하지 않았다. 외롭게 지내는 할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어린 순화를 보내주었다.

할머니한테는 퍼그나 큰 터밭이 있었다. 거기서는 마늘과 부루, 감자와 강냉이가 자랐고 호박과 당콩넝쿨이 뻗어올랐다. 때로 순화는 호미날로 그것들을 파헤쳐 할머니를 속상하게 했다.

《에그, 집안에 없던 <실농군> 이 하나 생겼구나.》

그런 경우에조차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책망할 대신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파헤친, 이상하게 허리를 꼬부린 하얀 뿌리우에 엄청나게 큰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린 당콩싹을 그자리에 꽂꽂 묻고나서 순화더러 물을 주게 했다.

《할머니, 그건 왜 물어주나? 숨막혀 죽지 않나?》

《씨앗은 새싹을 틔우고 더 많은 열매를 남긴단다.》

《야 별랴다. 그건 왜 그럴가? 응 왜 그럴가?》

《땅에 물어보렴. 그건 땅만이 안단다.》

하여 어린 계집애는 땅가까이 입을 대고 가만히 물어보았다. 허나 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는 땅을 보고 울먹이는 손녀에게 할머니는 차근차근 타일려주었다. 땅은 귀도 입도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목소리로 말하는게 아니라고, 땅과는 마음으로만 말을 주고받을수 있는데 그 말을 가려듣자면 땅과 한몸처럼 친해져야 한다는 것이였다.

《할머닌 그럼 땅과 말할줄 아나?》

《암 알구말구. 보렴, 내가 땅한테 당부했더니 저렇게 마늘이랑 감자랑 실하게 잘 자라지 않니. 저게 바로 땅의 대답이란단다.》

하늘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처마아래서는 갓까난 제비새끼가 짹짹거리고 산과 들에는 새풀이 파랗게 돌아나던 봄날의 그 하루일을 순화는 오래오래 잊지 않았다.

순화는 자랐다. 그는 아늑한 도서관에 일터를 정했다. 그때부터 그는 동요시절의 그 동화속같은 하루를 잊어버렸다.

눈물이 비를 이루었던 지난해 7월 어느날 아버지가 문득 중얼거린 한마디 말이 가뭇없이 사라진줄 알았던 그의 어린 시절 꿈을 되살려주었다.

《아아, 이런 불효막심이라구야.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농사일때문에 포전을 뜨지 못하시었는데 우리 집에는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갈만한 농사꾼 하나 없구나.》

순화는 피눈물속에서 자기를 돌이켜보았고 끝내는 농업대학을 지망하게 되었던것이다.

《참 훌륭한 아버지구만. 동문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있소!》

그는 진심으로 순화의 말에 감동되였다. 그리

고 것처럼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그가 부러웠다.
순화는 어김없이 점심때가 돼서야 방에 들어섰다. 그는 세현을 식당으로 청했다.

《그새 수고하셨어요. 모내기를 끝내느라...》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처녀의 그 한마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해빛밝은 거리는 활기에 넘쳐있었다. 순화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세현의 옷차림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우리 어머니 숨쉴요.》

세현은 신이 나서 어머니자랑을 했다.

《그래요?! 나두 이담에 좋은 옷감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가야겠군요.》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리고보면 세현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이야기한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하면서 앞을 보는 순간 세현은 정말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진거름을 실은 소형트랙포트를 몰고오고있었다.

세현은 당황했다. 번쩍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읍거리를 달리는 아버지를 그럭보았던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오가고 사람들로 붐비는 네거리 복판에서 진거름을 싣고오는 아버지를 보는것은 마을에서 보는것과 전혀 감정이 달랐다.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는 사이에 지척에 다가왔다.

(아, 야속하구나.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지 않은가.)

그는 먼데를 보는척 판전을 피웠으나 온 신경은 아버지한테로 쏠렸다. 제발 그냥 지나쳤으면, 못본척해줬으면...

허나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트랙포트가 멎더니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당자보다 먼저 걸음을 멈춘것은 순화였다. 그는 의아한 시선으로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동자에 놀라운 빛이 어리더니 입이 방싷해졌다.

《아, 아바이!!》

그 바람에 세현이는 너무 놀라 눈이 한껏 커진 채 량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의아한 눈길로 순화를 바라보았다.

《누신지?》

저마끔 놀라와하는 세사람의 거동에서 어색한것은 세현이뿐이었다.

《저예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아, 그렇군. 내 정신 좀 보지.》

강운필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트랙포트에서 자그마한 꾸레미를 내리워 아들한테 내밀었다.

《약이다. 외할머니한테 드려라.》

세현은 눈두덩을 내리깔고 손만 내밀어 나뉘채듯 꾸레미를 받았다. 속으로는 어서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허나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는 순화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새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왔겠구만.》

《네, 하지만... 한번 오세요. 그러지 않아두...》

웬일인지 순화는 갑자르며 마주친 손만 비틀었다. 맥락이 닿지 않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현은 순화마저 알미워졌다. 짹막하게 인사나 나누고 헤어져도 될것을 사기를 악울려주느라 우정질질 끄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참 잊을뻔했구나.》

아버지는 다시 말부리를 아들한테로 돌렸다.

《병풍채끝안에 심은 콩이 말이 아니더라. 꿩, 토끼 성화에 씨도 거둘것 같지 못해. 점심이나 먹구 인차 올라가봐라.》

세현은 말없이 서서 아버지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씨가 더워서 아버지의 목덜미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그런 가위에도 분조일을 걱정할뿐아니라 땀들일새없이 일손부터 잡으려드는 아버지가 눈물겹도록 측은 하면서도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분조에서는 올봄에 마을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병풍채끝안에 천여평가량의 새땅을 일쿠고 콩을 심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는 아마 거기를 다녀온 모양이었다. 한걸음을 옮겨도 빈걸음하지 않으려는 아버지, 그것은 분명 찬양받을만한 일이었다. 남의 아버지였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사실을 작업반이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을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기 아버지라는것때문에 그는 낮을 붉히게 되고 돌레를 살펴보게 되는것이였다. 불과 몇달전의 그 당당하던 공지는 간곳없이 사라졌다. 순화건 아버지건 어서 가졌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가 하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비치지 못했다.

(참 아버지두. 떠들긴 왜 떠들가, 여기가 뭐 분조 발머린가.)

《아이 왜 그러구 섰어요. 빨리 따라가봐야 하잖아요. 도와드려야...》

순화가 팔을 잡아흔들지 않았던들 그는 언제까지나 그러고있을것이다.

트랙포트는 이미 멀어져갔다. 왜 그런지 눈물이 불쑥 솟구쳤다. 눈물이 눈덕을 넘을것 같애 머리를 숙이던 그는 자전거에 뛰어올라 발디디개를 힘껏 밟았다. 순화가 몇번이고 그를 소리쳐 불렀으나 귀에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아 아버지!!)

3

그 아버지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있다.

세현은 발머리에 서서 개버들숲 우거진 동쪽길을 따라 가물가물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눈으로

바래우고있었다. 퍼그나 큰 보통이를 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모름지기 보통이속에는 이부자리며 화식기재, 식량과 부식물따위가 들어있을것이다.

《원 아들이 분조장이냐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콩밭경비에 올려보내는데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어찌겠어요, 어머니, 아주머니들을 보낼수가 없지 않나요. 짧은 사람들은 체초기를 밀어야 하는거구. 일없어요, 힘들것 없어요. 술술 김이나 매면서 이따금 〈후여〉 하구 고태이나 지르면 될텐데요 뭐.》

아버지는 아무 말없이 부시력부시력 떠날 차비를 했다. 그러는걸 보고 분조로 나왔는데 저렇게 떠나가는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병풍새까지 따라가서 아버지의 거처가 마련되는것을 보고서야 내려올것이다. 가뜰이나 속에 없는 너스레를 떤데다 어머니까지 저렇게 따라나선걸 보니 그는 더우기 맘이 좋지 않았다. 세현은 아무리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를 리해할수 없었다. 늘 봐야 어머니는 주고 아버지는 받기만하는 정이었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배려와 같은 다심한 사랑-부부간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용납된다는것이 놀랍기만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엇에 그리도 반한것일까?

강냉이밭이랑을 따라 학수가 다가왔다. 강운필을 대신하여 보탑을 잡은 그는 거느직한 걸음으로 번져지는 보습밭을 툭툭 차며 빙그레 웃었다.

《에에, 강운필인 좋겠다. 분조장아들덕에 손바닥에 털나게 됐어.》

《부러우면 아저씨가 가시지요.》

통명스레 쏘아주고나서 세현은 곧 후회하였다. 우스개로 한마디 한걸 가지고 괜히 짱짱거린다. 그는 먼구스러워하면서 얼른 돌파서서 체초기있는데로 걸어갔다. 이윽고 통통거리는 발동소리와 함께 체초기가 내닫기 시작했다. 검푸르게 우거진 벼포기들이 휘휘 지나가고 벌판이 빙그르 돌아갔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든다. 뽕죽뽕죽 돌아나던 잡초들이 이바퀴아래 짓뭇개지면서 거무칙칙한 감탕흙이 뒤번져졌다. 통쾌한 순간이다. 허나 그는 조금도 통쾌한줄을 몰랐고 오히려 그 무엇인가에 대해 자꾸 아니꼬운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그 아니꼬운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매번 떠오르는것은 일토당토않게도 순화의 얼굴이었다. 짜장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순진한 두눈이 어서 물러가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던 그 근심에 찬 목소리가 그에게는 이만저만 불쾌하지 않았다.

세현은 전혀 근거없는 강짜인줄 알면서도 좀처럼 이 생각에서 헤어나출 없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들어서니 수도가에서 푸성귀를 씻던 형수가 귀속말로 소곤거리는것이였다.

《삼촌,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라요. 수태 상했어요.》

그쪽으로 김매러 갔던 길에 얼핏 들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세현은 속이 섬찟했다. 어디 편치 않은가? 일은 별로 고될것이 없겠는데...

그달음으로 집을 나선 그는 늪에다 반두를 들이댔다. 마침 달이 밝아 밤고기사냥에는 그저그만이였다. 목적했던 봉어나 메기는 별로 없고 미꾸라지만 한가득 들었다. 반바게뜨 싹히 잡아가지고 들어오니 어머니가 무척 좋아했다.

《몸을 보하는데는 봉어보다 이게 낫지. 내 추어탕을 맛있게 끓여주마.》

다음날아침 작업조직을 끝낸 그는 병풍채를 향해 집을 나섰다. 손에는 추어탕을 담은 둥그런 늪밥통과 호미를 들었다. 오늘 하루를 거기서 보낼 차비였다. 쫓고추, 쫓마늘에 싹까까지 썰어두고 닭알물이 뽕얇게 우러난 추어탕은 맛보다 우선 그 냄새에 목젓 넘어갈 지경이였다.

한시간 쯤이 걸어 병풍채끝안에 다달은 그는 곧장 초막으로 올라갔다. 수세좋은 오솔길 풀숲에서는 콩알같은 이슬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고 숲속에서는 산새들이 우짖었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초막앞 돌가마우에 걸린 늪남비안에서 밥이 잣고있는것으로 보아 어디 멀리 간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들고온것들을 내려놓고 초막둘레부터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여기에도 당대 살 차비를 하여놓았다. 초막도, 우물도, 땀감도... 실하게 자라오른 콩나물까지 발견한 그는 입을 딱 벌렸다. 하얀 꽃이 흐드러진 찔레덤불 밑을 깊숙이 파고 콩나물을 샅혔는데 방금 떨어진 꽃잎들이 불리다만 눈꽃처럼 섀노란 콩나물위에 점점이 널려있었다. 아버지가 그 크고 투박한 손으로 여기에 물을 줄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모든것이 완강하고 성실한, 검질긴 아버지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아버지가 언덕을 내려왔다. 등에는 풀지계를 졌다. 세현이 뛰여가 짐을 받아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초막에서 멀지 않은 소나무밑에 두둑하니 솟아오른 퍼그나 큰 풀더미를 보았다. 속이 띵떵했다. 이런 아버지인줄 모르지 않으면서도 육신만은 편안하리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보였다.

《어서 오렴. 뭘 멍청해있니.》

초막앞에 상을 차려놓은 아버지가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세현은 풀기없는 걸음으로 스적스적 다가갔다. 이윽고 아버지와 아들은 둥그런 늪밥통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잉겔불에 뜨끈하게 데운 추어탕에서는 비릿하면서도 감미로운 향기가 풍기고 이슬에 젖은 아버지의 몸에서는 싱

그러운 풀냄새가 풍겼다. 어려서부터 늘 말아 이제는 몸에 익은 아버지의 체취였으나 이 아침 그는 새삼스럽게 그의 소중함을 느끼었다.

《쉬웁쉬웁 하세요. 아버지, 몸이 수태 축났어요.》

세현은 그 말을 간신히 했다.

《아니게 아니라 힘이 드누나. 이젠 나두 늙는가보다.》

아버지도 기탄없이 털어놓았다. 바람소리를 방불케하는 그 나직한 속삭임은 어딘가 가을락엽을 연상시켰다. 이른봄부터 빛을 빨아들이고 물기를 날려보내며 줄기를 자래우고나서 서풍이 불어오면 스스로 꼭지에서 물러나 뿌리를 덮어주려 땅에 내려앉는 잎사귀.

《하긴 너희들이 이렇게 자랐으니 늙을 때도 켜지. 난 요즘 웬일인지 자꾸 초조해진다. 서두르게 되구. 씨를 뿌린 농사군의 마음이란 가을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지는 법인데 이제야 나한테두 진짜 아비된 마음이 살아나는가보다. 너희들이 걸모양처럼 속까지 땡땡 영글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현은 잠자코 아버지의 말을 듣기만했다. 그는 말없이 술을 놓았고 말없이 일손을 잡았다. 해가 퍼지자 날씨는 물କୁ어졌다. 땀을 철철 흘리며 김을 매는 그의 몸에서는 노여움갈기도 하고 몸부림갈기도 한 거치른 숨결이 느껴졌다.

허나 강운필의 동작은 한결같이 일매지고 유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마치 수영선수가 준비운동을 하듯이 긴 팔을 슬렁슬렁 돌리며 콩포기사이로 요리조리 호미날을 뽑는데 왼손은 실새없이 밭이랑을 더듬어 돌맹이와 풀포기를 골라내고 흙덩이를 바수었다. 이런 때 그의 첩첩한 두눈은 한껏 맞차부라져서 마치 손자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할아버지마냥 온 얼굴이 푸근한 미소로 뒤덮였다. 언젠가 세현은 자기가 만약 미술가라면 아버지의 김매는 모습을 그렸을것이라고 말했었다.

《〈취한 사람〉. 난 그림제목을 이렇게 달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느닷없는 자전거종소리에 두사람은 허리를 폈다. 오솔길을 따라 처녀하나가 올라오고있었다. 소매짧은 샤쯔에 검스레한 바지, 신발만은 하얀 구두를 신었다. 순화였다.

《허어, 도서관처녀가 어떻게?》

아버지도 아직 눈정기가 좋았다.

순화는 강운필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전번에 두고 간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면서 얼마나 위외보았는지 대답이 거칠매있었다. 땀배인 얼굴로 세현을 힐끔 쳐다보는데 가뜩이나 익은 얼굴이 더 빨개지는듯싶었다. 정말 그의 손에는 책이 들려있었다.

《집에 들렀더니 여기 왔다고 하기에...》

《원 이런 고마올테라구야.》

강운필은 진정 고마와 어쩔줄 몰라했다. 그는 아들더러 어서 손님을 초막으로 안내하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기를 기다렸다는듯 세현이가 한발 나섰다. 그러자 순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그의 손에서 살며시 호미를 잡아당겼다.

《오늘은 저두 김이나 땡가해요.》

하얀 비닐구두에서 발을 뽑으며 순화는 티없이 웃었다.

《아버님, 허락하시지요?》

강운필은 눈귀를 쪼프리며 처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록 작업복차림이나 고이 자란 처녀가 분명한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도무지 가슴이 가지 않아하는듯싶었다. 농사군흉내를 내어 선뜻 맨발로 땅을 디디기는 쉽지만 땅이란 결코 지금처럼 부드럽고 파스하기만한것이 아니다. 모난 돌, 사나운 가시를 지금처럼 늘 웃는 낯으로 밟고넘을수 있을까?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닐수도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아들이진 부모의 욕심이란 그런것이 아니어서 강운필은 저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생각도 해보는것이였다.

세현이도 순화의 발을 굽어보고있었다. 땅을 디딘 그 하얀 맨발은 발이 아니라 흙에 떨어진 두개의 자그마한 오이씨갈았다. 그는 도무지 뭐가된지 종잡을수 없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처녀가 이 외진 산속으로 찾아오고 찾아와서는 또 일손을 돕겠다고 하는것이다. 인사치레로 해보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 피약벌아래서 김이나 몇이랑 매보고 농사일이란 땀이나 뺀는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할가봐 겁이 났다. 잊혀졌던 그날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오늘 또다시 그런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장담할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의 생각이란 물과 같아서 굵을 찌놓는데로 흐르게 마련인가보다. 생각이 이렇게 흐르자 그처럼 아름답던 주위의 모든것이 거칠고 조잡하게만 느껴지는것이였다.

(하필 이런 때 찾아올건 뭐람.)

그는 속으로 송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가운 생각이 갈마드는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강운필이 풀을 베리 간다면서 자리를 뜨자 발에는 두사람만 남았다. 급기야 찾아든 이 고적이 세현이로 하여금 주인의 자각을 찾도록 해주었다. 그는 자기 밭고랑에 들어섰고 처녀를 스스럼없이 자기 옆고랑에 들여세웠다. 하여 그들은 천천히 김을 매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의외로 순화는 숨씨가 영 서툴지는 않았다.

순화는 아버지를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다.

도서관이라는데는 그 특성으로 해서 대체로 찾아오는 손님이 고정되어 있었다. 학생, 교원, 전문가...

어느날 이 고정된 울타리를 넘어 낯선 아바이가 찾아왔다. 얼핏 보기에 도 자연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것이 행동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서늘해져지던 지난해 초가을이었다.

아바이는 좀 갑자르면서 벼농사에서 쪽정이를 없애는 방법을 쓴 책을 찾았다. 마침 군 인민위원회 법무지도원이 오래전의 중앙년감을 찾는바람에 의자우에 올라서서 서가를 뒤지던 순화는 아바이의 주문에 뜬금으로 몇가지 책제목을 외었다. 아바이는 그런 책들은 이미 다 읽었노라고 했다.

《좀체 없어지지 않거던.》

드디어 중앙년감을 찾았다. 순화는 장부에 등록하려고 책가위를 번지면서 흥심없이 대꾸했다.

《그건 아바이 잘못이 아니지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자연피해를 받게 마련인 농사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과서의 요구를 백프로 만족시켜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순화는 처음으로 아바이를 면바로 쳐다보았다. 자그마한 키에 목조각처럼 까만 아바이는 대출탁에 상반신을 올려놓고 눈앞의 어느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그 시선이 가닿은곳에는 펼쳐진 중앙년감의 첫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이 환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소리겠군. 아직은... 참 책두 많다!》

상심한듯한 아바이의 목소리.

《그런데 처녀동무, 동문 그 국장에 벼알이 몇개지 아오?》

《네?!》

《하긴 그게 중요한건 아니지. 중요한건 온 나라를 감싼 그 벼알가운데 한알의 쪽정이라도 없다는거요. 처녀동문 형제가 많나?》

《셋입니다.》

순화는 이 괴상한 아바이가 놀라운중에도 재미났다. 혹 현지에 나와있는 농학자가 아닐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투를 달리했고 수수께끼에 심취된 소녀마냥 묻는대로 냉큼냉큼 대답했다.

《셋이면 많지 않군.》

아바이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란 열이나 백이래도 마찬가지라오. 슬하에 부실한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편안치 않거던. 우리 농사군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더우기 어버이수령님을 마지막순간까지 발머리에 서계시도록 한 죄많은 우리 농사군들이고보면...》

아바이는 떠나갔으나 그가 채 끝맺지 못한 말은 여운이 되어 그냥 순화의 귀가에서 울렸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아바이가 다름아닌 세현동무 아버지일줄이야. 전 아버지를 불적마다 국장에 새겨진 한알의 벼알을 보는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세현동무도...》

세현은 믿음에 찬 처녀의 시선을 룡감으로 느꼈다. 그 시선이 와닿은 오른쪽볼이 불로 지지는 듯 다가왔다.

(아니요. 순화, 동무는 나를 잘못봤소. 난 아직 멀었소.)

세현은 비로소 어머니가 아버지의 무엇에 반했는가를 알것 같았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심을 모르는것이다.

점심상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긴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서들 오너라. 내 맛있는 가재탕을 끓여왔다.》

4

...가을이 왔다.

온 들에 무겁게 나락이 실렸다. 세현이네 분조의 작황은 볼만했다. 시절도 뜻깊은 이해에 뭔가 더 큰것을 보태려는듯 불별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오늘도 가을걷이차비로 바삐 돌아치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에 들어선 세현은 제잡담 수도밀에 어깨부터 들이밀었다. 어머니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목물을 엮어주었다.

《에그, 탄탄하기두 하지. 꼭 잘 영근 밀알갈구나!》

뿌둥뿌둥 소리가 나게 잔등을 밀며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아버지하구 어때요? 아직 아버지처럼 되자면 멀었지요?》

어머니는 웃었다. 웃으며 다 고삭은 아버지가 어떻게 한창 젊은 너하구 같겠느냐고 했다.

세현은 그 말이 끝이 들리지 않았다. 어느모로 보나 자기는 아직 아버지보다 어림도 없어보였다.

력기나 씨름을 한다면 몰라도 밭을 갈아도 그레 풀을 베도 그레 도무지 아버지를 따를수 없다.

그때 아버지가 베여내린 쭉과 잡관목이 아니였던들 오늘 분조의 논벼작황이 저렇게 좋을리 만무일것이다. 분조에서는 그것들을 트랙터로 20여차나 실어다 논고랑에 밟아넣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온 농장이 풀베기로 얼마나 끓었던가.

《아버지가 웬일일가요. 아직 안들어오셨지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세현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도 안심치 않은듯 담념어 큰길쪽을 내다본다. 점심차비를 끝내고 부엌문앞에서 서성거리던 형수가 앞치마끈을 풀며 나섰다.

《가만있으라요. 내가 얼른 나가보고올게요.》

황급히 벗어놓았던 저고리소매에 팔을 껴며 세현은 대문을 나섰다. 아버지가 간곳은 그가 안다.

또 어느 논두렁이나 밭둑쪽에 앉아 벌판을 바라보고있을것이다. 오늘 아버지는 논고를 따주는 일을 했다.

한낮의 동구길은 사람그림자 하나 없었다. 탁 트인 벌판은 눈시울이 아플지경으로 눈부신데 지평선쪽으로부터 물결쳐 밀려오는 금파만경은 두 팔벌리고 어머니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애마냥 거침이 없었다.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은 풍경이다. 품놓고 논머리에 앉아있군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는 백번도나마 이해하였다.

세현은 자기에게 시적재능이 없는것을 늘 아쉬워하였다. 그래서 언젠가 그 소리를 했더니 아버지는 눈귀로 쓱 흘겨보며 코웃음쳤다.

《왜 그래요. 좋지 않나요. 새 세대 청년이라면 그쯤한...》

《새 세대 청년이라면 응당 일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시라는거야 원래 제팍으로 제 땅우에 쓰는데 진짜 시이지.》

그렇다. 한뼘로 땅과 함께 살아온 아버지한테는 문학이니 생활이니 하는 개념이 없었다. 또 누구들처럼 요란스러운 말로 자기의 혁명성을 시위할줄도 몰랐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낱알이 귀중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그 귀중한 낱알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굳어진 신념이 있었다. 참말로 《낱알로 나라를 받들고 낱알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씨집안의 혈통은 강운필에 의해 다음 대에 맥맥히 이어지고있었다. 해빛밝은 가을날의 이 들가에서 강세현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새삼스럽게 되반아안게 되는것이였다.

손채양을 하고 분조쪽 논판을 살피던 세현은 문득 길가녀에 세워놓은 승용차를 보았다. 승용차로부터 초간히 떨어진 논두렁우에 웬 사람이 서성거리고있었다. 늘씬한 키가 낮익다. 혹시?

그는 그쪽으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서 안경이 번쩍했다. 순간 그는 군당책임비서를 알아보았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순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고합니다. 여기가 4반 3분조 포전이 옳지요?》

책임비서의 손에는 큼직한 벼이삭 몇개가 들려있었다. 약간한 손놀림에도 벼알들이 부딪치며 자랑자랑 쇠소리를 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분조장입니다.》

세현의 말에 책임비서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부터 덥석 잡아주었다.

《그러니까 동무가 바로 강세현이겠구만. 내 순화 아버지요.》

세현은 당황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화가 아버지한테 내 소리를 했다는것이 아닌가. 뭐라고 말했을까?

《농사를 잘 지었어.》

책임비서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더니 다시 끼었다.

세현은 가벼운 흥분을 느끼었다. 그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만 온몸이 굳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뜻밖의 상봉이 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는데 대해 그는 예민한 감각으로 느끼었다.

책임비서는 벌판을 돌아보자고 하면서 논두렁에 들어섰다. 세현이 앞장서서 그를 안내했다. 책임비서는 두번다시 칭찬을 하지 않았으나 펍 만족해하는 표정이였다. 한해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멈춰서서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는 자기의 부족점에 대해서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음, 그렇단말이지. 역시 그애가 빗보지 않았군!》

《예?!》

《아니 내 혼자소리요. 잘 영글었어.》

《아직... 쪽정이를 마저 없애지 못했습니다.》

세현은 고개를 숙이며 떠드름떠드름 말했다.

책임비서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안경으로 해서 좀 엄격해보이던 눈귀에 실오리같은 주름이 가득 잡히며 하나의 인자한 아버지로 변모시켜버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재삼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아니, 아주 잘 영글었어!》

그리고는 문득 생각난듯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

《강운필입니다.》

세현은 이때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차게 불러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책임비서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허나 그것도 한참나. 그의 온 얼굴에 웃음이 확 피여났다.

《그러니까 동무가?! 내 어쩐지...》

책임비서는 세현의 량어깨에 묵직한 두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힘있게 흔들어주며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보면볼수록 아버지를 닮았다. 겉이 아니라 속이, 그 심장이!

(고맙소. 윤필동무, 동무는 정말 큰일을 했소. 난 동무가 분조장을 그만두었다기에 펍 서운했었는데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 그자리에 세워놓았구만. 알찬 씨앗은 더 훌륭한 열매를 남긴다더니 참 옳은 말이요. 세현이는 신통히도 윤필동무 그대로야. 암 열매가 씨앗을 닮지 누구 닮겠소. 이제 내 자식도 동무한테 말기려오. 잘 키워주오. 동무처럼, 동무를 닮은...)

점점 심각해지는 군당책임비서의 눈빛앞에서 세현은 오히려 가슴울렁거리는 격정에 사로잡혔다. 책임비서가 자기 아버지를 잘 알뿐아니라 매우 존경하고있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그는 기뻐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못사람의 존경을 받는 부모는 긍지이고 힘이며 자랑인것이다.

지금까지 접잡던 책임비서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다. 어서 아버지를 만나보자고 했다.

세현은 군당책임비서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리라 집착되는 소골논최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아버지는 그곳 두렁콩포기 소담한 논두렁에 네활개를 쭉 펴고 번듯이 드러누워있었다. 코고는 소리가 태평스레 들려왔다. 온 누리를 그러안은듯 대지를 깔고 하늘을 덮은 아버지

의 손바투에서 무겁게 드리운 벼이삭들이 흐느적 흐느적 춤을 추었다. 그것은 자기들을 키워준 은사에게 고개숙여 절을 올리는 어린것들마냥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다. 노랑고 빨간 잡자리들이 하늘이 뿌려주는 축복의 꽃보라인양 떼지어 머리우를 날아다녔다.

아버지는 자면서도 웃고있었다. 만시름을 잊은 모습이였다.

《깨우지 마오.》

책임비서가 얼른 세현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오금을 꺾으며 그결에 쭈그리고앉았다. 언제까지나 그의 잡자리를 지켜주려는듯이.

한낮의 눈부신 햇빛은 누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었다.

이삭보다 먼저 익었어요

진창우

가을빛에 물들었어요

벼가을 나온 우리들의 모습

풍년벌에 물들었어요

숙성한 우리들의 모습

여느해같으면

저마다 이삭의 알수를 세여보며

연백벌이 떠나갈듯 웃으며

해종일 노래속에 묻혀살

우리 청년분조 처녀들이건만

이해엔 말조차 적어졌어요

일손엔 불이 일어도

자주 평양으로 뻗은 길 바라보며

눈굽을 적시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삭도 고개숙여 흐느끼듯 설레이는가봐요

아, 눈물많은 7 월의 그 나날에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수령님 우리결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눈물을 닦던 손으로

이 벌을 풍년벌로 가꾸었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섰어요

수령님 우리 포전에 다시 찾아오시여

농사를 잘 지었다고

등을 두드려주실것만 같아

밤을 잊고 끼니도 잊으며

우리 풍년만을 생각했어요

그 나날에

말소리도 어른스러워지고

그 나날에

행동도 어른스러워졌어요

크나큰 슬픔을 딛고 일어서며

우리도 더 빨리 숙성했나봐요

아, 수령님 다녀가신 연백벌에

수령님과 꼭 같은 미소를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포전에 오실것만 같아

우리 마음 이삭보다 먼저 익었어요

풍년가을과 함께 우리 마음도

더 숙성했어요

작가의 말

최근년간 문학통신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젊은 나이에 진지하게 문학수업을 한 흔적들이 보이고 전망이 기대되는 두 신인의 시들을 《조선문학》편집부에 추천합니다.

조선인민경비대에 사관으로 복무하고있는 문용철(27살)동무는 1992년 작가동맹에서 진행한 전국문학작품현상모집에 시조 《나는 총을 더 달래일수 없다》를 제출하여 1등으로 당선된 이후 1993년에는 장시 《세대의 웨침》을, 1994년에는 서정시 《참된 삶을 가르치시라》를 연거퍼 1등으로 당선시킨 동무입니다. 이번에 《조선문학》에 추천하는 시는 새 세대의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며 순결하고도 진실한 정서의 풍만함과 독특하게 사색된 시어들의 그 박력과 참신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주목을 끌수 있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량강일보》사에서 기자로 사업하고있는

김옥란(25살)의 서정시들은 녀성다운 섬세성과 탄력있는 정서, 뜻있는 비유와 그속에 관통되어 있는 감정의 뜨거움으로 하여 신인으로서의 재능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기성작가들이 문학통신원의 작품을 지도하는 과정에 자기의 의도대로 작품이 되지 못했을 때 몇글자 손을 대고마는 악습이 자신에게도 가끔 있었지만 이 작품들을 주관하는 과정에서는 극력 자제하고 피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을 직접 상면하여 조언을 준것이 아니라 서신으로 원고들이 오고간 그런 사정도 있고 새 세대들의 청신한 서정의 샘플에 기성세대인 나의 취미를 강요하여 오히려 티를 묻힐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순수한 본인들의 창조물을 편집부에 추천하는바입니다.

《김일성상》 계관인 시인 오영재

수령님 철학 외 1편

문용철

평생을 들바람에 늙어온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하루라도 없으면
못사는게 뭐냐고

해빛, 물, 공기...
이제 갓 말배우는 아이처럼
그 실농군앞에서
나의 대답은 너무도 천진하였습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엄하고 거칠었습니다
입에 문 마라초를 비벼던지고
가마니의 쌀 한줌을 꺼내보이는
그 흙빛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치, 바보!
그러고는 뺨 돌아서는
그 주름많은 얼굴로 젖줄기같은 눈물이
고랑지음을
나는 분명 보았습니다

-네 애빈 머슴군의 자식이야
나라의 큰사람도 아니고
뭐 그리 잘난데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선

이고장을 지나실 때마다 차를 멈추시고
네 아버지를 찾곤하셨어

그래 왜서? 무엇때문에?
이 쌀때문이야...
인민이 먹는 이 쌀때문에...
너 이 쌀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 쌀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분은
우리 수령님밖에 없었어

분배끝난 어제 저녁
가만히 자리에 누워 수령님생각을 하노라니
그 고귀한 한생이
우리의 논두렁길에서 다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에 억이 막혀 가슴치며 울었어

병사들 머리우에 얹고 다니는
군모의 모표를 봐
그리고 우리 수령님 국사를 의논하시던
그 큰집의 국장을 봐!
무엇이 촌촌히 새겨져있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목숨이고 나라야
그게 바로 수령님 가르쳐준
우리의 사회주의구 공산주의야

알겠어

이 한알한알이 바로
우리 수령님 평생토록 이 땅에 써오신
우리 사회주의철학이야
화목도 사랑도 나라도 이 땅과 쌀에서 생겨
그런데 이 쌀을 몰라, 농군의 피를 이은
자식이-

그리고는 저 발머리 어디론가
그는 걸어갑니다

이 못난것을 꾸짖으며 그는 아마 울겁니다

아 하지만 농군의 이 자식도
농장에 첫발을 들여놓는 이 햇내기도
이 땅에 무릎꿇고 우는것을-
수령님의 철학을
이 땅에서 가꾸고 지키리라
흙 한줌 움켜잡고 우는것을-

아이들이 뛰놀니다

내 지금 해비친 눈마당의 한귀에 서서
마을 저쪽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온몸 담고 귀기울입니다

슬픔 겪은 이 나라가
얼마나 듣고싶던
아이들의 저 웃음소리입니까
조국과 혁명이 얼마나 가슴조여 기다리던
이 나라 《왕》들의 저 웃음소리입니까

눈부신 백설의 이 아침
세상 그 어떤 일 못해도 좋으니
꽃동심이 살아뛰는 아이들의 저 웃음소리
품놓아 들으십시오
혁명중의 이보다 중한 혁명 어디에 있습니까

수령님을 불러 작은 가슴 몸부림치며
얼마나 입술 트고 목갈렸던 우리 아이들입니까
줄지에 철이 들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서먹했던 저 아이들
입니까

그래서 더 귀하고 또 귀해
세상의 은금보화 다 따다가
차려주고 입혀주고
세상에서 제일 곱고 의젓하게 키워야-할
우리 수령님 평생토록 품에 안아키우신
조국의 미래들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장합니까

이른아침 수령님의 동상앞을
눈썰고 꽃드리고
설맞이 그때처럼 수령님과 즐거운 말 나누고
기뻐서 돌아오는 길

수령님은 오늘도
자기들을 품에 안고계심을
믿고 또 믿으며 돌아오는 길
저저마다 흰눈우에 별령 누워 찍은 눈사진
작년보다 키도 몸도
얼마나 더 자랐습니까

저기 저걸 보십시오
저애들이 우리의 장군님을 믿고
얼마나 큰 미국놈을 빗엿는가를
코도 삐쭉, 허깨비도 세워놓고
얼마나 통쾌한 눈폭탄을 안깁니까
새별같은 눈동자엔 승리자의 기세가 오연 합니다

이번엔 처마끝의 고드름을 툭 따서
서슬푸른 장검까지 찼습니다
눈덩이로 밍게 빛은 난쟁이 일본놈을
뒹라뒹라 호령하며
단칼에 목베고는 장하게도 웃습니다

아, 얼마나 덩습니까!
저애들의 얼굴에 가슴에 손벽에
또다시 동심을 꽃피워준
김정일장군님의 그 사랑은!
수령님의 응석받이들이 웃는 이 아침
온 조국이 더운 눈물 짓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허리펴고 웃습니다

단풍 외 1편

김옥란

단풍이 핀다 꽃같이
단풍이 탄다 불같이

피는 단풍에 산은 꽃동산

타는 단풍에 산은 불덩이
꽃같은 향기 없어도
꽃단풍속에 달콤한 열매있어
불같은 열이 없어도
불단풍엔 열매도 무르녹아

아, 단풍은 풍작이 띄운 꽃편지
아, 단풍은 새 생활의 길잡이
불타는 단풍에 자연 익었던가
꽃피는 단풍에 청춘은 즐거워라
익은 자연은 풍성한 가을이여도
즐거운 인생은 들끓는 새봄이네

락수물소리

봄의 서곡을 들으렵니까
락수물소리 들으십시오
겨우내 꿈꾸던 들판이
보통손 들고 받아먹습니다
시내가 귀뜨지 않은 버들개지
무슨 소리나 돌아눕습니다
서산에 동면하던 꽃구름이
기지개를 펴며 하늘에 솟아오릅니다

성급한 눈봉우리는
내리자고 신들메를 조입니다
조용한 봄비는
오고파서 색실마리 만집니다
삼라만상이 어이하여
심장으로 듣습니까 락수물소리
아, 고드름 녹이며 조용히 내리는 소리
만풍년 가꿔갈 이 마음 두드려 채촉하는 소리

청춘에 대한 시

김 영

고요한 밤
타오르는 우등불
새 언제우에 ...별... 추억의 별...
내 또다시 복변의 개발지로 떠나며
깊어지는 생각
청춘
청춘이여
그대의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내 어느덧 백발이 되어
자서전을 번질 때
피끓던 이 시절의 메아리가 없다면
봄은 갔다 다시 와도
인생의 봄은 다시 오지 않아
그 시절에
첫 군공메달을 달아보지 못했다면
처녀지에 남긴 사진 한장 없다면
오, 강기슭에 버들 한그루 심은것 없다면...
청춘은 황홀해
한밤에도 만경창파우에
갈매기처럼 날고싶은
가슴 설레이는 시절

누구나 그 시절을 살고도
때없이 부러워하는 한창시절
하나 인생의 5월은 짧고나
삶의 박자는 빠를수록 좋아
청춘의 오션지우에
위훈의 노래는 언제 다 쓰라
청춘은 인생의 꽃보라
그 시절에 남이 지은 노래만 불렀다면
어머니대지우에 내가 쓴 노래가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하리
아들과 딸들 앞에서
리수복에 대해
나의 젊음 시절에 대해
아, 청춘기는 인생의 폭풍시절
생의 기념탑은 그 시절에
세워야 하리니
청춘
청춘
청춘이여
청춘의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당 부

류정옥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평퍼짐한 등성이에 나는 앉아있었다. 빨간 잠자리가 비행기처럼 유유히 날아돌았다. 메뚜기 한놈이 나의 보위색군복을 풀잎으로 착각한듯 툭 소리를 내며 무릎우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곧 놀래여 후닥닥 놀래여 날아올랐다. 그놈은 풍년작황을 이룬 등성이아래 논판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을 하늘은 얼마나 높푸르른가. 그리고 바람은 또 얼마나 서늘러운가. 난알냄새가 폭폭 안겨오는듯한 가을의 대기, 나에게서는 모든것이 새롭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래일이면 군대복무의 길을 떠나기때문임을 나는 잘 안다.

나는 군복을 입는 길로 느티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이 등성이를 찾아왔다. 이곳은 나의 할아버지가 자주 소풍하러 오시던곳이다. 시내와 지경을 이룬 이 둔덕에서 할아버지는 시내와 농장벌을 바라보시곤하였다.

지금은 묵직한 이삭을 드리운 논벌이 누렇게 물들어가고있다. 논판 가운데는 허수아비가 우습강스러운 자세로 서있다. 바로 얼마전에 할아버지는 그 허수아비를 가리키며 나에게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를 무척 노엽혔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노염을 품은채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할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한채 입대하게 되었다.

빨간 령장이 뚜렷한 군복을 입은 나를 할아버지가 보실수만 있다면 모든것을 용서해주시련만,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것이란 말이 천만번 옳았다.

나는 할아버지앞에 영영 속죄할수 없게 되었다. 하여 나는 할아버지가 자주 나와 앉아있곤하던 이곳으로 나왔다.

내가 할아버지를 노엽힌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였고 순간의 실수도 아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수 없었다. 당시 나의 사고와 나의 정신생활로써는 그것이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것처럼 성을 내며 괴로와하는 걸 그날 처음 보았다. 1년전까지만 해도 고향의 협동농장에서 일손을 놓지 않고있던 할아버지였다.

80고령을 넘어서야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시내의 우리 집으로 왔다. 이제는 나이탓인지 웬만한 감기에도 자주 자리에 누웠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로동과에서 배치해줄 직장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자리》에 《선손》을 써보라고 《줄》이 있는 동무를 찾아갔다가 저녁때에야 집에 들어섰다. 방에 들어서는데 길로 버릇처럼 텔레비존을 틀었을 때 화면에는 어린 꼴머슴을 형상한 조선화 한폭이 선명하게 펼쳐지고있었다.

명화감상시간인듯하였다. 파아란 풀밭에 길이 넓게 더미로 쌓아놓은 꼴머슴을 등지고 두팔을 엇걸어 턱을 고인 소년이 오도카니 앉았다. 그앞에는 웅기종기 모여있는 새끼양들을 사랑스레 내려다보는 어미양의 모습이 눈에 비쳐들었다. 배부른 새끼양들은 어미를 둘러싸고 재롱을 부리고 그 새끼들을 굽어보는 어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이슬이 대롱대달렸다.

나는 텔레비존을 등진채 그냥 누워계시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대대로 머슴을 산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머슴살이가 그 무슨 《투쟁경력》으로 되거나 하는듯이 적하면 《배를 좀 굶아봐야 할 녀석》, 《엄동설한에 홀잠뱅이를 입어봐야 정신이 들 녀석》하고 《채찍》처럼 쳐들곤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별로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벌써 반세기가 지나간 옛일인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머슴살이라는것을 크게 생각지 않았었다. 할아버지는 물론, 증조할아버지도 머슴살이를 했다는데 지주놈을 할 때려눕히던가, 뛰쳐나와 멀리로 도망치던가 할 노릇이지 무엇때문에 머슴살이를 한단 말인가. 나라면 절대로 참지 않았을것이다.

바로 이러한 감정때문에 그날도 나는 장난기를 섞어 할아버지를 불러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네가 나와요.》

《뭐라구?》

누워계시던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라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네〉가 텔레비존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때에야 내 눈길을 따라 텔레비존화면을 본 할아버지는 헤실헤실 웃고있는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었다. 언제나 느슨한 미소가 어려있던 두눈에서 찬서리가 풍겼다.

《시러배자식같은놈.》

《?!...》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앉은 할아버지는 쿨럭쿨럭 기침에 개끼여 주름투성이 얼굴이 시꺼멓게 질렸다.

나는 급히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려드렸다.

어째서 할아버지가 별치 않은 한마디에 이처럼 노하시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우리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 할아버지였다. 세 손자중에 맏형을 두고는 별치 않아보는 일에도 《우리 장손이가 다르거든.》 하며 대견해했고 나는 막내이라고 해서 귀해하였다. 맏형이 인민군대에 나가고 둘째형이 청년돌격대에 나간후 나혼자 남게 되면서 부터 나는 온 집안의 《왕》이었다. 좋은것, 귀한것은 물론 내것이고 무슨 일을 저지르던 다 용서되었다.

지어는 할아버지의 돋보기를 코등에 걸고 배를 잔뜩 내밀고 《에헴-에헴-》 하면서 할아버지 흉내를 피우다가 돋보기를 깨먹었을 때도 아버지의 엄한 눈길을 막아주시었다.

《됐다, 됐어. 그게 뭐 그리 큰거라구.》

내가 스스럼없이 《할아버지네》라고 장난삼아 말할수 있는것도 그러한 사랑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이었다.

헌데 이때는 할아버지의 눈섭이 쫓긋 쳐들렸다.

《게 좀 앉거라.》

나는 뜻밖에 당한 엄한 기상앞에 쫓기듯 쭈뼛거렸다.

《앉으라는 소리를 못들었느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겁게 정수리를 내려 눌렀다.

나는 고양이앞에 쥐처럼 웅송그리고 앉았다.

어떤 《채찍》이 떨어지겠는지 짐작이 잘 가지 않았다.

《이놈아, 네가 무슨 권리로 머슴군의 눈물을 희롱하는거냐?!》 하시겠는지, 아니면 《저 그림이 네게는 한갓 흥미거리, 장난거리로밖에 안보이느냐?!》 하는 호령일것인지.

허나 한참동안 계속되던 침묵끝에 흘러나온 할아버지의 말은 천만뜻박이었다.

《너 요즘 어디로 무얼하러 돌아치느냐?》

《예?!》

나는 어리뻑해졌다. 내가 요즘 나다니는게 무엇때문이란걸 모르지 않는 할아버지였다.

《네가 무슨 기술이 있느냐? 전문가격이 있느냐? 탄광이나 대건설장같은데 발벗고 들어설 생각은 못할망정 무슨 〈회사〉?!... 〈총국〉?!... 장손인 대학에 갈수도 있는 최우등생이었지만 최전연으로 탄원 입대를 했는데 너는 어찌자고 들떠 돌아치는거냐?》

굵은 주름살이 건너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노염과 실망에 젖어들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주제에 들떠 돌아치다나 말에 자존심이 불끈하였다. 그리고 형을 칭찬

하는것에 질투까지 났다.

《걱정마시라요. 제 일은 어련히 제 손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리요. 형처럼 꼭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투정질하듯 마구 쏟아놓았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킁킁 기침을 낚았다.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분노를 토하는것 같았다.

《이, 이놈아 뭐, 걱정을 말라구?!... 나라가 없구 인민의 법이 없는데서도 제 손으로 제 일을 해나갈것 같으냐?!》

할아버지의 열이 오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대꾸질을 했다.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그렇게 쉽게 얻어질수 있기도 한단 말인가, 또 우리 인민의 법을 누가 지켜주시고계신다구, 어림이나 있는 소리인가.

《이 할애비네 머슴살이가 영영 지나간 옛말로만 된줄 아느냐?!》

착취와 압박받던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나의 리상까지 그만큼 떨어뜨려야 한단 말인가.

물론 나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기술도 전문자격도 없는 애송이다. 해운대학을 지망했으나 졸업시험 점수가 높지 못해 추천도 못받았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하겠는가. 나는 그럴수 없었다. 하여 나는 딱친구의 아버지가 해운부문 무역회사 계통에 있는데 그 줄을 타면 회사 직원으로 들어갈수 있다는것을 톺아냈다. 그다음 통신으로 대학공부를 하면 점차 망망대해로 종횡무진하는 배를 탈수 있다. 바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커지는 활무대이다.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조국의 명예와 재부를 늘어갈것이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단말인가. 더구나 우리 집에서야 두 형이 다 어렵고 힘든 《주공전선》에 나서지 않았는가.

《음-》

여전히 찌불서하고있는 나를 쳐다본 할아버지는 신음같은 소리를 내더니 움쭉 일어나 불시에 웃거고리를 걸치고 출입문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나는 영문을 몰라 소리쳤으나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따라오너라!》

따라나설수밖에 없었다. 엄한 어성때문만이 아니라 자리에 누웠던 할아버지를 흔자 내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끌고온곳이 바로 이 등성이 느티나무아래 잔디밭이었다.

눈앞에서 떠돌던 잠자리가 내 어깨에 앉을듯말듯하더니 용수철타래마냥 빙빙 원을 그리며 공중높이 날아올랐다.

쟁글쟁글한 해벌아래 황금파도처럼 굼니는 논판에는 전이 우그러진 농립모를 쓰고 두팔을 한

껏 벌린 허수아비가 서있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허수아비와 나란히 선 람루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매가 너덜거리고 허리가 탕궁 들린 작아빠진 적삼을 걸친 머슴애다. 할아버지의 옛모습 순남이었다.

그날 나를 여기로 데려내온 할아버지는 더 질책을 할대신 논판에 섰는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왕청같은 질문을 했었다.

《너는 사람이 허수아비를 부러워할수도 있는 세상이 있다는걸 생각해본적이 있느냐?》

《?!...》

나는 의혹에 차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과거살이 몇 토막을 회상하였다.

...송구장네 머슴살이에 골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빛에 물려 순남이는 열세살에 머슴이 되었다.

아버지가 순남이와 병든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넘겨준것은 송구장네 울타리에 버섯처럼 붙은 쓰러져가는 마가리와 빛 40여원이었다. 그와 함께 순남에게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머슴살이를 시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유언을 지킬수가 없었다.

병약한 몸에 샳바느질로 굶다싶이 사는 형편에서 그 빛을 갚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어쩔수 없이 열세살에 머슴이 된 순남에게 처음으로 차례진 명에는 논벌의 새들을 쫓는 새몰이군노릇과 송아지를 먹이는것이였다.

아침부터 강통을 두드려대며 무연한 논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달려다녀야 했다. 그러다나니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겨우 걸음을 내짚었다. 더욱 달랠수 없는것은 다리보다 등가죽에 붙은 허기진 배였다. 허지만 그 걸음으로 풀밭을 찾아 풀을 한집씩 베야 했고 아침에 내다 맨 송아지를 몰아와야 했다.

그날은 너무도 기진하여 점심때가 채 되기전에 보둑의 뿔나무 그늘에 가 앉았다. 점심을 먹곤 하는 장소였다. 배보자기에 썩 췌기밥이 덜렁 매달려있는 지게다리에 자주 눈길이 갔다. 먹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풀짐을 저야 할 저녁때를 생각해서 미리 먹어치울수가 없었다.

된장덩이가 박혀있는 주먹만한 밥덩어리를 바라보며 군침을 꿀떡꿀떡 삼키던 순남은 저도 모르게 끄덕끄덕 졸다가 모로 쓰러진채 잠깐 잠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에 벼수확을 가늠해보려고 나온 송구장에게 들켰다. 늙은 주먹코를 푹푹거리며 눈을 부라렸다.

《이 새끼가 벌써부터 눈을 속여가며 꾀를 부려, 한번 정신이 들게 해주마.》

그는 개화장으로 지게다리에 걸려있는 밥덩이

를 베껴내더니 뒤따라나온 제놈의 사냥개에게 던져주었다.

순남은 황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그놈의 개화장이 먼저 그의 가냘픈 가슴팍을 떠박질렀다.

송구장은 한참이나 씩씩거리며 개화장으로 못매를 안기고서야 물러섰다. 정쟁이며 어깨가 거무죽죽하게 부풀어오른 순남이었지만 개에게 던져준 밥덩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배에 기름이 진 개새끼는 밥덩이를 홀어뜨리며 몽겔뽕 잘 먹지도 않았다. 그걸 바라보는 순남의 눈에서는 눈물이 꾸역꾸역 솟았다.

송구장이 돌아간후에 다시 논둑에 나섰으나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주저앉고말았다.

그리고는 앉은자리에서 메뚜기를 한꺀미 잡아서 불에 그슬려 먹었다.

그날저녁 순남은 허우적허우적 논둑을 떠나면서 논판에 세운 허수아비를 무척 부럽게 바라보았다.

(너는 얼마나 좋겠니. 하루종일 뛰지도 않고 배고픈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도 없으며 힘든줄도 모르니, 나는 개만도 못하고 네 신세보다도 못하구나.)

순남이가 그 허수아비 신세보다 더 못한것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그 막대기가 입고있는 저고리가 그의것보다 훨씬 더 성성하였다. 순남은 남들이 보지 않는 어슬넉에 새털같은 자기의 적삼과 허수아비것을 바꿔입은적도 있었다...

어디선가 뛰여든 메뚜기 한마리가 내 군화코숭이에 올라앉아 모자를 벗어 들고 머리를 수긋한 나를 뻔히 올려다보았다.

혹시 할아버지가 구어잡순 메뚜기의 먼먼 후손일지도 모르겠다.

《배를 굶아봐야 할 너석, 엄동설한에 홀잡뽕이를 입어봐야 정신이 들 너석...》 할아버지가 넘볼처럼 외우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만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차례지는 운명에 순종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것도 그 날에야 알았다.

...허수아비를 부러워할만큼 가혹했던 순남의 신세는 소년시절뿐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것은 그자신의 머슴살이보다도 어머니의 불행한 운명이다.

불면 날려갈것 같은 쇠잔한 어머니는 찌그러져가는 마가리에서 혼자 살았다. 일생 바느질감을 만지는 어머니였지만 어느것이 본판이고 어느 조각이 기운것인지 알수 없는 옷을 걸친 쪼그라든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순남의 눈부리에 박혀있다.

그와 함께 울타리밑에서 돌아난 수려저가는 버섯같은 마가리가 떠오른다. 스러져가는 버섯이란 쭉그러든 갓에 때가 끼고 주점이 들어 당장에

형제마저 없어질것처럼 보인다. 그 마가리는 늘 기도전에, 시들어버린 어머니의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더 강렬하게 아들의 가슴에 남겼다.

그러한 어머니의 정상을 보면서 아들은 때로 술자리 한집도 송구장 몰래 밤에만 저다드려야 했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기미를 했는지 그가 어머니에게 드나든다는걸 짐작하고 구장은 그럴듯하게 순남일 《타일렀다》.

《일단 내 집에 들어왔으면 착실해야지 슬금슬금 판장을 봐서야 쓰나. 서로 진심이 오고 가야 나도 순남의 장래를 생각해줄게 아닌가.》

교활한 구장은 순남을 구슬렸다. 이제 색시감을 끌라 장가를 보내줄테니 그때 가서 어머니도 모시고 함께 살라는것이였다. 순남은 모든 억울한 천대를 참아가며 혹시나 해서 그날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두살에 한창 힘을 쓰는 장정이였다. 어깨가 짙 벌어지고 무쇠같은 다리가 성큼한 체구였다 말없이 일하는 실농꾼 머슴군을 영영 붙들어두자는 검은 속심이였다. 그는 후에야 그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삶바느질감이라야 한달치고 한두가지가 고작이였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어머니였다.

순남은 하루에도 수십바리씩 벼단을 실어날랐지만 그것 한단 떨어뜨릴수 없는것이 기가 막혔다.

한줌의 쌀이라도 보태드리고싶은 간절한 소망은 그로 하여금 벼이삭을 줏게 했다. 남들이 퍼더버리고 쉴때에도 그는 논판을 훑어 헤뎠었다. 점심도 그릇채로 쏟아놓듯이 퍼넘겼다. 벼이삭이 눈에 띄울 때마다 마치 보물이나 만난듯이 덥석 잡아쥐곤하였다. 한줌두줌 모은 《보물》을 논두렁 수풀속에 자기만 알게 감추어두곤하였다.

그날은 구장이 면에 가고 없는 날이였다. 하루 묵어온다고 했다. 이때라고 생각한 그는 그날 일을 부리나게 해치우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삭정한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이삭들을 다모았다. 한다래끼 수북하였다. 극상 쌀 한두되 박이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황금싸락》처럼 귀한것이였다.

하지만 그 한다래끼의 벼이삭이 그처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줄은 생각도 못했다.

래일 온다던 구장이 뜻밖에 당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스러져가는 버섯》마가리앞에서 딱 맞다들었다.

한순간 흠칫 했던 순남은 반발심이 일었다. 어쨌단 말인가. 무슨 몸쓸짓이라도 했던 말인가? 그는 버섯이 구장을 마주보았다.

도끼눈이 된 구장은 개화장으로 다래끼를 쿡쿡 찔렀다.

《음, 네놈이 보자보자 하니까 이런 도적질까지 하했구나. 내 예미가 살아가는게 수상하다 했다

니 이런 조간이 있었구나.》

순남은 이삭을 주운거라고 했지만 놈은 듣지 않았다. 벼단을 몽텅 잘라냈다는것이다.

그는 울퉁 일어서는 화를 참을수 없었다.

《생사람 잡지 마우다.》

《이 교현놈이 거짓말까지 한다. 그동안 내 눈을 속여가며 얼마나 많은걸 슬금슬금 빼돌렸을텐가.》

《뭐라고요?!》

순남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별의별 굴욕을 다 참아왔는데 나중엔 《도적》이 되였다.

《잔말말구 썩 내 집으로 돌아서지 못할가.》

《못가겠수다.》

그는 마주 소리쳤다. 더 참을수도 없었지만 참을 필요도 없었다. 벼이삭 한줌을 놓고 도적이요 뭐요 하는 피피한 놈에게서 더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장가를 들여주겠다고?!... 아직까지 속아산것만해도 분했다.

《더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수다.》

구장놈은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렇게 나울줄은 몰랐던가보다. 그러나 다음순간 코웃음을 쳤다.

《흥, 네가 들어오고프면 들어오고 나가고프면 나갈줄 아느냐.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해.》

《물론이지요.》

10여년간의 계산을 톡톡히 받아내야 했다.

지계를 벗어뺏개치고 그놈의 뒤를 따라간 순남은 그놈이 열고 들어간 방 미닫이앞에 버티고섰다. 맞은쪽 바람벽에서 두주먹을 부르친 억대우청년이 마주 쏘아보았다. 놈의 방에 걸린 대문짝만한 벽거울에 순남이자신이 비쳐든것이였다.

구장은 장부와 서류따위를 넣어두는 자그마한 함통을 꺼내놓았다. 백철판 장식이 있는 골동품이였다.

한참동안 수관알을 펴격거리던 놈은 아주 묘하고 놀라운 《계산서》를 조작해냈다.

우선 순남의 머슴살이 10년을 5년으로 줄였다. 열세살부터 3년동안 새물이, 소물이 기간은 그에게 공으로 밥을 먹여 키워주었기때문에 오히려 그 값을 받아야 하는데 7년간 삶전에서 2년분을 떼낸다는것이다. 그리고 순남의 아버지에게 마가리를 지어줄 때 쓴 채목이며 집터세, 로력비까지 《계산》에 넣었으며 상상으로 할수 없는 자질구레한 《생활비》라는것까지 덧붙였다. 결국 그가 물어야 할 《빚》은 아직도 30원이상이 남아있다는것이였다.

순남은 불기둥같은 분노에 리성을 잃었다. 나막신같이 투박한 짚신발이 미닫이를 냅다쳤다. 뒤따라 자라듯같은 두손은 함통을 닮은 채 들었다.

구장놈은 새까맣게 질려 옆으로 비켜앉으면서 방금 떨어지려는 함통을 향해 두팔을 뻗치고 눈을 홑떴다.

《이, 이놈아. 말로 해라, 말로.》

《에이 강도같은놈.》

순남은 기겁을 한 그놈의 상통을 향해 힘껏 함통을 내동댕이쳤다. 산산조각이 난 그놈의 《일굴》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와지끈 하는 새된 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휘뿌려진 조각들은 놈의 상통이 비껴들었던 거울이었을뿐이다. 한쪽 구석에 틀어박힌 구장은 사람 죽인다고 비명을 질렀다. 튕겨난 유리조각에 긁히었는지 그놈의 이마에는 실오리같은 피자국이 있을뿐이었다.

순남은 그밤으로 마을을 떠났다.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치마폭을 적시며 아들을 떠밀었다.

《아무래도 뒤일이 무사치 못할것 같다. 어서 멀리로 떠나거라.》

어머니는 갓난애기 베개만한 피나리보짐을 한쪽어깨에 걸메주었다.

찢어진 구름사이로 조각달이 어스름한 빛을 뿌리는 밤이었다. 어머니는 동구까지 굳이 따라나오며 허둥거리었다. 때이르게 시들어버린 병약한 녀인이 앙상한 손을 들어 어서 가라고 했다.

순남은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어 어머니를 인차 데려가리라 강심을 먹고 길을 떠났다.

나서 처음으로 고향의 지경을 떠나보는 그였다.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갈곳이 있는것도 아니었다. 뚝대도 없고 샛대도 없는 운명이 정착한곳은 흥남지구였다.

그는 직업소개소에서 힘꼴이나 쓸 일군으로 뽑혀 비료공장 보이랴에 석탄을 운반하는 《일공》로력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행운을 만난듯이 신이 나서 일했다. 남들이 두집 질 때 석집씩 저날랐다. 그만큼 샅전이 남보다 많았다. 하루 세끼를 족으로 에우고 50전이 남았다. 이렇게 한달만 해도 그에게는 큰돈이었다.

머슴살이를 말라던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게 되고 머지 않아 어머니도 좀 기를 펴게 될것 같은 희망에 힘든줄을 몰랐다.

허나 그것은 때이른 망상이었다. 하루 세끼를 족만 먹고는 남보다 더 많이느끼는 애초에 짐을 질수가 없었고 옆친데 옆친다고 공장주놈은 그날 그날 겨우 밥 사먹을 돈만 내주고 나머지는 전표딱지 놀음을 하였다. 배는 등가죽에 붙고 다리가 후들거려 지탱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그대로 어머니결으로 돌아갈수도 없었고 일자리도 더는 없었다. 어데 가나 숨막히는 세상, 솟아날 구멍수가 없는 신세였다.

그렇게 한구일이 지난 날이었다. 울적한 심사를 안고 점심을 에우자고 장거리 음식점을 찾아가던 순남은 뜻밖의 소식에 눈앞이 아찔하였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마을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것이다.

구장놈은 그가 묻지 못한 《빛》과 마사버린 거울, 문짜, 함통을 두고 《재산집해》요, 이마에서 흐른 피방울에 《구타》전을 걸어 순사를 불러왔다.

순사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대신 감옥에 끌어넣겠다고 행패질이였다. 순사의 구두발에 급소를 맞은 어머니는 운신을 못하면서도 오직 아들의 행처가 안전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있다한다.

전혀 후환이 없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악행이 가해질줄은 몰랐었다. 원한과 절망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누구를 때려엎고 무엇을 들부셔야 원이 풀리겠는지 막막했다.

가슴을 움켜쥐고있던 그는 움쭉 일어나 역쪽으로 걸음을 내쳤다. 마침 한시간후에 복행렬차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지만 그 뜻을 따를수가 없었다. 지체말고 돌아가 어머니를 구원해야 했다.

한참 걷던 그는 우뚝 섰다. 주머니에 든 돈이 손에 잡히었다. 창황중에도 누덕누덕 기운 옷이 상처자리처럼 눈을 찌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마당으로 되돌아선 그는 하절 교직 저고리감을 몇번 들었다놓았다 하다가 그보다 더 녹은 옥양목 저고리감을 꿇고 술을 한병 샀다. 아버지의 제사날이 멀지 않은것이다. 송구장네 집에서 순사요 면장이요 하는자들을 위해 뺨질나게 술병도 들고 다녔지만 아버지의 제사엔 제 손으로 마련한 술 한잔 붓지 못했었다.

어머니가 걸메주었던 피나리보짐에 저고리감과 술병을 싸서 병이 넘어가지 않게 손에 들었다.

잠시후 역에 들어가 차표줄에 서있던 그는 누군가의 눈길이 주시하는것 같아 머리를 돌렸다.

아니나다를가 낮익은 순사의 칼날같은 눈길과 부딪쳤다. 송구장네 술판에 자주 드나들던 주재소순사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예감이란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놈은 패재를 부리듯 여유작작하게 다가들었다.

《머칠째 찾았다. 아주 반갑다.》

《?!...》

《돈벌이를 할수 있는 흥남일판에 가있을거라는 송구장의 추측이 맞아떨어졌거던.》

놈은 순남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가자.》

낮으나 위압적이였다.

송구장의 청탁을 받은게 분명했다. 이랬던 저랬던 매한가지다.

《놓수다. 나는 제발로 주재소로 찾아가는 길이

니 수고를 안해도 되겠수다.》
 놈은 빈정거리듯 비죽이 웃었다.
 《너는 거기 주재소로 안가도 돼.》
 《?!...》
 (이건 또 무슨 공풍인가?)
 《송구장은 너를 징용에 〈선출〉 했단 말이다.》
 《뭐라구?!》
 순남은 팔을 나귀채며 벼락같이 소리쳤다.
 그럴수록 순사는 약을 올리듯 숨기지도 않고 내막을 털어놓았다. 송가네 친척 어느 족속대신에 그를 끌어넣었다는 것이다.
 순남은 더 생각할새 없이 놈을 떠박지르고 봄비는 사람들속을 뚫고 출입문쪽으로 내뿔었다. 허나 문턱에 섰던 한자의 발길이 그의 발목을 걸었다. 그는 공중거리로 무릎방아를 찢으며 꼬꾸라졌다.
 그찰나에도 손에 든 보구레미만은 가슴에 움켜안았다. 다행히도 술병은 깨지지 않았다.
 《일어서라.》
 살기쁜 눈길이 내려다보았다. 사복을 한 낯선 놈이었다. 그제야 순남은 순사놈이 혼자가 아니라는걸 알았다.
 뒤따라온 순사가 어쩔수 없는 순간에 그의 손에서 구레미를 나귀채서 팽개치고 철컥 수갑을 채웠다. 자근소리와 함께 보구레미는 흩어지고 깨진 병에서 술이 흘러나와 저고리감을 적시었다.
 《아니 저것?!》
 순남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묶이운 두손을 뻗었다. 허나 손은 가당지도 못하고 몸뚱이는 나동그라졌다. 순사가 그를 밀쳐버리고 구두발로 그것을 짓밟았다. 하얀 옥양목이 흙과 술에 젖이겨졌다.
 순남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놈을 견어차고 저고리감을 움켜쥐었다. 이번엔 놈의 구두발이 그의 손등을 지리밟았다.
 순남은 꺾이운듯이 목을 떨구었다.
 그의 피땀이었고 소망이 담긴, 그의 전 재산이였으며 인생 22년만에 처음으로 부모에게 드리는 아들의 가공한 지성이었던만 참혹한 운명과 함께 길바닥에서 풍지박산되고말았다.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어머니-》
 그는 호곡하듯 고함을 질렀다.
 순남은 이때 또 한번 논란의 허수아비를 생각했다.
 (사람이 이런 치욕을 당할바에야 차라리 허수아비로 영영 굳어지는것이 낫을것이 아닌가.)
 순남은 복행렬차가 아니라 다음날 남행 화차방통에 짐짝처럼 실렸다. 가는곳은 일본땅이라고 했다. 죽어서도 돌아올길 없는곳이었다. 어느 탄광이나 광산의 깊은 굴속에 묻혀 뼈도 추려내지 못할 지옥의 문을 향해 기차바퀴는 굴러갔다.
 벌써부터 지옥에 묻힌듯이 무덤고 답답한 방통

이었다. 숨이 막히었다. 가슴은 어머니생각에 타고타서 재가루만 덧쌓여갔다.
 어머니가 의지할 지평이는 되지 못할망정 그 가냘픈 심장을 허버대는 칼끝이 되고 불안과 공포의 불씨가 되어 가슴을 떨게 만드는 아들이다.
 이제나저제나 이 아들이 무사하여 불쑥 문전에 나타나기를 바라는것이 일루의 희망이기도 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도사리고있는 《염라국》으로 간다는걸 아시면 그자리에서 숨질지도 모를 일이다.
 달빛 흐린 그밤에 쓸쓸한 동구길에 홀로 남기고온 병든 어머니, 앙상한 손을 들어 바래주시던 어머니에게 단 한번 상봉의 기쁨마저도 드릴수 없게 되리라 생각하니 가슴은 점점 더 타들었다.
 목구멍을 지지며 입술까지 말라들었다. 숨막히는 더위와 가슴, 타는 갈증, ... 풀짐과 나무짐에 흠뻑 젖은 등을 식히며 주절주절 흐르는 내가에 넘적 없디여 벌떡벌떡 들이키던 꿀처럼 달고 얼음처럼 찬 산골 샘물이 그리웠다. 그 고향 샘물을 마음대로 마실 자유마저 빼앗긴 몸이다.
 이것도 저것도 더는 참기 어려운 밤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덜정 ... 덜정 ... 기차바퀴도 힘겹게 굴러갔다. 구배 심한 령길이었다. 호송병이 꼬나들었던 총대가 아래로 쭉 늘어졌다. 호송병의 고개도 가슴팍에 틀어박혔다.
 칙폭칙폭... 무쇠바퀴들도 지쳐버린듯이 헉헉 단김을 뿜었다.
 기회는 좋았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에 망설일것이 없었다. 순남은 입술을 악물고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팔다리 하나 다친데가 없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존의 희열에 가슴이 찌릿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중에 느낀 한순간의 본능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리긴 했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갈데가 없었다. 한찰나 우뚝 서있던 그는 맹목적인 본능으로 무작정 산속으로 깊숙이 뛰어들었다. 향방없이 헤매던끝에 날이 밝았다. 아침은 왔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 부근엔 순남이보다 경찰이 먼저 당도할것이 뻔했다.
 그 어디에 숨어든대도 또 잡힐것이고 조선의 술한 청년들처럼 징용, 징병에 걸려들 판이었다. 그는 마침내 엉영 목놓아 울었다.
 죽도록 일도 해보았고 지주놈에게 화풀이도 해보았다. 지주놈의 집에서 뛰쳐나와도 보았고 징용에서 도망도 쳤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쳐도 조롱속의 새였다.
 이 세상에 그가 살아숨쉴 공간이란 애당초 없었다.
 머리우엔 퍼런 하늘이 있고, 발밑에는 땅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옥밖에 없었다.
 세상은 넓고闊었지만 그를 보호해주고 운명을

건져줄곳은 없었다.

그때 만일 해방이 며칠만 더 늦었어도 순남은 산속에서 굶어죽었던가 목을 매 죽었을지도 모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가져다주신 해방이 그의 생명과 그의 운명을 구원해주었다.

허나 어머니는 그날을 보지 못했다. 고향엔 이미 어머니가 없었다. 쓸쓸한 표말둑과 뿔건 뽕잔 등이 순남을 맞아주었다. 아들때문에 순사님의 발길에 채워 자리에 누운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두 나를 《매리자》고 약속이나 한것 같았다. 저녁엔 흘러가는 텔레비존 화면에서도 《매》를 들었다.

주름살이 조글조글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로파가 두손을 뻗쳐 폰전을 구걸하는가 하면 돈때문에 배움의 길마저 버린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불량배로 떨어져 결국 수갑을 차고 감옥을 끌려가는 모습도 화면으로 펼쳐졌다.

사회주의를 버린 동유럽나라들의 참상이었다.

할아버지는 기회를 놓칠세라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너를 먹고 입고 살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네 장래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네 운명이 저 청년들과 달리 될수 있을것 같으냐?》

《...》

대답이 없는 나를 두고 할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셨다. 우리의 과거는 결코 지나간 옛말이 아니다, 지금 시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알고 처신하라고 했다.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할아버지의 말이 옳기는 했지만 이미 내 머리속에 자리잡은 《전망》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지 않았기때문이다.

그 침묵이 이처럼 가슴아픈 후회로 남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다음날엔가 할아버지는 주무시던 그채로 숨을 거두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로 진단을 내렸다.

사람들은 고령의 로인들이 앓지 않고 고통없이 죽는것도 큰 복이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자기를 위안할수가 없었다. 나때문에 돌아가신것만 같았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에 맺혔다.

어쨌서 그날 《할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성큼 하지 못했는가.

헌데 나에게서 아픔은 홀로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마음속 후회가 맺혀있는 때에 또 하나의 뜻밖의 일에 부닥쳤다.

전연지구에서 복무하던 만형이 적들의 도발적

인 무력행위에 다리에 중상을 입고 후방병원에 후송된것이다.

면회를 갔던 날 형은 혼연하게 웃으며 눈물이 글썽거리는 어머니와 대범하게 웃음짓는 아버지, 우울하게 서있는 나를 보고 오히려 위로를 했다.

《일없습니다. 나에겐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군인정신이 그대로 간직된 심장이 있으며 든든한 두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자리에 대신 설수도 있는 이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중상을 입고도 대범히 웃음짓고있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할아버지의 마지막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명심하거라. 우리의 과거는 오늘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필수가결의 정신이라는걸. 오늘뿐 아니라 계급투쟁의 력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틀어쥐고 가야 할 계급의 《채찍》이다.》

나는 눈길을 들어 웃고있는 형을 마주보았다.

나를 무척 사랑하던 형이다. 몇년전 군복을 입을 때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나를 보고 하던 말이 생각키웠다.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물론 어렵고 힘겨운 고비들을 겪게 될것이다. 그래서 더욱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청년대학》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고를 가진 형이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장손이, 장손이》 하며 더 사랑했을것이다.

내 가슴속에서는 할아버지의 의사를 따르고 형을 대신하고싶은 마음이 불쑥 솟았다.

나는 멋없이 들떴던 리기적인 《전쟁》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더 생각할것도 없이 입대를 청원하였다...

잔디밭에서는 메뚜기들이 푸드득거리며 달아다녔다. 멀리 논판에 허수아비는 여전히 서있다. 하지만 눈앞에 환형처럼 떠올랐던 《머슴총각애》는 없어졌다.

허수아비를 부러워하던 그런 날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것이다. 허나 나처럼 모두 행복을 누리려 하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나는 벗어들었던 군모를 똑바로 눌러썼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라보았던 거리와 황금전야에 힘있게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하였다. 그 거수경례에 할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은혜로운 조국을 지켜 한생을 총잡고 살려는 굳은 결의를 담았다.

높푸른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눈부신 태양의 빛발아래 약동하는 생물들과 대지, 그 모든것들이 나의 앞길을 축복해주는것만 같았다.

오소리굴앞에서

김청송

인간들이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두고 오늘이란 시점에 서서 희망찬 래일을 바라보며 살고있는것이다.

치욕스럽던 어제날에서 해방된 인간들은 행복한 오늘에 살면서 그 행복에 물젖어 도간도간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살곤 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것,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원한서린 어제날이다.

내가 오늘밤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수십발의 발파를 광광 터치고 갱밖에 나서니 이밤 따라 로은산쪽에서 점동새 한 마리가 유난스레 울고있는것이였다.

그 소리를 듣노라니 문득 3년전 내가 제대배당을 검덕광산에 끌어놓던 날 공훈광부 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옛이야기가 생각났다.

바로 그 점동새가 그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지?

점동- 점동- 점동-

점동새가 나를 갱구앞에 멈춰세웠다.

나는 새삼스레 갱입구쪽을 돌아보았다.

이 드넓은 갱입구가 어제날의 《오소리》굴 첫 입구였다고 누가 믿을수 있으랴.

초여름밤은 끝없이 깊어가고 있는데 나는 생각에 잠겨 그알을 뜨지 못했다. 그러노라니 광부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한방울 두방울 어둑컴컴한 굴안에서 무겁게 석수가 떨어지는 소리.

네발가진 오소리가 되어 비좁은 굴안에 쇠돌을 걸어차며 기어드나드는 광부들의 모습.

피터진 무르팍에 개가죽쫓박을 치매고 돌발에 다 꿰진 헌신짝을 두손에 끼고서 지계통에 퍼담은 쇠돌에 깔리워도 살아보겠노라 숨가쁜 한숨을 모두어쉬며 기어나오는 12살난 어린 광부의 그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그날 공훈광부아버지는 옛이야기를 끝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내 나이 16살이고 그 나이 겨우 12살이였네. 그가 숨을 모두어가면서 〈사람을-살-려-주-오-〉라고 피타게 소리쳤건만 그를 구원해줄 사

람이란 그 세상엔 하나도 없었네. 불과 한발자욱앞에서 나 역시 눈 번히 뜨고도 쇠돌에 묻혀 숨쳐가는 그를 보았을뿐이였네. 나도 쇠돌에 묻혀있었거던. 그런데도 감동받은 〈바가야로 나니까??〉 〈개새끼 무엇이냐??〉라고 고래고래 욕지거릴 하더라 말ियो.

지금도 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피타는 그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와 잠들수가 없네...》

이야기를 듣고보니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였다. 바로 60여년전이었다.

밤깊도록 울어에는 저 점동새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려고 찾아왔다 거무데이 《오소리》굴에서 묻혀죽은 어린 광부의 피타는 목소리나 아닌지...

12살난 어린 광부가 생죽음당한지 석달이 지난 어느날 그 《오소리》굴앞엔 웬 처녀애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의 나이 9살정도밖에 안되어보이는 이 처녀애가 바로 어린 광부의 누이동생이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 벌려 떠난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던것이였다. 그후 그 9살난 누이동생은 오빠가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그길로 자기 살던 마을에 돌아가 지주집아이보개로 온갖 고역을 치르다가 지주너편네의 구박에 못이겨 끝내 마을의 두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한다.

눈물겨운 이야기는 번개처럼 《오소리》굴에 날아들었다.

광부들은 저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고울었으나 그 어데 가 하소연할곳이란 그 세월엔 없었다.

그때로부터 밤이면 밤마다 오빠는 누이동생을 찾아 두런못가에 가서 울고 누이동생은 오빠를 찾아 검덕산에서 울고 있다는것이였다.

아! 점동- 점동- 점동-

《오누이》가 피타게 울고있는 이밤도 깊어가는데 나는 오늘 의 시점에 서서 이 드넓은 갱막장에서 울려나오는 또 전혀 다른 소리를 지금 듣고있다.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수수한 작업복을 입으시고 버들로 엮은 안전보를 쓰신채 광부들과 다름없이 인차에

오르시여 금굴의 수천척 지하막장을 찾아 들어오시던 그날 심장을 터쳐가며 만세의 환호를 웨치던 그 소리를... 저 하늘의 태양이 빛을 뿌려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지만 태양의 그 빛발도 땅속깊이까지는 비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광부들은 은혜로운 태양의 따사로온 빛발아래서 지심끝인 땅속에서도 힘든 광산일을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에 의하여 척척 해내고있다.

막장에서는 중앙의 어느 예술단 독창가수가 부르는 청고운 노래소리가 들려나오고 청년광부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실은 사랑의 인차가 사르릉거리며 오간다. 막장이 깊어가도 행복의 동음소리는 막장을 따라 우리곁에서 여전히 울린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셨기에 위대한 조국이 있고 그 따사로온 빛발아래 누리는 우리 삶이 있는것이 아닌가.

만약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 하시며 모든것을 아끼지 않아 으시는 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운명, 저 오누이와 달리될바 없지 않았으리라.

나는 저 소리를 무심히 듣지 않는다. 어찌 저 소리를 한밤중에 울다마는 밤새의 처량한 소리로 귀흘려 들을수 있으랴. 저 소리는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의 참삶을 안겨 주신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광부의 본분을 다하도록 깨우쳐주는 충고의 소리같이 내 가슴에 파고든다.

나는 다시금 갱입구를 돌아보았다. 불빛 환히 쏟아져나오는 인차에서 또다시 교대를 마친 광부들이 즐거이 웃으며 내리고있다.

나는 그들에게 격정에 넘쳐 웨치고싶었다.

(동무들이여, 무심히 걸지 마시라. 우리가 매일과 같이 드나드는 이 갱입구가 지난날 광부들이 눈물우에 눈물을 쏟고 죽음우에 죽음을 쏟아내던 그 《오소리》굴 입구였었다는것을 잊지 마시라.)

(함남도 단천시 검덕광산 검덕갱 로동자)

대지에 새기다

김금옥

이해따라 정월달의 날씨가 류달리 변덕스러운 것 같다. 며칠째 강추위가 계속되더니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교원들은 성근 채구멍에서 떡가루 쏟아지듯 내리는 눈발을 두고 올해에는 어김없이 대풍이 들것이라고들 했다. 농업전문학교 교원들이라 날씨를 두고도 농장원들처럼 농사와 관련시켜보는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

저녁무렵에는 바람까지 기승스레 일기 시작했다.

방금 교원들의 교수준비정형을 료해하고 현관 밖으로 나온 교무부교장 성현규는 회오리바람에 물려가는 눈가루를 지켜보며 추위도 느끼지 못한다. 그자리에 서있었다.

방학도 이젠 거의 끝나가고있다. 머지 않아 새 학기수업이 시작될 학교는 잠잠한듯했으나 강의 안락성과 직관물준비 등으로 긴장한 사업은 말없이 벌어지고있었다.

(림선생도 이젠 들어와야겠는데...)

그가 떠난 날자를 꼽아보며 성현규는 은근히 조바심을 느끼었다. 림택영이 방학기간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 리들에 나간지는 벌써 일주일째나 된다.

방학을 시작하지 며칠 안된 어느날이었다. 그때 림택영은 1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개별학습지도를 하기 위해 리에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성현규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한 끝에 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현규와 한낱한시에 이곳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후 오늘까지 한생을 교단에서 늙어오는 림택영은 오직 원칙과 규정으로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재고 평정하던 젊은 교원시절의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오늘까지 일하고있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규정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학생들은 이 무섭게 딱딱한 《규정책》선생을 두려워했고 그의 과목인 《작물학》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느라 무진애를 썼다. 그는 자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과실력순위를 정할 때 언제나 지나치다할만큼 까다로왔다. 이를테면 항상 자신이 강의한 내용의 범위와 자체 탐구과제로 내어준 문제를 가지고 현실과 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은 항목 어느 책에서도 찾을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것은 실습포전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들이 나서자란 고

향땅과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의 성장과 관련 된 그러한 답이어야 했다.

림택영은 자기가 내어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때와 장소가 따로 없이 학생들에게 묻곤하였다. 제정된 시간이 따로 없이 불의에 하군하는 그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학생들은 참고서적을 뒤졌고 들에서 자라는 곡식포기들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규정책》선생의 과목에 통과되지 못한 학생들은 더 아름다운 과제를 반군하였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림택영은 그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원정》의 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젠 나이도 있는데 사람이 그냥 한본새로 고 지식하단 말이야... 이 추운 날씨에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닐라니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건강치도 못한 사람이...)

성현규는 년중 그 무슨 중대한 행사처럼 반복되는 그의 《원정》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추운 날씨에 수고도 수고리니와 교원이 교수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방학이 끝나가도록 나가있으면 어찌자는건가.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이달말에 도에서 진행되는 교편물전시회에 내놓을 그가 하기로 된 《토양성분의 변화에 따르는 강냉이성장표본》이 지금 한심한 형편에 있는 것이었다. 성현규는 새롭게 시도한 그의 교편물을 처음부터 적극 지지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것을 거듭 강조하였었다. 그런데 림택영은 대형직관판들이나 만들어놓고 홀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탓할수 없는 것이었다. 부교장자신이 매번 어쩔수 없이 그의 《원정》을 승인하고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성현규는 생각할수록 민망한 생각을 금치 못했다.

성현규는 이제 전화를 걸어 림택영을 불러들이는 한편 시간이 촉박한 조건에서 오늘밤부터 농학강좌선생들과 밤을 새우면서라도 그가 시작하되만 교편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교편물은 이번엔 진행되는 전시회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기본부분을 이루고있었다. 그런데 림택영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해온다...

(래일부러는 일판을 벌려야겠는데...)

집을 향해 천천히 걷는 그의 눈앞에 림택영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다. 심장병때문에 늘 얼굴이 부석부석해보이는 그는 유순한 눈과 남달리

빨리 내린 흰서리로 하여 외형상으로는 마음좋은 촌할아버지같은 인상을 주나 실지 속은 무서운 사람이다.

년말에 1학기 학생들의 학과목성적총화회의를 할 때 있는 일이다.

그때 매 과목별 성적을 총화지으면서 성현규는 일부 교원들이 학과목성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구속감》을 주는 현상이 없지 않다고 한마디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추동하자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매 과목마다 그렇게 점수를 받기 힘들어서야 공부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학과목에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더우기 그렇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성적을 높이라는건 결코 아니지만...》

그 말을 듣자 림택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성미그대로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떠들떠들 말했다.

《부교장선생! 전 이해할수 없구만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농작물비배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우리 교원들이 대신 나가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점수는 그 학생의 학과실력을 재는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점수는 이제 그들이 다루게 될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땅의 주인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장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림택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내가 말은 <작물학> 점수는 현재 제출한데서 단 한점도 올리거나 내릴것이 없습니다.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방학기간 개별지도를 해서 실력을 올리겠습니다.》

그가 많은 교원들앞에서 정통을 찌르는바람에 성현규는 할 대답이 없어 참고말았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자기 생일날에 성현규는 림택영을 집에 초청했다. 그러나 그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집에 찾으러 보냈던 아들이 심드렁해서 돌아왔다.

《몸이 불편해서 못가니 섭섭해하지 말래요.》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다. 종시 마음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던 성현규는 그날 오후 술 한병을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으나 몸이 좀 불편하다 한들 술 한잔쯤이야 못하겠는가?...

림택영의 안해가 그를 맞아주었다.

《림선생이 앓는다지요?》

《앓아도 제대로 앓거나 하는줄 아세요? 방금 읍농장엘 나갔습니다. 며칠전 읍농장에서 년간 결산분배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면서... 무슨 큰일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까지 참견하누만요. 참 무슨 성민지...》

성현규는 그의 푸념에 허허 웃고말았다.

정말 그의 성미는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 성적이 낮은 학생지도를 위해 《원정》을 떠나겠다고 할 때, 성현규는 그의 건강에 대해 한마디 했을뿐 막아나설수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남이 안하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친구간의 정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고싶었으나 그가 자기의 충고를 리해할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떠날 때 교편물제작에 대해 강조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학습지도라는게 끝이 있는 일인가?... 이제는 빨리 돌아와야겠는데...)

강의안작성도 그렇고 당장 도에 제출할 교편물 준비를 끝내자 해도 기일이 빠듯한것이였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이 제일 가슴에 걸렸다. 그 교편물전시회에 등수에 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품을 들여온것이 다 허사로 될수 있었다. 학교의 명예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성현규는 교무행정사업을 바짝 짜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었다. 매일 출근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방학기간에 미진된 교수준비를 말끔히 끝내도록 하는 사업을 조직하는 한편 전화를 걸어 림택영을 불러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성현규는 눈가래를 들고나와 밤새 내린 학교구내의 눈을 치기 시작했다. 뒤미처 출근한 교원들도 눈치기에 달라붙었다.

여러 교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치기를 끝냈을 때였다. 농학강좌장이 성현규에게 다가서며 강좌실에 있던 교편물들을 어디 건사했는가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어데 갔겠소. 찾아보오. 오늘부터 강좌에서 그걸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오. 전화를 걸어 림선생도 불러들이겠지만...》

성현규는 학교기숙사며 실습농목장이며 학교구내를 한바퀴 돌아본후 사무실로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 교무지도원이 쪽지편지 한장을 그에게 주었다.

《어제저녁 부교장선생님이 퇴근한 다음에 림택영선생이 왔었습니다. 신정리에서부터 꼬박 걸었다는데 온몸에 눈을 뒤쓰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사방이 눈이니 길을 헛갈려 하마트면 온밤 벌판에서 헤맬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편지 뭐요?》

성현규는 의아한 기색으로 편지를 받았다.

《아침에 부교장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두 령너머 리들에 마저 다녀와야겠다

면서... 직관들도 선생이 가져갔습니다.》

《뭐요? 좀 만류하는 말을 안했소?》

성현규의 물음에 교무지도원은 침묵을 지켰다.

(이제 전화를 걸어 불러들일 생각인데... 다시 나가다니... 더구나 이 눈천지에 차도 다니지 않겠는데...)

성현규는 편지를 펼쳐들었다.

《부교장선생, 신정리에서 돌아와 학교에 들렀소. 령너머 풍미, 안풍지구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마저 하려고 아침일찍 떠나려고 합니다. 이번에 령너머 지구들을 돌아보고 금풍리에까지 들려 서옥희학생을 만나보고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옥희?!...)

성현규는 편지를 든채 창밖의 설경을 한동안 내다보았다.

순간 그의 머리에는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제작년 8월, 농학과 학생들의 졸업을 앞둔 때였다. 그때 서옥희학생은 립택영이 담당한 《작물학》이 3점으로 평가되어 우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현규는 고집이 센 립택영을 설복시키기 위해 무진애를 썼다. 한과목때문에 어떻게 보통의 《졸업증》을 주어 내보내겠는가고...

《그 학생은 농작물성장에 따르는 비배관리지식이 약합니다. 그런 그가 농장에 나가면 땅을 다루는 데서 보통생의 성적을 가지고 일할게 아니겠소. 현장에 나가는 옥희학생이 제구실을 하도록 나도 돕겠지만 그도 자기 실력을 알아야 더 분발할게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드림이 없었다.

현규는 한동안 생각을 고르다가 심중의 말을 비치었다.

《립선생, 선생과목 하나때문에 학교의 전반적인 성적이 낮아진단 말이요. 이왕이면...》

현규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택영의 목소리가 가로챘다.

《그때문에 나도 마음이 피로소. 하지만 그때문에 우등으로 올려놓을수야 없지 않습니다. 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랑심이...》

택영은 이리고나서 심장이 다시 말쑥오는지 한 손으로 가슴을 툭툭 두드렸다.

성현규는 그때 그이상 그를 더 설복할수 없었다.

(음...)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성현규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같은것이 흘러나왔다.

금풍리는 택영이가 갔던 안풍지구에서 50여리가 넘는다. 이 눈길에 거기까지 가다니...

나이가 많아지면 젊었을 때의 성질도 수그러드는 법인데 이사람은 그와 정반대였다. 오래동안 그와 함께 일해오면서 《규정책》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성질때문에 속상한 일도 더러 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인간의 새로운 측면을 하나 더 발견한것 같아 혀를 차게 되는 것이었다.

성현규는 앞에 앉은 교무지도원을 향해 정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되겠소. 내 래일 도에 출장가는 길에 그 선생을 만나야겠소. 빨리 들어오게 해야지. 우선 그 선생 몸이 견뎌내겠소...》

...다음날 도소재지까지 가는 교육기자재공급소차를 리용하여 성현규는 출장을 떠났다.

날씨는 푸근한데 눈꽃이 희롱하듯 맴돌며 내린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 들겠군... 허긴 옛사람들 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지.)

성현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눈덮인 산과 들을 바라보았다. 차가 가파로운 경길을 힘겹게 넘어 달릴 때였다. 창밖에 언뜻 눈길을 돌리던 성현규는 눈덮인 길옆의 발가운데서 무엇인가 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잠시 그들을 눈여겨보던 성현규는 운전수에게 급히 차를 세우도록 했다. 분명 그들속에 립택영이가 있는것 같은감이 들었다. 그의 추측은 옳았다. 솜옷을 입고 털모자를 내려쓴 립택영이 이곳 풍미지구의 학생들을 데리고 땅을 파헤치고있었다.

《립선생!...》

성현규는 그를 부르며 발가운데로 들어섰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립택영은 갑자기 발머리에 나타난 성현규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도에 출장가는 길이요. 그러잖아도 립선생을 만나지 못할가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요. 여기서 만난게...》

성현규는 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며 물었다.

《그래 뭘하오? 여기서...》

성현규는 그들이 눈을 헤치고 파놓은 흙이며 그것이 담겨진 비닐봉지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학생들이 우선 자기가 사는 고장의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 이 밭의 토양까지만 분석을 하면 여기 풍미지구 매 논밭의 흙은 다 만져보는 셈이요. 그리고 작물의 수확고와 결부하여보면 확고한 지식을 산 자료로 얻을수 있소.》

립택영은 이곳 중학교 화학실험실을 리용한데 대해서도 말하였다.

《립선생!》

성현규는 그가 학교에 빨리 들어가야 할 사정을 몇가지로 이야기하였다.

《그게 무슨 큰일이겠소? 강의안도 돌아다니며 이젠 거의다 썼소. 그리고 교편물도 걱정마오. 다 해낼테니...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발머리에서 생석회 구워내는 일까지 이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림선생!》

성현규는 학생들이 들을세라 그를 멀리 이끌고 차가 있는 길로 나왔다.

성현규는 어딘가 부은듯한 림택영의 얼굴을 아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집부리지 말고 들어가오. 오늘중으루... 알겠소? 림선생!...》

《부교장선생, 난 어쨌든 금풍까지 갔다가 들어가겠소. 지난해 초봄에 군경영위원장장동무한테서 전화받은 일을 잊었소?》

림택영의 순한 눈가엔 어쩐지 물기가 어렸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성현규는 흠칫 몸을 떨었다. 성현규 자신은 까마득히 잊고있는 일을 림택영은 수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잊지 않고있다.

성현규는 더 림택영의 등을 떠밀수 없었다.

《어쨌든 하던 일을 될수록 빨리 끝내고 학교에 들어가오.》

성현규는 한마디 덧붙이고 다시 차에 올랐다.

(서옥희를 꼭 만나겠단 말이지?...)

지난해 초봄에 군농촌경영위원장이 학교에 걸어왔던 전화생각이 다시금 떠오르는것이였다.

《부교장선생! 작년 졸업생중에 서옥희라는 동무가 있었소?》

《예, 있었습시다.》

《그 동무에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작업반실정에 맞게 봄철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할데 대한 해설제강을 하나 만들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껍 힘들어하더라 말어요.》

그는 허허 웃으며 더 다른말 없이 전화를 끊었으나 성현규는 온몸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서있었다. 저녁총화모임때 성현규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강의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실습을 정확히 진행할데 대해 강조하였었다. 그런데 림택영은 그 일을 지금도 가슴에 새겨두고있는것이 아닌가.

성현규는 회의에 참가해서도 줄곧 생각에 잠겨있었다. 1학기동안 각급 학교들의 교수진행정형을 총화하고난 회의에서는 교수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새학기부터는 교무행정사업을 더 짜고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안고 성현규는 군으로 내려오는 빠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실경을 내다보며 성현규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새학기 개교를 앞두고 미진된것은 무엇인가?...

림선생은 그동안 학교에 들어갔는지?... 생각은 어느때없이 착잡했다.

읍거리가 바라보이는 경길을 넘어서 달리던 빠스가 련이어 요란한 경적을 울리는 소리에 성현규는 앞을 내다보았다. 목수건을 손에 쥔 한 처녀가 빠스의 경적소리도 듣지 못한듯 곧추 앞으로 뛰어가고있다. 차가 등뒤에 거의 이르러서야 와플 놀라며 길옆의 눈무지에 비켜선다.

《정신이 없는 처녀로군...》

차안의 사람들은 처녀의 소행에 저마다 혀를 찬다. 눈무지에 빠졌던 처녀는 성급히 길로 나와 빠스와 달리기 경기라도 하듯 두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온다. 그러다가 점차 멀어졌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지...)

얼마후 성현규는 읍거리로 들어서는 입구에 자리잡은 학교앞도로에서 내렸다. 해질무렵이여서인지 날씨는 빠르게 얼어드는듯 추웠다.

학교청사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 현관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문간에 교무지도원의 안경끈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얼굴기색이다.

《그동안 수고했소.》

성현규가 먼저 인사말을 했다.

하지만 교무지도원은 여전히 어두운 기색으로 말했다.

《오늘 오전에 림선생이 구급차에 실려들어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교무지도원은 점심무렵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내려갔는데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운 림택영을 소생시키느라 온 병원이 떨쳐나섰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금풍리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 구급차가 급히 나갔답니다. 심장상태가 말이 아니랍니다.》

(종내 고집을 부리더니 쫓쫓...)

성현규는 그달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제는 졸업하고 나간 학생인데 그 〈보통성적〉 하나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갔단 말인가?...)

물론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심정은 십분 이해되였다. 하지만 자기 건강이 이 지경이 되는건 왜 생각을 못한단 말인가.

숨차게 병원 현관에 들어선 성현규는 구급과 치료실로 들어섰다. 방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성현규는 흠칫 놀라며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꺼칠한 볼, 폭 꺼진 눈썹, 더 희어진듯한 머리...

림택영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던 젊은 의사가 성현규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차츰 안정이

될겁니다. 심장이 좋지 못하는데다가 지내 무리했
던것 같습니다.》

성현규는 어쩐지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부교
장인 자신에 대한 비난과 욕설처럼 들렸다.

《부교장선생, 언제 왔소?》

림택영이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성현규는 림택영의 침대곁으로 다가섰으나 판
사람처럼 된 그를 대하자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
다.

《림선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만
큰 말해도 듣지 않더니. 원…》

《부교장선생! 저 의사가 아니었다면… 난 이번
에… 살아나지 못했을거네… 빨리 들어와 교편물
을 마저 만들려고 했소… 그런데 내 몸이…》

(?!)

물방울이 잡히고 험상하게 터갈라진 그의 입술
은 가늘게 떨렸다.

《택영이!…》

성현규는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누르며 그의
두손을 꼭 움켜잡았다. 이때 다급한 발걸음소리
에 이어 출입문이 열리는 인기척에 성현규는 몸
을 돌렸다.

(?!)

숨웃도 입지 않고 목수건을 손에 쥔 처녀가 방
안에 들어섰다. 성현규는 선뜻 처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한여름에 마라손경기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은 땀에 젖어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사
색이 된 그의 얼굴은 컴컴하게 죽어있다.

아까 배스를 타고오면서 본 그 처녀가 바로 옥
희였음을 현규는 알아볼수 있었다. 그는 놀라움
에 두눈을 홑뜯쳐 물었다.

《아니? 옥희가 어떻게 된 일이요?》

《부교장선생님!》

쓰러질듯한 몸을 지탱하며 서있던 처녀는 성현
규를 알아보는 순간 그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
다.

《선생님! 절 용서해주십시오. 저때문에… 저때
문에 림택영선생님이…》

처녀는 말끝을 못맺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
고 하염없이 어깨를 떨었다.

《…》

현규는 아무 말도 못한채 우두커니 서있기만
했다.

둔중한 쇠뭉치에 머리를 맞은듯 정신이 뻥해왔
다.

이윽고 처녀는 림택영의 앞에 다가가며 머리를
숙인채 말하였다.

《전 선생님들이 졸업중에 올려주는 한점한점의
점수가 제가 가꾸는 고향의 땅에 그대로 찍혀진
다는것을 지난 한해농사를 짓는 과정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점수가 그대로 대지에 찍혀
진단 말이지… 그러니 림택영 저 사람은 대지에
자기의 피땀이 스민 5점을 새기기 위해 한명의
보통생을 두고도 그리도 안타까와하며 언제나 오
늘이나 변함없이 교육자의 참다운 길을 걸은것이
아닌가?!)

현규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지는것을 느꼈
다. 차마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얼굴이 달아올랐
다.

《전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졸업후 우등 <졸업증>에 위안이 되어 선생님과
한 약속마저 어기고 배운 지식을 다지지 않다보
니… 선생님이 힘든 걸음을 하시게 했구… 이번
에도 선생님은 저와 함께 우리 분조 포전별 토양
분석을 다시 하고 질 좋은 부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느라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결국은 이 지경
을…》

옥희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싸쥐며 흐
느끼기 시작했다. 방안에는 그의 흐느낌소리만이
울리고있었다.

처녀를 더듬어보는 림택영의 눈가에는 어느덧
맑은것이 맺혀돌았다. 문득 성현규는 좀처럼 웃
지 않는 림택영의 얼굴에서 제자의 성장을 두고
기뻐하는 스승다운 기쁨의 미소가 어리는것을 보
았다.

성현규는 지금에 와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으
면 좋을지 몰랐다. 림택영은 처녀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자기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가슴을 허뻛다. 성현규는 그들
의 앞에 그대로 서있을수 없었다. 성현규는 깨끗
한 눈이 덮인 병원앞 마당가를 천천히 거닐기 시
작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질줄 아는 저 젊고 유능한
의사처럼 이제 옥희도 땅의 운명을 책임진 당당
한 농업기술인군으로 자라날것이다. 그런데 나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게도 내가
표방하던 우리 학교의 명예에 나의것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아!…》

현규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혼을 심장깊이 새긴 사람이
라면 누구든 농사일때문에 당에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 하다면 교육자로서 나는 실속있는 농업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내어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
의 뜻을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받
들어나가야 할것이였다.

부지중 뼈아픈 자책감이 갈마들어 또다시 가느
다란 신음소리를 내었다. 너무도 엄청난 결과가
피부와 심장으로 느껴졌기때문이다. 성현규는 무

수히 찍힌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왜그런지 어디론가 자꾸만 견고싶다.

림택영은 자기 생의 모든것을 참다운 인재육성을 위해 바치고있다. 그는 학생들의 학과성적 한점한점을 자기 심장의 피로 기록하며 온몸에 고통치는 그 뜨거운 녀트로 후대들의 성장을 걸음걸음 이끌어주고있다. 그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끼지 못한 나의 심장은 얼마나 얼음장같은 심장인가! 림택영이 참다운 교육자의 양심을 지켜가고있을진대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현규는 고개를 수긏하고 거닐었다. 발밑에서 빠드득 빠드득... 눈발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교육은 림택영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

지고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진대 그 성스러운 교단에 설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는것이다.

성현규는 왜그런지 자기의 심장이 아파오는것을 실지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심장에 병이 든건 림택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성현규는 희읍스름히 눈이 덮인 멀리 보이는 넓은 대지를 새로운 눈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오곡이 자라나는 단순한 땅이 아니였다. 조국에 만풍의 황금벌을 안아올 기술인재의 알찬 씨앗들에 스민 교육자의 피와 땀이 열매맺는 류다른 뜻이 깃든 대지이기도 하였다.

내 고향은 연백벌

채동규

연백벌

여기가 내 고향이다
서른나이 이날까지 나를 길러준 땅
우리 어머니 새색시때 입으셨던
옷장속의 하얀 비단저고리마냥
어딜 가나 포근포근 더운 정 넘치는 땅

이 땅의 모든것은
못견디게 나를 매혹시킨다
해뜰 때 슬쩍슬쩍 들가에 나와
감았던 눈을 크게 떠보면
벼포기마다 아롱지는 억만개 이슬방울
논두렁엔 입노란 개구리들
마을길엔 덩굴덩굴 강아지들
초저녁 어스름속에서 들새들의 재잘거림...

연백벌 대자연의 무아경에 빠져
냉이꽃 뜯고
빨강게 익은 프락프락과 수로가에 미역도 감고
길녘의 벼이삭 탈곡장에 들고가며
겨울이면 수고많은 어른들께 더운 물도 드리며
내 어린 시절은 꿈속같이 즐거웠다

한가위날이면
조상들 묘앞에 햇쌀밥 떠놓고
이웃들은 내게 이야기해주었다
어진 마음 후한 인심 귀히 간수해가는
내 고향의 좋은 풍습에 대해
분여지 말뚝을 무명천에 싸 묻어두고
이 땅 지켜 목숨바친 할아버지들에 대해
근면한 땀과 노력을 섬겨온 부모들에 대해

그렇다, 나는 연백벌에 태를 묻고
이 하늘 해벌에 살갓을 그슬리며 자란 몸
내 고향 녀트로 육체가 이루어졌고
내 고향 축복속에 이 들판우에서 청춘을 시작한
나는 갈데없는 연백벌의 살붙이

아침마다 풍년노래 구성지게 넘기며
들바람 시원한 벌가에 나서면
내 고향 연백벌!
이 땅에 대한 정으로 내 마음 부른다

가슴가득 사무치는 이 정을 안고
내 고향 더 보람지게 가꾸어가리라
두팔로는 안을수 없는 이 땅
정으로 고루 더웁혀가리라

연백벌 농사가 잘돼야
내 나라 쌀창고 풍성해지고
연백벌 농민이 도리를 잘 지켜야
자식들의 식탁에 한평생을 기울여오신
우리 수령님 길이길이 영생하시고
연백벌 청춘이 쌀곡탄 추켜들어야
장군님 높이 모신 사회주의 조국 지킬수 있거늘

아, 어머니조국의 풍만한 가슴-연백벌
정으로 충만된 농민의 참사랑 지니고
영원히 내 고향 연백벌의 아들로 살리라
여기서 웃고 떠들고 노래도 부르며
여기서 사랑과 증오의 시를 지으며
날마다 들에 몸을 묻어 정을 나누며...

시위서기의 마지막 하루

(중국) 림원춘

1

전쟁의 포연에 그슬리고 거칠어지고 틱틱해진 우툴두툴한 그의 얼굴처럼, 팽이자루에 멍이 지고 더께앉고 마디진 솔뿌리같은 그의 손처럼 그의 성미는 모진 세파에 휘말리고 뜯기고 굳어진 드림없는 청석바위같았다.

그의 성미처럼 사업을 내민다손치면 골짜기를 메우는 돌사태처럼, 언덕을 삼키고 바위를 굴리며 터져내리는 산홍수처럼 그는 대오의 앞에서 지체없이 달리곤했다. 그러다가도 폭우가 휘몰아친 뒤끝의 고요히 잠든 호수처럼, 광풍이 밀고나간후 날짐승이거나 길짐승들의 소리마저 들을수 없이 잠잠해진 깊은 원시림처럼 그는 사색의 실타머리를 소리없이 깊은 골짜기와 넓은 바다에로 끌고가곤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였다. 시위서기는 이런 사람이였다. 사자같은면서도 황소같은 사람이였다.

지금 시위서기는 홀로 사무실을 거닐고있다. 이때까지 고독과 적막이란 모르던 그다. 그가 사무실에 있을때면 그의 그림자처럼 기관간부, 종업원들, 시민들이 실재없이 찾아들던 사무실이다. 손기척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오가는 말들이 잦을줄 모르고 전화벨소리가 꼬리를 물고 항상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사무실이다.

이때까지 고독과 적막이란 모르던 그다.

지금 시위서기 박철준은 뚝뚝뚝 사무실을 거닐고있다. 그는 처음으로 고독감을 느낀다. 방금까지 있었던 그 들썩하던 기분을 다시 살리려고 그는 귀를 강군다. 이제껏 방안이 떠나갈듯하던 그 웃음소리가 구석마다에서 회오리치는듯싶었기 때문이다. 하건만 정적을 물어뜯으며 울리는 자동차경적소리만이 은은히 들릴뿐이다. 웃음꽃을 피우던 그 얼굴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것 같아

그는 방안을 살살이 훑어본다. 하건만 자기가 메던 짐을 이어받아 계속 떠밀고 갈 사람들이 남기고간 담배연기만 그물그물 떠돌아다닐뿐이다. 그때에야 그는 이 방에, 권총이 달린 혁띠를 벗어놓고 처음으로 들어선 이 방에, 고작해야 공장 이랍시고 작은 농구공장밖에 없었던 이 시내를 현대화된 비단공장, 뺨스공장, 중형농기계공장들로 일떠세운 그 모든 설계도들이 구상된 이 방에 홀로 있다는것을 느낀다. 웬 영문인지 까닭없이 물려드는 고독과 적막속에서 시위서기는 방안을 거닌다.

그는 자기의 손부리에 다슬고 손때묻은 책상을

어루쓸어본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책상을 남에게 물려주고 이 사무실을 떠나게 된다.

(혁명대오에서의 마지막 하루...)

시위서기의 자리를 나젊은 사람에게 물리겠다고 자신이 먼저 제기했고 견결히 요구했건만 정작 이제 곧 떠난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갈마들었고 지어 슬픔이 허파를 물어뜯기도 했다. 한평생 자신이 싸워오던곳을 떠난다는, 라스트선에 닿지 못하고 계주봉을 넘겨야 한다는(물론 영원한 라스트선이란 있을수 없지만) 그 생각이 줄지에 그를 고독과 적막에로 끌어갔던것이다.

시위서기는 종잡을수 없는 착잡한 감정에 모대기면서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방안을 거닐 시간도 그에게는 많지 않았다.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헤아려야 했다.

《똑똑똑...》

그의 발자국소리를 물어뜯으며 손기척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문소리와 함께 낡은 작업복이나마 깨끗하게 빨고 기워입은 나이가 50을 헤아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시위서기를 보자 어쩔바를 몰라하면서 앉을자리 설자리 찾지 못한채 웃는상도 아니요 우는상도 아닌, 무어라 딱히 짚을수 없는 낯을 하고 서있었다.

《자, 어서 오시오!》

시위서기가 쏘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으나 그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모양 그대로 서있기만 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자, 앉아서 천천히 말하오!》

박철준은 그사람의 곁에 가서 떠밀다싶이 하여 쏘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고뿌에 더운물을 부었다. 그는 그 누가 찾아오나 이렇게 하는것이 습관으로 되었다. 30여년 굳어진 습관이였다.

《자, 가치담배는 없지만 잎담배는 얼마든지 있소.》

박철준은 곰방대와 담배쌈지를 꺼내여 그의 앞자락에 놓으며 히죽이 웃어보였다. 그제야 그 나이는 쏘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날숨과 들숨을 쉬는것처럼 말을 반은 밖으로, 반은 목구멍으로 삼키며 들릴듯말듯 말했다.

《그날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기뻐지요.》

지나친 긴장성으로 하여 얼굴의 주름살마저 팽팽해졌던 그의 낯에 순박한 미소의 여운과 함께

잔주름이 파문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뜻하지 않은 낯선 손님의 첫마디 말은 시위서기를 무어라 말할수도 물을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뜨렸다. 시위서기질 30여년에 술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첫마디에 개여올리거나 대바람에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상대했지만 제멋에 기뻐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기때문이다.

《자, 무슨 일인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요.》

《기쁨이요?》

낯선 손님은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던지 시위서기를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실망의 그늘을 지으며 맥없이 말하는것이였다.

《날아나버렸습니다.》

《날아나다니?》

《시위서기동무, 건설로 1호 아파트를 어떻게 분배합니까?》

생판같은 이 물음에 박철준은 더욱 어리뻑뻑해졌다. 누구에게 몇평방미터짜리 집을 주는지 그런 구체적인 일까지는 모르고있는 그였기때문이었다.

《시위서기동무, 저는 비닐제품공장 노동자 최종섭입니다. 우리는 20여년간 13평방미터밖에 안되는 집에서 여섯식솔이 살아웁니다. 그것도 새세대가 말입니다. 이번에 당의 배려로 60평방미터나 되는 건설로 1호 아파트 203번지에 들게 됐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지요. 이 소식을 듣자 우리 온 집식솔들은 새집들이 이야기로 밤을 꿔습니다.》

최종섭은 즐거웠던 그날의 회포에 잠겨서인지 주름살마다 웃음의 잔파문을 그려갔다. 그러다가 금시에 낯을 일그리며 꼭 다문 입술을 파르르 떠는것이였다.

《글쎄, 다 들게 된 이 집에 45평방미터에서 세식솔이 살고있는 김승현공업국장이 든다지 않습니까?》

《뭐요? 김승현?》

《공업국장은 새집을 지을 때마다 이사를 하는데 이번까지 옮기면 세번이나 새집들이를 하는셈입니다. 시위서기동무, 노동자사택이라고 이름지은 건설로 1호 아파트에 왜서 80프로이상 시장이거나 국장, 주임들을 들게 합니까?》

《계속 말하오!》

시위서기는 곰방대에 담배를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시위서기동무, 벼슬하는 사람은 배려를 먼저 받고 몇배로 받아야 합니까? 인민이 준 권력을 이런데 써야 합니까? 지금 어떤 간부들한테서는 팔로군작풍이거나 토지개혁때 작풍을 찾기 힘듭니다. 어떤 마음 착한분들은...》

최종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위서기를 쳐다

본다음 믿음이 가는 시위서기의 눈길에서 힘을 얻었던지 서슴없이 말꼬리를 물어내려갔다.

《저를 보고 뜰베소처럼 떠박지르지만 말고 분기식에 수류탄 뒤통에 쓰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명언처럼 유행되고있습니다. 삶은 삶에 술 뒤병이면 소개신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안되오. 그런 경무기는 초시기에 쓰던거요. 지금은 중무기-록음기거나 텔레비죤, 시계, 자전거 따위들을 써야 하오. 지어 원자탄까지 쏘단 말이요. 그렇지 않소? 종섭동무!》

박철준은 눈섭을 쫓기하며 구김새없이 종섭의 말에 덧짐을 얹었다.

《지금 건설로 1호 아파트에 그냥 이름을 걸고 있는분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회관계학을 연구하고있고 또 리용하고있단 말이요. 동무가 말한 그런 큰인물들과 애써 연줄을 달고 가까이 접근하려 하고있소. 그렇지 않소? 허허허.》

너무나 소탈하고 너무나 뒤를 감출줄 모르는 시위서기의 말에 최종섭은 시위서기가 왜 저러나 싶어 어정쩡해진채 다시 그의 얼굴을 간간히 뜯어보았다.

《자, 나를 보지만 말고 내 귀청이 아프도록 말해주오.》

《벌써 다 알고계시면서두요... 한가지 잊었습니다. 이번 건설로 1호 아파트에 우리 공장의 공장장 몫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장은 40평방미터도 넘는 개인 벽돌사택을 가지고있었는데 이번에 높은 값으로 팔아버리고 건설로 1호 아파트에 들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업국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장에 대하여 쓴 신소장이 공장장의 손에 들어갈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요?》

눈언저리 그 어데나 믿음과 인자함이 어렸던 시위서기의 눈길에 찬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조직규률성이 없다, 좋은 사람을 무함했다 하면서 회의에서 비판하고 반성문까지 쓰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직적처분을 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래 반성문을 썼소?》

《네.》

최종섭은 작업복호주머니를 들추더니만 꼬기꼬기 접은 종이를 시위서기앞에 내놓았다. 박철준은 눈길 한번 까딱하지 않고 그 종이를 폈다. 종이첫머리에, 《반성문》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신소자료(2)》라는 큼직한 글발이 안겨왔다.

《종소, 흘롱하오!》

《시위서기동무, 저는 보통당원입니다. 그릇된 점이 있으면 당적높이에서 지적해주십시오.》

최종섭은 신소자료를 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잠시 나에게 맡기오.》

그는 최종섭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며 뒤따라 일어섰다.

《종섭동무, 집은 어디 있소?》

《장강로 12조 5호에 살고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온 집식구가 웃음으로 밤을 잤습니다.》

최종섭은 입버릇처럼 이 말을 되뇌이며 박철준의 손을 놓고 문을 나섰다.

《종소. 내가 있는 한 아니 내가 없어도 이 사무실문은 항상 열려있을거요. 아무때건 찾아오오. 나도 잠을 타서 찾아가겠소.》

최종섭을 문밖까지 바래고난 박철준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다시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그 걸음새 그대로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방금전까지 있었던 고독과 적막에 휩싸여서가 아니라 전우의 그릇된 행실에서 오는 울분때문에서였다.

《김승현...〈무산대중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목숨이 다 됩니까?〉 이렇게 웨치면서 혈로를 뚫던 사람이... 싸움터에서 피흘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마저 잊으면서 싸우던 사람이... 김승현...》

박철준을 로전우의 이름을 되뇌이며 불안한 마음 그대로 창문가에 다가섰다. 짙은 석양이 마지막 꼬리를 남기며 줄지어선 아파트사이로 사라지고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저녁녘의 고요를 깨뜨리며, 시위서기의 깊은 사색의 실머리를 형클어뜨리며 전화벨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박철준은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박서집니까?》

수화기에서 귀익은 석심한 소리가 울려왔다.

《승현이요? 나요.》

박철준은 전에 없이 랑미간을 찡그리며 기분없이 대답했다. 전갈으면 말에서 웃음꽃을 보듯이 기꺼웁게 주고받으면서 오가는 말일것이었던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어데 편치 않습니까?》

말에서 기미를 느낀 김승현이 관심조로 물었다.

《아니요. 승현이, 무슨 일이요?》

《술 한잔 나눌가 해서 그러니까. 방금 집에 다녀왔는데 여직 퇴근하지 않았더군요. 곧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럴새가 없소. 이다음 찾아가지.》

박철준은 승현의 말을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내동댕이치듯 수화기를 탕 놓아버렸다. 그리고는 사무실문을 나섰다. 자신이 다하지 못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아, 보통로동자의 집을 찾아 그는 종로거리로 나섰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박철준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을 청소하고있었다. 이 사무실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비자루와 걸레였다. 30여년 손수 닦아오건만 어쩐지 먼지와 때가 그냥 묻어있는것만 같아 오늘아침엔 알심있게 쓸고 닦고 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무실을 새로 부임되는 시위서기에게 물려주고싶었던것이다.

출근종이 울린지 이속해서야 박철준의 부탁을 받은 공업국 간사가 건설로 1호 아파트 주민등록카드를 가져왔다. 건설로 1호 아파트는 로동자사택으로 이름지었기에 구체적처리는 공업국에서 맡아하게 되었던것이다.

박철준은 돋보기를 걸고 한자한자 뜯어가며 등록카드를 보기 시작했다. 한번지 한번지 훑어내려가던 그의 낮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그들이 지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으로 서랍을 열고 색연필을 꺼낸 그는 등록카드에 승표를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너무나 놀라 달까닥하고 색연필까지 떨어구야말았다. 건설로 1호 아파트 203번지에 박힌 박철준이란 이름이 총탄처럼 눈에 날아들었기때문이다. 그는 옷섶에 돋보기를 문대고 다시 보았다. 틀림없는 자기의 이름이었다.

(최종섭이라고 적혀있어야 할 자리에 집을 요구하지도 않은 나의 이름이 적혀있다니?)

박철준은 색연필을 집어들고 종이가 찢질 지경으로 승표를 뽀뽀 쳤다. 그래도 분이 내려가지 않은 그는 그우에 덩덤히 승표를 쳐댔다. 이때처럼 박철준이란 이름이 모델스럽고 보기 싫은적은 없었다. 그는 화풀이하듯이 그 카드를 활 번쳐버렸다. 하지만 그다음 카드도 그의 분통을 더 터치게 했을뿐이다. 거기에 《204번지 김승현》이라고 보란듯이 적혀있었던것이다. 박철준의 손에 쥐여있는 색연필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김승현...》

그는 이렇게 거친 숨소리와 함께 색연필끝을 꼭꼭 박으며 김승현의 이름을 부른 다음 와락와락 승표를 쳤다. 어찌나 힘주어 승표를 쳤던지 색연필속대가 뭉청 부러지고 카드가 반나마 쭉 찢어졌다.

최종섭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50세대가 들수 있는 건설로 1호 아파트를 마흔두세대나 시위서기, 국장이거나 과장, 주임들이 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10분후, 박철준의 호출을 받은 김승현이 시위서기앞에 나타났다. 60고개를 방금 앞에 두었지만 다부지게 생긴데다 혈색까지 좋아보니 김승현은 얼핏 보면 50좌우를 헤아리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구속도 없이 들어

서자바람으로 쏘파에 몸을 주며 가치담배를 꺼내
여 권하지도 않고 홀로 불을 붙여물었다. 시위서
기가 가치담배엔 손도 대지 않는다는걸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건설로 1호 아파트를 어떻게 분배했소?》

쇠소리같은 시위서기의 물음소리였다.

《수요와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김승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면서 담배를 뱉
뻑 빨았다.

《수요와 조건...무슨 조건이요?》

《가정식구와 가정조건, 자력과 노동태도 등등
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아파트를 간부아파트로 만들었
소?》

박철준은 등록카드를 김승현의 앞에 휙 던지며
자기의 전우를 간간히 훑어보았다. 적의 포탄파
편에 상한 움푹 패인 승현의 왼쪽볼에 난 상처자
국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고있었다.

고지방어전에서 박철준의 옆에 떨어진 포탄이
작렬하려는 그 서늘에 련장의 생명을 위해서 박
철준에게 콧 덮칠 때 터진 포탄파편이 김승현의
왼쪽볼을 치켜여 지나갔던것이다.

《일찍 혁명에 참가한 간부들의 실제곤란을 고
려해서입니다.》

김승현은 한참만에야 이렇게 심드렁하게 대답
하고는 등록카드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은 이 박철준의 이름을
적어넣고 45평방미터에서 세식솔이 살고있는 승
현의 이름까지 끼워넣었소?》

《박서기동무, 박서기동문 30여년 시위서기질하
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30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계십니다. 새집을 지을적마다 남에게
넘겼는데 이번 정년퇴직할 때 새집 한채 드리는
것이 전우로 응당한 일이 아닐가요?》

《감사하오. 감사해! 명확히 말하자면 나에겐 그
런 선심이 필요없소!》

《박서기동무, 박서기동무도 알고계시겠지만 저
는 이제 아들을 장가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할 나이도 오래지 않습니다.》

《장하오 장해! 퇴직전에 뒤통이를 한단 말이겠
지? 나를 관심하는것도 있겠지만 책임을 회피하
고 뒤통이를 막을 그 방패로 시위서기라는 이 코
기러기를 내세웠겠지? 김국장-》

단 두사람이 있을 때면 박철준은 언제나 승현
이라고 불렀고 가장 성났을 때만이 그의 직함을
덧붙이곤했다. 박철준의 이 습성을 김승현은 잘
알고있었다. 하여 오늘 단단히 걸렸다고 여기면
서도 크게 뒤킴심까지는 하지 않았다. 큰 문제도
아니거니와 시위서기와는 혈연적관계를 갖고있
으니 말이다.

《김국장, 동무의 왼볼에 난 그 상처자국만 아
니라면 내 손이 언녕 동무의 뺨으로 날아갔을거

요. 알겠소?》

《좋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김승현은 불을 실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서더니 곧추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다.

《김패장!》

그가 출입문의 손잡이를 쥐는 순간 벽력같은
박철준의 부름소리가 떨어졌다. 그 소리에 김승
현은 못박힌듯 제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던 김패장이 어떤 국장
으로 뒀는지 아오?》

박철준은 최종섭이 반성문대신 쓴 두번째 신소
자료를 김승현의 앞에 내놓았다. 거기에는 비닐
제품공장 공장장이 김승현에게 공장의 목재로 옷
장과 이불장을 짜준것과 그 대가로 공장장이 개
인집을 고가로 팔고 건설로 1호 아파트에 들게
됐다는 전후 사연이 밝혀있었다.

신소자료를 읽는 김승현의 두손이 떨렸다. 가
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렸다.

어느때가 김승현은 몇몇 공장장들이 모인곳에
서 한담할 때 아들의 사돈보기에 무엇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시름스럽게 말한적
이 있었다. 그러자 지금은 보통백성들도 자전거
나 재봉침을 들고 가는데 국장이니만치 잘해가지
고 가야 한다면서 공장장들이 룡 절반 진담 절반

악작 떠들었었다. 하지만 승현에게서는 그것이
룡으로 들리지 않았다. 외동아들인데다 자기가
국장이니만치 보란듯이 잘해가지고 가면 갖지 떨
거지행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여겼다. 그날저녁
술좌석에서 그는 옷장과 이불장을 자기가 책임지
고 만들겠다는 비닐제품공장 공장장이 귀땀하는
소리를 못듣는것처럼 하면서 귀땀 좋게 받아들였
던것이다.

오는 땀이 있으면 가는 땀이 있다고 이번 집분
배에서 그는 제 돈 일전 들이지 않고 비닐제품공
장 공장장에게 은사를 베풀고 신세를 갚았던것이
다. 그것은 수지도 맞거니와 값싼 교역이었다.

워낙 김승현은 사무용 편지지 한장, 편지봉투
하나도 다치려 않던 사람이다. 그는 박철준을 본
보기로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나라에 손 한번 내
밀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이도 많아가고 오래지
않으면 정년퇴직도 해야 하니 아들의 훌륭한 아
버지로, 가정의 믿음직한 호주로 되어 뒤통이와
뒤통이를 잘 마련해야 했다.

그는 자기의 옛 련장이, 자기의 시위서기가 여
간만 섭섭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그렇게 각박하
게, 야속스럽게, 까다롭게 굴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다. 웬간한 일이 있어도 눈을 감아줄 박철준이
아닌가? 하물며 이제 곧 자리를 물리고 정사에
서 나았을 사람이 말이다. 련장을 구하려다 적탄
에 맞은 왼쪽볼에 난 상처자리만 하더라도 그 값
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그는 꼬치꼬치 캐고드는 시위서기가 여간만 고

잡지 않았다. 이번 집분배도 그러했다. 시위서기는 머느리까지 맞아들이고 손자까지 있건만 여직 36평방미터도 되나마나한 집에서 살고있다. 이번에 어쩌다 자기의 권력범위에서 분배할수 있는 건설로 1호 아파트에서, 그것도 신변지나 되는 집에서 한번지 조절했는데 뭇이 잘못됐기에 그것마저 교청이에 꺾든단 말인가? 하긴 세번째로 새 집들이하는 자기와 처신을 보호해줄 호신부로 시위서기를 내세운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위서기를 생각한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 우리 흘린 피가 집 한채 값도 안된단 말입니까?》

그는 시위서기의 일이 정말 야속하였다. 전쟁에서 일가친척을 다 잃고 전쟁의 고아로 되어버린 그는 싸움터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박철준을 기둥처럼 의지했으며 친형처럼 믿었었다. 색다른 음식이 있어도 박철준을 생각했고 술 한잔이 생겨도 박철준을 찾아가았었다. 말 그대로 《하느님》처럼 믿어오던 시위서기가, 기둥처럼 의지하던 형이 그까짓 일에 그렇듯 야박스레 놀수 있단 말인가?

김승현은 섭섭했다. 정말 섭섭했다.

《그래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줄 압니까?》

박철준이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니었다. 하기에 그는 사업에서 김승현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더 높이 요구하면서도 생활상에서는 철들지 않은 친동생을 보살피듯 도와주었다. 보통 가정주부였던 승현의 처가 간경변에 걸려 오래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술한 빛을 졌을 때도 박철준은 승현이 모르게 매달 몇십원씩 떼내어 그 빛을 다 물어줬던것이다.

박철준은 김승현의 심정을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가깝기때문에 더 멀리하고 피흘리는 싸움에서 뺏어진 전우의 정때문에 더 엄격히 요구했다. 또 그런 사이이기때문에 승현의 파오로 하여 더 고통스러웠고 더 분개하였다.

《김국장, 우리들이 피를 흘렸다고, 우리들이 공을 세웠다고 당과 인민들은 우리들에게 영예를 주었소.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 땀을 더 흘리고 피를 더 흘리라고 당과 인민은 우리들에게 직위와 권력을 주었소. 하지만 동문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고생과 피로 바꾸어온 응당한 대가로 치부하고있소. 때문에 동문 지금 당앞에서, 인민들앞에서 그 대가를 흥정하고있소. 피값을 흥정하고있단 말이요!》

박철준은 피로움과 안타까움에 모대기면서도 그런 내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가슴속 열기를 내뿜었다.

《솔직히 말합니다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김승현은 주눅이 든 상이었지만 속은 언짢아가치고 내뿜었다.

《너무하다? 세식구가 45평방미터나 되는 아빠

트도 부족해서 60평방미터 되는 집에 이사하려 할 때 아직 계딱지같은 집에서 잡자리도 찾기 힘들어하는 최종섭과 같은 로동자종업원들이 몇천 몇만이 있다는걸 생각해본적이 있소? 자, 보오!》

박철준은 유리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새로 지은 아파트옆에서 구세통이 수림처럼 줄을 친, 기여가는듯싶은 낫다란 집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간부들은, 권력을 권 어떤 간부들은 공로부우에 누워서 배려만을 바란단 말이요. 지어 권력의 힘, 사업의 편리를 리용하여 더러운 교역을 진행하고있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세운 손바닥만한 공로를 부러먹은 지도 오래오. 알겠소?》

박철준은 제자리에 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담배쌈지와 곰방대를 꺼냈다. 그러자 삽시에 침묵이 흘렀다. 고르롭지 않는 두사람의 숨소리만이 엇바뀌며 들릴뿐이었다.

《김국장, 돌아가서 비관서를 써가지고 다시 찾아오시오!》

침묵을 깨치며 박철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수궁하는지 아니면 항거하는지 갈피잡을수 없는 짜증에다 수치를 반죽한 그런 기색을 띠우며 김승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철준은 김승현의 그 물골을 눈에 담은채 사색의 흐름을 전쟁년대에도 끌고갔다.

3

시간은 오간다 소리없이 흘러만 간다. 가면 다시 돌아올줄 모르는, 놓치고 보면 다시 찾을길 없는 시간은 매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며 자취없이 달리기만 한다.

시간의 덜미를 틀어잡고 그 등허리에 뛰여올라 채찍질하면서 대오의 진두에서 달리던 시위서기는 오늘 시간의 거창한 흐름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분과 초가 아니라 해수로 해아리는 지나간 몇십년을 생각한다. 그간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것만 같다.

당과 인민 앞에, 동지들앞에 미안스러운 생각이 갈마든다.

몇십년간 박철준은 짬만 있으면 시내의 거리거리, 골목골목을, 기관을, 공장을, 백성들 집을 찾아다니며 사업해왔었다. 건설로를 아파트화하는 웅대한 계획도 바로 그들속에서 무르익혔던것이다. 하건만 그의 발길이 닿지 못한곳, 그의 숨결이 미치지 못한곳은 너무도 많은것만 같았다.

그는 정말 미안했다. 미안하기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받은 배려와 대우보다 흘린 땀과 피가 너무나도 적고 하잘것 없는것만 같았다. 그러자 김승현의 목소리가 련치없이, 호되게 그의 땀을 후려치는것이였다.

《그래 우리 흘린 피가 집 한채 값도 안된단 말

입니까?》

선봉패 패장이 이런 국장으로 되다니? 박철준의 눈앞에는 수많은 국장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젊은 패장의 얼굴이 다정스레 떠올랐다.

혁명군인은 기억합시다
3대규률과 8항주의를

사령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선봉패》라는 영예를 따낸, 김승현패장이 인솔하는 선봉패가 앞장에 서서 남으로 돌진하며 부르던 그 노래가 방불히 들리는것만 같다. 후근부의 공급을 미처 받지 못해 혁띠를 조여매고 행군하면서도 길옆에 주렁진 빨간 사과 한알 다치지 않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어느고장을 해방하든지 백성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물을 길어준다 나무를 패준다 마당을 쓸어준다 하면서도 모포를 한지에 퍼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한번은 박철준이 사업정형을 료해하려고 선봉패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때 김승현은 한창 고구마 몇개를 손에 들고있는 한 꼬마전사를 닮아세우고있었다.

《동무, 3대규률과 8항주의를 어디다 뺨개쳤소? 음? 우리 군대의 우수한 전통을 잊었나말이요!》
《길에 떨어진걸 주었습니다.》

《주었다면 임자를 찾아주어야지. 구워먹을 차비를 해? 당금 임자를 찾아주오. 그런후에 나를 찾아오오!》

김승현은 어찌나 성났던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여 명령했다.

《주는 고구마 몇개를 가지고 그렇게 야단칠것까지야 있소?》

그 전사가 돌아간 다음에야 박철준은 성이 가시지 않아 숨을 헐떡거리는 김승현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련장동무, 련장동문 저를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나도 동무처럼 이랬던가?》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라범전투를 방금 마쳤을 때일겁니다. 우리 반이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가 삶아주는 감자를 돈도 내지 않고 먹었다 하여 련장동무가 대신 돈을 꺼내놓으며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무, 3대규률과 8항주의는 어디다 뺨개쳤소? 음? 우리 군의 우수한 전통을 잊었나말이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웁소 웁아, 3대규률과 8항주의를 잊지 말아야지!》

시위서기는 감회깊게 옛일을 생각하며 창가로 다가갔다. 뉘집에선지 창고에 달린 연통에서 점심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다. 창고에 가마를 걸고 세간을 빌려놓은 집입에 틀림없었다. 그러자 최종섭의 목소리가 사무실 벽마다에서 울리는것

만 같았다.

《지금 어떤 간부들한테서는 팔로군작품이거나 토지개혁때 작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철준은 김승현이 꼬마전사를 혼계할 때의 그 고통, 아니 그보다 몇배나 되는 고통속에 파묻혀있었다.

손기척소리와 함께 김승현이 침울한 기색으로 들어섰다. 시위서기를 찾는 사람치고 손기척도 없이 문을 떼는 사람은 김승현 한사람밖에 없었다. 이것은 박철준에게도 김승현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로 되었다. 하건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손기척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쩐지 시큰둥하고 아릴사한 맛을 주었다.

김승현은 말없이 흰종이 한장을 박철준의 책상 위에 갖다놓고는 쏘파에 주저앉았다.

《뭐? 퇴직신청서? 온 오전 생각했다는것이 이것이요?》

박철준은 날이 선 속말을 애써 문질러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건만 김승현에게서는 그 말이 거친 소리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것이 비판서요? 이건 실제상 한장의 항의서요. 항의서!》

《시위서기동무, 어찌다 한 일인데 너무합니다. 물건은 돌리면 되고 집은 들지 않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퇴직신청서는...》

《정말 퇴직하고싶소? 마음속 말이요? 이건 거짓이요! 김국장동무, 동문 이 퇴직신청서를 쓰기 전에 탈당신청서를 먼저 써야 했소.》

박철준의 말을 꼬리물며 손기척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얼굴에 당황한 빛과 부끄러움을 담은 최종섭이 들어왔다.

《오, 최종섭동무, 어서 오오!》

《아닙니다. 박서기동무, 건설로 1 호 아파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취소해주십시오. 전 정말 몰랐었습니다.》

최종섭은 어느때와는 판이하게 무엇인가 죄지는 학생이 선생님앞에 섰을 때처럼 어쩔바를 모르며 겨우 말했다.

김승현은 최종섭이라는 말에 전신에 짜릿한 감을 느끼며 머리를 들었다. 입에는 울랐지만 눈에는 생소한, 말썽을 일으킨 그 장본인을 쳐다보았다.

《왜서요? 어서 말하오.》

《저-그저 제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것처럼 생각해주십시오. 전 정말 몰랐었습니다. 무슨 요긴한 일을 토의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종섭동무, 우린 구면이 아니요? 허물 말고 앉아서 천천히 말하오.》

박철준은 얼른 일어나 나가려는 최종섭을 끌어다 김승현의 옆 쏘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고뿌 두개를 꺼내어 두사람에게 더운물을 부었다.

《종섭동무,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오.》

《박서기동무, 전 정말 몰랐습니다.》

최종섭은 낫을 불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한 말을 또 곱씹는 것이었다.

《전 방금전에야 203번지에 공업국장이 아니라 박서기동무가 든다는걸 알았습니다. 전 박서기동무가 든다면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박서기동문 30여년 고생하면서도 그 많은 식술에 여직 그 집에 계시는데...》

《내가 203번지에 든다는걸 누구한테서 들었소? 동무네 공장장이 아니요?》

최종섭은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철준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번연했다. 김승현과 공장장이 한짓입에 틀림없었다.

《소식이 정말 빠르구만!》

박철준은 김승현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김승현은 머리를 숙이고 담배를 피우고있었지만 시위서기의 눈길을 인중 직감했다. 생각했던 최종섭의 출현으로 줄곧 마음이 불안해진 그는 그래도 몸짓이나 자세를 바로하느라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몸이 더 찢찢해지는 것만 같았다.

《한쪽에서는 오히려 닥치면서 통락하고 한쪽에서는 나앉아 버티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손벽이 잘 맞는데? 동무, 이 순박한 보통로동자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부끄럽고 철면피하게 느껴지지 않소?》

박철준은 머리속인채 절반도 타지 않은 가치담배를 허리꺾으며 불을 끄는 김승현을 보고 뻥뻥하게 말했다. 시위서기가 자기를 거들자 최종섭은 모닥불을 피운듯 낫을 불리며 일어서 나가려 했다.

《종섭동무, 앉소. 동무와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 말이요.》

박철준은 담배쌈지를 최종섭의 앞 탁자에 놓고는 김승현의 옆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승현이, 승현이는 꼭 후회할 날이 있을거요. 그 공장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그날에는 말이요. 하지만 그날에 후회하는 것이 지금 후회하는 것보다 못하고 결과도 좋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너무하다고, 인정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소. 하지만 나는 너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현에게 미안하오. 난 승현에게 내가 해야 할바를 다 하지 못했소.》

박철준의 말을 먹는지 듣는지 김승현은 그저 무표정한 그대로 담배대만 바꾸어댔다. 박철준은 김승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가슴뜨겁게 말했다.

《잊어지지 않소. 금주전투에서 놈들의 포치까를 까부시자 어깨에 총탄을 맞고 부상당한 승현이를 찾아갔을 때의 일말이요. 금주를 해방하고 대오를 정돈하는 틈을 타서 내가 립시후방병

원으로 쓰고있는 한 농가에 이르렀을 때였소. 집안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한 전사의 간절한 말에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소.》

《간병원동무, 전 부대를 떨어질수 없습니다. 전 전사들을 떠날수 없습니다!》

《가만 누워계세요. 상처를 치료해야 또 싸우지요?》

《난 곧 부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사들은 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련장동문 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나는 더는 듣고만 있을수 없었소. 나는 손기척 소리도 낼새 없이 문을 떼고 들어서며 소리쳤었소.

《승현이!》

《아, 련장동무!》

나는 그때에야 승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소. 그때까지 눈물이란 모르던 승현이었소. 승현이를 꼭 품에 끌어안은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승현이는 모르고있었을거요. 가슴속에 눈물을 떨구며말이요.

《련장동무, 절 데리러 왔지요? 한팔을 쓸수 있으니 난 얼마든지 싸울수 있습니다. 앗!》

상처의 진통으로 승현이는 그만 까무라치고말았소. 아, 그때 나는 승현이를 잃을것만 같아 우리의 선봉패장을 살려달라고 군의의 손을 쥐고 애원만 했었소. 주사를 맞고 승현이가 정신을 차리자 나는 너무도 기뻐 국민당놈들에게서 로획한 통줄임이며 과거를 승현의 앞에 내놓았소. 그러니까 승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겠소?

《련장동무, 난 아무거나 다 먹을수 있습니다. 이전 저 중상병들에게 주십시오. 난 일없습니다.》

담배대가 대밑까지 타들어가 담배를 켜 손가락 끝을 지지고있었던 김승현은 그것도 모르고 옛련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우리의 선봉패장은 이런 전사였었소. 손색없는 인민의 아들이었소. 하지만 지금의 그 전사는 옛전통을 까맣게 잊은 나으리병사로 되고말았소. 나는 지금 부상당한 승현이를 끌어안았을 때보다 더 괴롭소!》

박철준은 자리를 일며 말을 뱉었다. 방금전까지도 성난 호랑이같던 그의 낯에 동지애로 차넘친 자애가 감돌았다.

《최종섭동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공업국장이요.》

《네?》

귀를 솔깃하고 박철준의 이야기에 정신을 팔았던, 가슴에 물갈기를 일구던 최종섭이 어망결에 소리쳤다.

《김국장동무,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의견만은 제기했을겁니다. 정말 제가 새집에 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쁩니다. 우리

의 로전사들이 빼앗겼던, 잃었던 우리의 혁명전통을 되찾고 계속 발양한다면 어떤 곤난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겁니다. 전 새집에 들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최종섭은 가마뚜껑같은 큼직한 두손으로 김승현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말했다.

《승현이 듣소? 이젠 우리에게 대한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이며 희망이요.》

《련장동무!》

머리숙이고 앉아있던 김승현이 벌떡 일어서더니 박철준의 책상가로 다가가 《퇴직신청서》라고 쓴 종이를 쥐고 짹짹 찢어버렸다.

《다시 쓰겠습니다!》

《김패장!》

《련장동무!》

두사람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김승현이 상처를 치료하고 부대로 다시 돌아갔을 때 두사람이 얼싸안았던것처럼...

《중섭동무, 래일 건설로 1호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오. 그리고 규률검사위원회에서 동무를 찾을거요. 동무네 공장장에 대한걸 료해할거요. 오후에 새로운 시위서기와 시위의 지도일군들을 모시고 동무네 집을 방문하겠소!》

세사람은 늦게야 시위청사를 나섰다. 시위서기의 마지막 하루, 그건 인생 말년의 새로운 하루이기도 했다.

순희야

리정희

꽃향기 넘치는 거리

시대의 축복을 받으며

영예군인을 태운 삼륜차를

다정히 밀고가는 순희야

미처 몰랐구나

평범한 날에 그리도 조용하고

누가 룡을 걸어도 방그레 미소만 짓던

너의 가슴에

그리도 참된 아름다움이 간직되어있는줄

몰랐구나

한 영예군인의 소행이

신문에 났을 때

설레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어

제 량심에 마음의 고백을 하던 그밤을...

수십장의 편지로도

뜨거운 말로도 모자랄것만같아

너는 서슴없이 속마음 터쳤구나

조국보위의 길에서 한몸을 내대였던

영예군인

그의 한생 벼이 될것을!

우리 당이 그토록 아끼시는 영예군인과

혁명의 꽃 함께 피워가자고

너는 한가정의 안해만이 아닌

혁명의 길동무가 되었구나

시대의 꽃이 되었구나

따뜻한 봄빛도

영원히 시름모르는 꽃을 못피웠건만

승고한 량심과 의리로 불타는

아름다운 심장의 꽃을 피워준

우리의 자랑넘친 로동당시대의 딸!

감사를 드리고싶어라 우리 당에

이렇듯 훌륭한 딸을 키운 그 은정

이 마음에 새겨안을수록

더더욱 가슴뜨거워지누나

아 앞에는 삼륜차가 조용히 굴러가도

아 마음은 조용치 않구나

로동당시대 처녀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모습이어!

통일의 웨침

김형준

세월의 절규

한 어머니의 젖은
쓰고 단맛주자고 돌이던가요
한낱한시에 맞이한 해방의 기쁨은
한 나라 절반에만 찾아온것 아니어서
나는 해방과 분열을 안고온 1945 년입니다

이 나라의 어진 어머니들
단젓 물려 귀한 자식 키울 때
나는 분렬이라는 쓰디쓴 젖도 물려
웅근 한세대를 키웠으니
어찌 불행의 45 년이 아니겠습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넋이 된 젖맛은
어머니의 무릎 떨어지면 잊어도
분렬의 고통은 한생토록 못잊나니
내 차라리 생명없는 어느 행성의 돌밑에
영영 잠들고싶은 한많은 45 년입니다

허나 분렬세월 천년을 사느니
통일세월의 하루로 살고파
50 년 세월 분렬의 울분 한데 모아
외세와 매국노의 머리우에 벼락으로 내릴
아, 사생결단을 각오한 통일념원 95 년입니다

《해방동이》 아바이들

세월의 흐름은 보이지 않아
나몰래 그냥 간줄 알았더니
아닌것, 때늦은 생각이로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아바이》 소리에
내 왜 그리도 놀라는것일까?!...

세월을 돌이켜보니
귀가에 쟁쟁한 목소리 울려오네
어데 가나 《해방동이》라 불러주던 목소리
마치 사랑의 아명처럼
우리 또한 이름처럼 듣던 부름

철없던 시절 그 부름에
우리 성을 낸적도 있지 않았던가
가정과 집단의 막내취급 받는것 같아
그러면 한해에 나이를 두세살씩 먹었으면
하던 생각도 오늘에 후회됨을 숨기지 말자

허나 어찌하랴
세월은 검은 머리에 흰서리 내려주고
《해방동이》라 불러주던 그 말의 여운이
끝내 불려와 확인해준 세월의 호칭
《아바이》란 부름 그 누가 탓하랴

행복만을 누려온 50 나이 동갑들아

이젠 우리 솔직해야 하지 않는가
살아온 나이보다 살 나이 더 많은가?!
《해방동이》가 《통일동이》되지 못하고
통일집 후대에 넘겨줄수야 없잖는가

생각나지 않느냐 우리 어린 시절
-너희들 세대는 꼭 통일이 될게다...
기쁘면 기뻐서
힘겨우면 힘겨워서
선대들이 우리에게 하던 말

그들은 이젠 더러 세상을 떠나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 말을 남겨놓고
눈 감을수야 없지 않는가
통일은 생활의 위안도 아니다
통일은 노래의 후렴도 아니다

나이들어 받는 《아바이》대접은
아래목에 앉으면 저절로 받지만
허나 통일은 주는이 누리는데 따로 없는
남녀로소 7 천만이 안아올
자신의 영원한 존엄이거니

아, 해방의 첫 세대 우리들이
통일의 첫 세대로 불리우기전엔

아바이란 존칭에 대답하지 말자
《해방동이》 아명으로 천만년 살 그 나이

해방세대로 불리울 통일에 있지 않는가?!

통일의 리정표

-통일거리에 세워진 《통일의 열망》 군상앞에서-

출근길도 너희들앞을 지나서 간다
퇴근길도 너희들과 속삭이며 지난다
상봉의 한발자국 앞에 두고
두팔을 내민채 서있는 너희들 모습은
눈물이 빗어낸듯 보기조차 괴롭구나

50년 세월 찾고 부르던 혈육인데
어찌하여 서로 얼싸안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서있느냐
그렇게 멈춰서면 영영 돌로 굳어지리
내친걸음 한발자국 한껏 내짚어라

한발자국 앞에 무엇이 놓였느냐
높은 산이 막아서 넘지를 못하느냐
깊은 바다 앞에 있어 건지지를 못하느냐
제 힘으로 만나야 상봉이 영원하지
떠밀어준 상봉은 작별의 약속이다

높은 산이 무엇이고 바다가 무어냐
전쟁의 피바다도 넘어온 길인데
이 나라의 끝날같은 젊은이들이
꽃같은 목숨바쳐 당겨준 길인데
통일역적 즈러밟고 힘껏 내짚어라

너희들을 앞세우고 걸어온 50년 세월
영영 없애버릴 저주로운 분계선이
너희들 얼싸안을 한발자국에 있다
그냥서면 20세기 분렬이 21세기로 이어져
너희들은 선채로 백발이 되려니

너희들앞을 지나는 아이들의 보폭은 어른을
뺄고
어른들의 보폭은 곱으로 넓어지고
흠뻑 땀이라도 젖은 퇴근길엔
상봉의 한발자국 줄여진것만 같아
출근길이 기다려지는 밤은 길기도 했다

내 부디 통일의 날 멀고 가까움을
그 어데서 찾아보려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얼싸안은 그날은 통일의 날
그 상봉의 한발자국 당겨주기 위해
미제와 매국역적 짓차듯 너희앞을 지난다

아, 7천만이 앞세운 통일의 선봉들아
정녕 통일의 그날이 온다면
7천만 겨레 너희들을 한껏 안아주리라
첫 애인을 포옹하던 그보다 더
억세게! 열렬히! 뜨겁게!

조국과 통일의 대화

조국-봄에 오릅니까 통일이여
그러면 내 온 강산에 꽃을 피워
꽃동산에 그대를 맞이하리다
통일-나는 손님이 아니라오
내 땅 찾아 내가 가는데
꽃은 피워 무엇하느냐
조국-여름에 오릅니까 통일이여
그러면 내 록음방초 단장시켜
온 강산이 떨쳐나 그대를 맞으리오
통일-헐벗어도 내 나라
잘 입어도 내 민족

록음방초 단장이 필요없노라
조국-가을에 오릅니까 통일이여
그러면 내 옅은빛으로 술빛고 성찬차려
그대 위해 통일연 배푸리다
통일-제 잔치에 제가 귀빈 되지 않듯
늦은 걸음 피로운데
잔치는 더욱 죄송하노라
조국-겨울에 오릅니까 통일이여
그러면 내 백설을 내려
흰 주단길로 그대를 모시리다
통일-아니라고 나를 위한 통일의 은사들이

목숨도 꽃잎처럼 바친 그 길을
내 어찌 쉬이 밝고간단 말리오
조국-낮에 오렵니까 밤에 오렵니까
그러면 내 몸 리정표되고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히려다
통일-아니라오 나는 그대 찾아 가고싶건만
외세와 역적의 무리 칼 품고있는 땅엔
나는 못가오 가고싶어도 못가오

눈물에 젖은 통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시인
사랑과 증오를 노래하는 사람
내 사랑을 다 바쳐 노래한 조국이며
허나 통일을 노래하는 이 시각
조국분렬의 원한 가슴치누나

어찌 그렇지 않으랴
너를 위해 민족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위대한 한생을 바치시였고
너를 유혼으로 남기신채
우리결을 떠나지 않았던가

너 생각나지 않느냐
7월의 그날 우리 수령님
너 기차타고 빨리 오라고
끊어진 철길 어서 놓아하시며
그리도 절절히 하시던 말씀들

너 듣지 않았느냐
배도 많이 못고
농사도 더 잘 짓자고

통일열기 식히지 않을 석탄도 많이 캐자고
우릴 불러 하시던 그날의 젖은 음성

정녕, 네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래서
남녘의 형제들 앞선이 뒤선이 없이
통일의 광장에 함께 나란히 들어서라고
너의 이름으로 통일거리를 세우고
땅밑에도 《통일역》을 세우지 않았더냐

너를 부르는 시인의 목소리
기다림에 지쳐버린 하소연도 애원도 아니다!
너는 우리 수령님 유혼중 유혼이어서
가슴에 새겨진 상처의 깊은 계곡에선
피눈물이 흘러 원한의 바다를 이루었다

아, 어버이를 괴롭힌 한많은 통일이야
기빠서 웃으며 맞이할 네가 온대도
그날 우리는 눈물을 씹으며 맞이하게 되리라
수령님을 통일조국에 모시지 못한
억울함에 사무쳐... 그리움에 사무쳐...

유엔에 부치여

유엔사무총장 귀하
당신도 바로 이 시각 나처럼
《로동신문》을 펼쳐들었겠지요
그리고 펼쳐든 신문을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을 보실테지요

조선을 북남으로 두동강내고
신성한 내 서재에도 나타난 장벽
대양을 건너 대륙을 넘어
유엔청사 당신의 방에까지 기여간
뻔뻔스러운 콩크리트장벽을

그리고 이 시각 보고있을테지요
평화를 념원하는 이 행성의 심장에

비수마냥 박힌 그 장벽을 지켜!
방수포를 벗긴 미국제 핵탄의 퇴관을 향해
살기쁜 격침들의 번뜩이는 눈길을

그 무기의 그늘아래 남녘땅에서
그 어떤 참상이 벌어지고있는지
유엔의 《사도》 미군이 활개치며
강토와 민주와 자유가 유린되는곳엔
《유엔군》의 피자국이 찍혀있는줄

어찌 미국의 방위선이 조선이 되며
한 민족의 분렬을 패락으로 삼는 놈들이
평화와 통일을 태워 핵가마 끓여만든
핵탄과 살인무기들이

통일을 교살하고 분렬을 지키게 한단 말입니까?!

유물은 유엔의 보호도 받는다고 하지만
유물도 아닌 민족의 수치 콩크리트장벽이
유물도 아닌 전쟁의 화근 핵무기가
미국의 보호아래 버섯구름 꿈을 꾸는
이 무서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남녘땅 통일의 유다들이
7 천만의 가슴을 아프게 가른 장벽이
당신의 청사와 저택과 가정마저 두동강내고
50 억의 인류가 50 억개의 나라로 파생될
몸서리치는 《분렬국가반응》을!

우리 사는 행성이
파편으로 흩어질 참화의 화근이
콩크리트장벽을 방패삼고 핵점을 휘두르는
유엔의 《사도》 미군에 있음을
당신은 똑똑히 알아야 하나니

정녕,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
유엔과 당신의 리념과 량심이라면
조선의 통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인 내앞에! 7 천만 겨레앞에!
세계의 선량한 량심앞에!

-통일념원 95 년-

고향의 편지

장은하

병사에겐
고향의 편지를 받을 때가
언제나 즐거워
정답고 그리운 얼굴들 마주하는듯
가슴은 들먹인다네
고향체신소의 도장이 찍힌
손바닥만한 하이얀 봉투속엔
그리운 얼굴들도 있으니
우리는 말한다네
10 전짜리 면회라고

흰나래 펼치고 훨훨
산넘고 들지나 날아온 편지
어머니가 찾아온듯 기쁘다네
배낭을 메고
고향집에 들어선듯 기쁘다네

편지에는 있다네
어머니의 팔베개 베고
장밤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아버지 어머니의 정겨운 이야기
고향마을의 변모된 이야기

고향소식 기다리는 병사
나약하다 생각지 말라
고향이아기는
번영하는 나라의 소식
고향은 뼈와 살처럼
병사와 뗄수 없다네

그래서 어느 병사의 품안에나
고향의 편지는 간직되어있다네
고향의 편지를 소중히 품고
훈련길 험한 길도 펄펄 난다네

아 고향의 편지는
천만산악 뚫고나갈
병사의 힘이라네
열백밤을 지새도
지칠줄 모르는 병사의 투지라네

열렬하고 뜨거운
고향사람들의 인사라네
충성과 위훈의 발걸음 높여주는
조국과 병사의 값높은 상봉이라네

우리 민족의 인사례법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레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였을뿐 아니라 레의를 어기는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인사례법이 바르고 레절을 잘 지키는것을 풍습으로 삼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레의 도덕이 바른 민족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가지 형식이 있지만 조선절이 제일 좋다고 지적하시였다.

옛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꿇어엎드려 절을 하는데 한다리는 뒤로 뻗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부여에서는 꿇어엎드려 손을 바닥에 짚고 절한다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부여사람들과 달리 다리를 뒤로 뻗치고 한 절은 평소애 웃어른들에게 하던 절과는 다른것 같다. 《삼국지》의 다른곳에서 사위가 처가집의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꿇어절한다고 한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고구려사람들의 절하는 법도 부여사람들과 같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군사행동이나 공적인 용무로 인사를 할 때에는 신속하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수 있게 한 다리를 꿇고 한다리는 뒤로 뻗치고 절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중세말기에 우리 인민들이 하던 인사법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 하나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꿇어엎드려 두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숙이는 큰절이며 둘째는 두손을 앞에 모두어쥐고 깊숙이 머리숙이는 절인데 지난날에는 이것을 《읍》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머리만 간단히 숙여 절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절은 때와 장소,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하였다.

큰절은 집안에서만 하는 절이였고 《읍》이나 머리만 숙이는 절은 흔히 밖에서 하는 절

이였다. 리조시기자료에 의하면 공적인 사업과정에는 두번 큰절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사사로운 생활에서는 한번만 하였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벼슬도 높은 사람에게는 큰절을 하고 웃사람에게는 허리를 굽혀 절하였다. 젊은 사람의 벼슬이 높고 나이많은 사람의 벼슬이 낮을때에는 서로 허리굽혀 절하였다.

우리 인민은 특히 자기를 배워준 스승에게 레절을 잘 지키었다. 스승을 만났을 때에는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하고 선생님의 건강을 문의하였다. 예로부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컸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자녀의 스승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하였다. 비록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벼슬도 없지만 《선생》으로서 각듯이 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스승을 존경하고 그에게 정중히 레의를 표시하는것을 레절로 여기었다.

가정에서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부모이상 어른들에게 문안하였다. 봉건적질서로 하여 나이가 많아도 향렬이 낮으면 향렬이 우인 젊은 사람에게 인사하였다. 실례로 삼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인사를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렬이 낮은 사람이 절을 하면 향렬이 높은 사람은 반절로서 답례를 하였다. 반절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짚고 머리만 숙여 간단히 인사하는것으로서 답례에만 쓰이였다. 같은 또래들사이에는 간단히 머리만 숙여 절하였다. 아래사람의 인사에 답례를 하는 때에도 머리만 숙이였다.

※향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서의 대수관계를 표시하는것이다. 즉 아버지 향렬이라면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들향렬에 속하는 사람이 존경해야 하였다.

길거리에서 하는 인사는 허리굽혀 절하는것과 머리숙여

절하는것이 있었으며 이러한 절과 함께 지켜야 할 여러가지 레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절을 하고 길을 양보하였다. 아래사람은 웃사람, 특히 늙은이에게 길을 비켜주거나 잠깐 그자리에 머물러서서 그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지켜오는 레의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지켜온 인사례법은 단정하고 정중하며 위생적이다.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웃어른에게 하는것, 같은 또래와 친구에게 하는것, 아래사람에게 하는것 등 레절을 지켜야 할 대상에 알맞게 되어있다. 즉 보다 정중성을 표시해야 할 대상에게는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절하고 친구사이에는 간단히 머리숙여 인사하며 아래사람의 인사에 반드시 머리를 숙여 답례하였던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인사법들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큰절을 내놓고는 매우 간편하며 또한 대상에 알맞으며 위생적으로도 좋은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봉건도덕에 의하여 레절이 허례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한집안에 함께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인사하는것은 좋은것이였으나 격식을 갖추어 부모에게 절을 하는것은 지나친 틀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밖에 나갈 때 인사하고 돌아와서 인사하면 되는것을 구태여 아침저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던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향렬이 낮은 사람이 향렬이 우인 젊은 사람에게 인사하는것도 폐풍이였다. 이것은 양반들에게 있었던 허례허식이였다.

우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례법을 잘 지킬뿐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후대들도 레절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 인사례법이 바르고 레절이 밝은 민족이였음을 잊지 말게 하여야 한다.

평양-개성행렬차 외 1편

변흥영

차창에 비쳐오는 가을날의 풍경에
내 오래 취할수 없었다
침묵을 두드리는 차바퀴소리가
가슴치는 웨침인듯 나를 깨우는
평양-개성행렬차

풍요한 벌마다 무겁게 실린
올해의 풍작이 더없이 좋건만
개성역이 가까와올수록
기쁨에 흥떴던 이야기도 적어지고
길손들도 말없이 앉았다
지나치는 역명을 마음속에 새이며

차창엔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황금빛을 떨치던 전야도 보이지 않는다
불빛만이 가까이 다가서고 또 멀어지고
개성도 이제 방금이다
나는 생각깊은 눈길로 밖을 내다본다

오, 개성
지역으로 보면 조국땅 한가운데
하지만 거기가 종착역이어야 하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서려있는 땅

흘러간 옛세월
첫 통일국가의 수도였던 그날엔
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
하나의 국토에 위세를 뻗치며
번창하던 도시
오늘은 어찌하여 분렬된 강토의 대명사처럼
그 이름 민족의 가슴에 못박혔던가

세월을 두고 흘린
겨레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도시

행복이 꽃피는 생활속에서도
때없이 문득 가슴이 저려오는
그 상처를 다시 허버놓으며
렬차는 기적을 올린다

아직도 이 땅 허리를 휘감은
분렬의 장벽을 들어내지 못하고
이해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도 온 겨레가 숙원하는 통일을
90 년대에 이루지 못한다면
넋이 있고 피가 뛰는 심장을 가졌다고
누가 감히 민족앞에 머리들수 있느냐

오호, 가슴에선 불이 인다
평양-개성행렬차
북남 삼천리에 뻗어갈
통일의 궤도를 막아선 원쑤
외세와 그 옷蓑에 매달린 매국의 무리들을
강토의 먼지처럼 날려버리며
가자, 저 남해 한끝까지-

내 아직은 가보지 못한 그 기수에서
통일조국의 해돋이를 마중하고싶다
온 겨레의 눈물젖은 환희가
끝없이 파도쳐일어서는
통일된 강토의 한끝을 내 눈으로 보고싶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한복판에
종착역일수 없는 종착역을
이제 더는 그대로 두고 살수 없나니
렬차여, 분렬 반세기의 수난을 끝장내며
이대로 내치 질풍처럼 달려가다오
개성역을 지나 남으로 남으로!

박연폭포

청청한 숲과 맑은 공기
내 온 심신을 씻고픈 깨끗한 물만으로도
이 산천 그지없이 신성한데
박연폭포여
이 골안에 네가 있구나

어찌보면 네 모습

저 천마산과 성거산이 그 한끝을 맞잡고
천길 절벽에 드리운 하얀 비단필인듯
하다면 바람결에 가벼이 스적이련만
너는 어이 천동우뢰인양 온 골안을 뒤흔드느냐

어찌보면 네 모습
청산의 벽계수가 알알이 골라

쏟아붓는 흰 구슬꺄미인듯
하다면 쌓여쌓여 산을 이뤘겠는데
너는 어이 장장 부서져 성급히 흘러가느뇨

헛되도다
내 너를 노래하고싶건만
목소리는 명동하는 그 소리에 닿지 못하고
가락은 허공중에 휘뿌리는
물보라에 묻혀 가뭇없이 찾아드누나

하건만 탓하지 말아다오

내 비록 재능의 붓이 무더
오늘은 너를 다 그려내지 못한대도
장쾌한 네 모습 내 눈앞에 지워질줄 모르고
호방한 그 기백 내 가슴에 살아뛰리니

박연폭포여, 그 어디에 가든
너는 내앞에 번쩍이며 쏟아져내리리라
너는 내 났을 씁없이 흔들여깨우리라
네가 있는 이 산천
신성한 내 조국을 한껏 빛내가라고-

교단에 서는 마음

박련희

교단은 높지 않아도
내 언제나 천만금의 무게로 오른다
날마다 시간마다 서는 교단이어도
스스럼없이 설수 없어
거울앞에서 자신의 마음 먼저 닦노라

흠어진 한오리 머리칼도
단정히 빗어넘기고
하얀 동정깃 이음새도
깨끗이 바로 맞추며

오직 진실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정의만을 가르쳐야 하는
가장 신성한 교단이기에
가장 숭고한 교단이기에

마음속 티킴볼 하나 있어도
마음속 준비가 미처 안되어도
저 맑은 눈동자들앞에
뻗뻗이 나설수 없는 교단이기에

씨앗을 땅에 묻으면
그대로 자라는것 아니고
심은 나무

절로 기동감 되는것 아니거니

사람들 때로
화원의 만발한 꽃을 볼 때
꽃을 가꿔온 원에서 미처 생각 못하듯
영웅, 박사들의 림름한 모습에 비끼
교원들의 숨은 노력 잊을수도 있으리

허나 나의 그 노력이
후대들의 지식샘 된다면
그들을 떠이고 선 초석이 된다면
더 바라는것 없는 마음

하기에 내 서는 교단은 높지 않아도
가리키는 지시봉 그 한끝은
저 멀리 조국의 미래에
잇닿아있어라

아 교단은 높지 않아도
나의 마음 천만금의 무게로 오른다
한없이 큰 우리 땅의 믿음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날을 따라 시간따라
조국의 미래 높이 높이 받들어올린다